

전남 판소리 전승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020. 03



제 출 문

전라남도지사 귀하

귀 도에서 본 연구원에 의뢰하신 “전남 판소리 전승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03

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연구원**

이 사 장	조 형 준
책 임 연구원	강 병 항
선 임 연구원	박 지 완
연 구 원	강 민 애
연 구 원	김 정 모
연 구 보 조 원	김 민 영

목 차

I 과업의 개요

①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3
② 과업의 범위 및 내용	3
1. 과업의 범위	3
2. 과업의 세부내용	3
2.1 전남의 판소리 현황 및 여건 분석	3
2.2 도내 판소리 전수관 운영실태 및 기능 보강 방안	4
2.3 도단위 판소리 거점센터 운영 방안	4
2.4 판소리 활성화 비전 및 홍보 전략 등	4
③ 과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5
1. 과업의 추진방법	5
2. 과업의 추진절차	5

II 전통공연예술 및 판소리 현황분석

① 전통공연예술의 환경분석	9
1. 전통공연예술의 현황	9
2. 전통공연예술 관련 법·정책 현황	10
2.1 법 제정의 필요성 대두	10
2.2 정부 정책 현황	11
3. 전통공연예술의 트렌드	12
3.1 정책 환경 변화	12
3.2 소비자 수요 등의 환경 변화	12

② 판소리 현황분석	12
1. 전국	12
1.1 지역별 판소리의 특징	12
1.2 판소리의 전승 기반과 교육의 변화 방향	14
1.3 판소리 무형문화재 지정·운영 현황	15
1.4 판소리 전형의 전승 현황	16
1.5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현황	22
2. 호남권	24
3. 전남 판소리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26

Ⅲ

도내 판소리 전수관 현황 및 개선방안

① 구례 판소리 전수관 현황 및 문제점	29
1. 시설 현황	29
2. 운영현황	30
3. 운영상의 문제점	31
4. 판소리 관련 보유 자원	31
② 보성 판소리 전수관 현황 및 문제점	32
1. 시설 현황	32
2. 운영 현황	32
3. 운영상의 문제점	33
4. 판소리 관련 보유 자원	34
4.1 문화자원	34
4.2 인적자원(판소리 명창, 전수자)	37
4.3 기타원(교육기관, 교육생 등)	37

③ 판소리 전수관 개선방안	38
1. 단기적인 개선방안	38
1.1 구례 판소리 전수관	38
1.2 보성 판소리 전수관	39
2. 중·장기적인 개선방안	39

IV 전남 판소리의 문제점 및 대책

① 전남 판소리의 문제점	43
1. 지역 전승활동 및 전승 지원자의 감소	43
2. 판소리 자료 관리 미흡	45
3. 판소리 상설공연 프로그램 및 공연장 부족	46
4. 판소리 대중화 미흡	47
② 전남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	49
1. 판소리 전승자 확대 방안	49
1.1 판소리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 개선	49
1.2 판소리 전승지원금 현실화	50
1.3 판소리 전승활동에 대한 간접 지원 강화	51
1.4 이수자 대상 판소리대회 확대 개최	52
1.5 판소리 교육기관 신설 및 예비 명창 양성 교육	52
1.6 ‘남도소리꾼 명예의 전당’ 구축	53
2. 판소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53
2.1 판소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53
2.2남도 판소리 박물관 건립	56
3. 판소리 상설공연 프로그램 보강 및 공연장 확대 방안	57
3.1 판소리 상설공연 프로그램 개발·운영	57
3.2 판소리 공연장 확대 방안	57

4. 판소리 대중화를 위한 대책	58
4.1 문제의 인식	58
4.2 연행 환경의 확장과 판소리의 대중화	58
4.3 양식에 대한 고민과 창극의 대중화	59
4.4 창작 판소리의 지속적인 창작활동 지원	60
4.5 문화 원형으로서의 판소리 콘텐츠화 전략	62
4.6 판소리 공연·전시 콘텐츠 다양화	63

V 전남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① 도내 판소리 전수관의 거점센터화	67
1. 도내 판소리 거점센터의 필요성과 기능	67
1.1 판소리 거점센터의 필요성	67
1.2 판소리 거점센터의 기능	68
2. 구례·보성 판소리 전수관의 거점센터화	70
2.1 장·단점 분석	70
2.2 소요예산	71
2.3 기대효과	72
3. 판소리 거점센터의 운영계획(안)	72
3.1 기본방향	72
3.2 조직구성(안)	73
3.3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73
② 새로운 판소리 거점센터 구축 방안	75
1. 현 전남도립국악단 활용 방안	75
1.1 전남도립국악단 현황	75
1.2 전남도립국악단의 거점센터 구축 방안	76
2. 국립남도판소리원(또는 국립남도음악원) 설립 방안	79
2.1 설립의 필요성	79
2.2 시설규모계획	80

2.3 추정 사업비	80
2.4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81
③ 기타 정책 방향	82
1.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거점사업 연계방안	82
1.1 사업 개요	82
1.2 신청 대상	83
1.3 선정 절차	83
1.4 기대효과	84
2. 지역 판소리 전수관 확대 방안	84
2.1 지역 여건 분석	84
2.2 판소리 전수관 설치 대상지역	87
2.3 지역별 판소리 전수관 설치 규모와 추정 사업비	87
3. 거점센터와 판소리 전수관 연계 운영 활성화 방안	88
3.1 단기적인 방안	88
3.2 중·장기적인 방안	90
4. 남도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92
4.1 홍보 전략의 필요성	92
4.2 전통공연예술의 마케팅 및 관객 경향	95
4.3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96
4.4 지속적 마케팅 및 홍보 방안	99
4.5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과제 제언	103

VI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책추진 로드맵

① 연구 결과의 요약	107
1. 도내 판소리 전수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7
1.1 구례 판소리 전수관의 문제점	107
1.2 보성 판소리 전수관의 문제점	107
1.3 도내 판소리 전수관의 개선방안	107

2. 전남 판소리의 문제점과 대책	109
3. 전남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110
3.1 도내 판소리 전수관의 거점센터화	110
3.2 새로운 판소리 거점센터 구축 방안	113
3.3 기타 정책 방향	115
□ 장·단기 정책추진 로드맵	118

표 목차

<표 2-1> 판소리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15
<표 2-2> 판소리 <춘향가>의 전승계보	17
<표 2-3> 판소리 <심청가>의 전승계보	17
<표 2-4> 판소리 <적벽가>의 전승계보	18
<표 2-5> 판소리 <홍보가>의 전승계보	19
<표 2-6> 판소리 <수궁가>의 전승계보	20
<표 2-7> 판소리 5바탕의 바다 형성과 전승 현황	21
<표 2-8>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지정 현황	22
<표 2-9>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현황	25
<표 2-10>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현황	25
<표 2-11>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현황	26
<표 4-1> 시·도지정 판소리 무형문화재 현황(2019년 기준)	44
<표 4-2> 전남지역 판소리 공연 가능한 문화공간 현황	47
<표 4-3> 판소리와 창극, 창작 판소리 비교	49
<표 4-4>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 현황(2019년 기준)	51
<표 5-1> 타 시·도 예술단의 정원 현황	77
<표 5-2> 예술단의 인력 구성(안)	78
<표 5-3> 사업비 산출 내역	81
<표 5-4> 전라남도 시·군별 예술단 현황	85
<표 5-5> 전라남도 시·군별 문화공간 현황	86
<표 5-6> 전남 4대 권역 구분 및 권역별 비전	87
<표 5-7> 공연계 내부요인 중 마케팅 경향에 대한 기술통계량(평균)	95
<표 5-8> 공연계 내부요인 중 관객경향에 대한 기술통계량(평균)	96
<표 5-9> 빅토르 위고 생가와 송홍록 생가의 비교	102

그림 목차

[그림 1-1] 과업의 추진체계	5
[그림 1-2] 과업의 추진절차	6
[그림 2-1] 판소리 전승 기반과 교육의 변화 양상	14
[그림 3-1] 동편제전수관 시설 현황	29
[그림 3-2] 서편제전수관 시설 현황	32
[그림 4-1] 전남 판소리 자료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방안	54
[그림 5-1] 현 전남도립국악단 조직도	75
[그림 5-2] (가칭)전남도립국악원의 조직도(안)	77
[그림 5-3] 전라남도 시·군별 인구 현황(2019년 6월 말 기준)	85
[그림 5-4]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비전 및 전략 체계	97
[그림 5-5] 판소리 관련 가치사슬(산업구조)	98
[그림 5-6] 유튜브상의 판소리 관련 파일(예시)	100
[그림 6-1] 남도 판소리 활성화를 장·단기 정책추진 로드맵	119

I

과업의 개요

- ①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②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③ 과업의 추진방법과 절차

제 I 장 과업의 개요

①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 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의 가치를 보전·발전시키고,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전수관 콘텐츠 내실화 및 기능보강
 - ※ 도내 판소리 전수관 현황 : 2개소(구례 동편제, 보성 서편제)
- 판소리와 관련된 전시, 공연, 교육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센터 운영 등 판소리 활성화 방안 마련

②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9년~2022년
-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 내용적 범위 : 전남 지역의 판소리 보전·전승 활성화 방안
 - 전국 및 전남도 판소리 현황, 국내 판소리 활성화 사례 조사
 - 구례·보성 판소리 전수관 콘텐츠 기능보강, 전승·활성화 방안
 - 도단위 거점센터 설치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시군 판소리 전수관 연계방안
 - 판소리 대중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방안 등

2. 과업의 세부내용

2.1 전남의 판소리 현황 및 여건 분석

- 전국, 호남권, 전남도 판소리 현황 분석
 - 전국, 호남권, 전남도의 명창, 판소리 단체 현황 및 활동 상황 등
- 국내 판소리 활성화 및 도단위 거점센터 운영 사례 조사

- 국내 판소리 활성화 사례 및 도 단위 거점센터 운영 현황 조사, 시사점 도출

2.2 도내 판소리 전수관 운영실태 및 기능 보강 방안

- 도내 판소리 전수관(2개소) 운영실태 파악
 - 구례·보성 판소리 전수관 기본개요, 운영 현황, 문제점 분석 등
- 구례·보성 판소리 전수관 개선방안
 - (기능) 콘텐츠 및 기능보강 방안, 축제 등 연계 활성화 방안 등
 - (시설) 판소리 전수관 보강 방안(신축, 증축, 개보수 등), 소요예산 등

2.3 도단위 판소리 거점센터 운영 방안

- 도단위 판소리 거점센터 설립 및 운영 방식 분석
 - 도단위 판소리 거점센터 운영의 필요성, 문제점 등
 - (신축) 콘텐츠(전시시설, 전시물 등)확보 방안, 필요성, 문제점 등
 - (기존시설활용) 기존 시설을 통한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 방안 등
- 거점센터와 권역별 전수관 연계 운영 방안
 - 권역별(동부, 중부, 서부 등) 판소리 전수관 운영 기본계획 구상
 - 거점센터와 권역별 판소리 전수관과 연계 운영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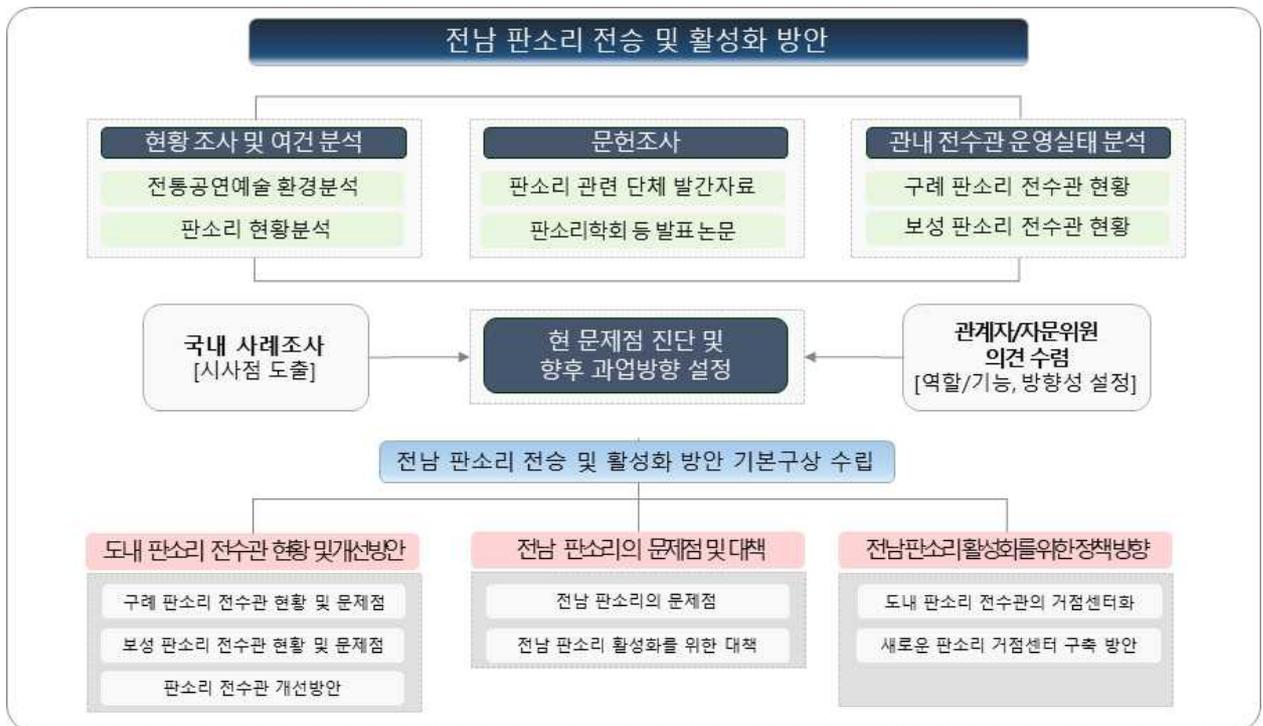
2.4 판소리 활성화 비전 및 홍보 전략 등

- 판소리 활성화 비전, 전략, 홍보 방안 등
 - 판소리 저변확대, 참여자 확대 등 지속 가능한 판소리 활성화 방안
 -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마케팅 및 홍보 방안

③ 과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1. 과업의 추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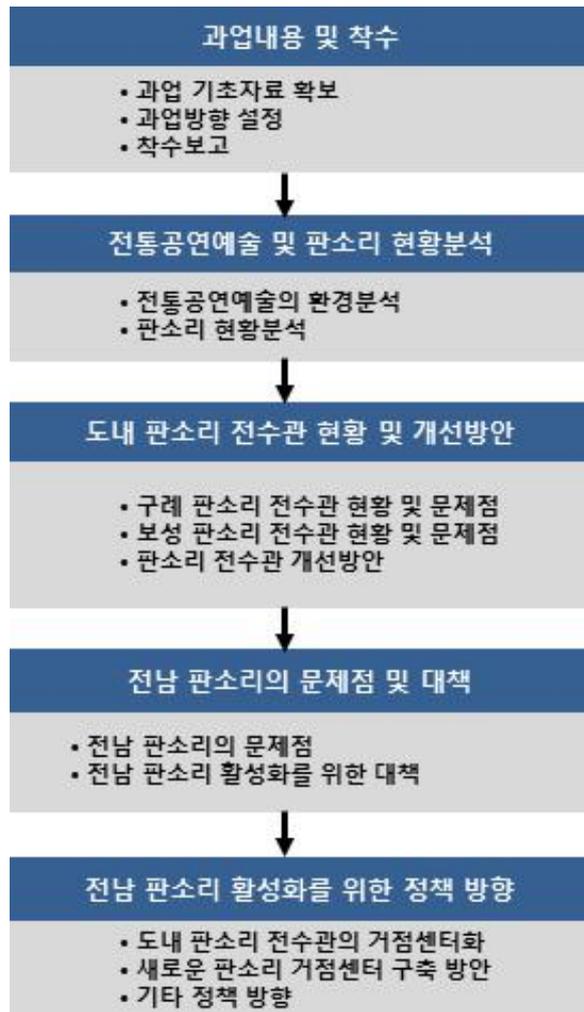
- 본 과업은 현황분석, 사례조사, 도 담당공무원 및 자문위원의 의견수렴 내용을 근거로 크게 세 가지 점을 염두하고 추진함.
 - 현 문제점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과업방향을 설정함.
 - 전남 판소리 전승 및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수립
 - 도내 판소리 전수관 기능 보강 방안, 도단위 판소리 거점센터 운영 방안 및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비전 및 홍보 전략 수립



[그림 1-1] 과업의 추진체계

2. 과업의 추진절차

- 본 과업의 추진절차는 다음의 [그림 1-2]와 같음.



[그림 1-2] 과업의 추진절차

Ⅱ

전통공연예술 및 판소리 현황분석

- ① 전통공연예술 환경분석
- ② 판소리 현황분석

제II장 전통공연예술 및 판소리 현황분석

① 전통공연예술의 환경분석

1. 전통공연예술의 현황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향수 실태조사’와 ‘전통공연예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연극·뮤지컬·대중음악·미술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별 관람률이 전통 예술분야는 7.6%에 불과하여, 대중들의 참여가 저조함을 알 수 있음.
- 이를 연령별 관람비율로 살펴보면, 50·60대 이상이 36%로서 10·20·30대를 합친 38.6%와 비슷함을 볼 때 확실히 노년층의 관람비율이 높음.
- 그렇다면, 대중들은 왜 전통공연을 외면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15년 「한국의 집」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이유로는 첫째, 공연장소와 공연에 대한 정보의 부족(66%)과, 둘째, “공연이 어려워 흥미없다(24%),” 셋째, “비싸다(10%)”라는 결과가 드러남.
- 그런데, 이 내용은 서양음악,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무용, 연극과 같은 순수예술 분야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한계이며, 그에 비해 영화, 대중음악, 뮤지컬 같은 대표적인 대중예술은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음.
- 상황이 비슷한 인접예술의 경우, 문학행사는 다양한 북콘서트, 미술전시회는 도슨트를 활용한 트렌디한 전시, 무용은 어렵지 않은 고전을 재해석한 현대무용, 연극은 아이돌스타의 활용이나 연극열전(명품연극)과 같은 참신한 기획으로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음.
- 여기에 비해서 전통공연예술분야는 전국의 총 438개 전통공연예술단체(이 중 385개 민간단체 : 2015년 공연예술실태조사 기준)의 예술가들이 여타 순수예술 분야의 예술가들처럼 예술적 생존을 위해 그야말로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현실은 공적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며(공공의존도 77%; 여타 장르평균 53%), 이 중 연습실 임대비율도 타 장르에 비하여 높은 편이어서, 연습공간 지원이나 활동거점 구축 등 시설 기반형 지원도 시급한 형편임.
- 2000년대 이후 전통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대부분 기관 운영 및 향유사업 확대 그리고 창작과 관련된 정책이었음.
- 이에 비해 타 분야는 창작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데, 시각예술정책은 창작스튜디오 설립정책으로, 공연예술 분야는 전문인력 양성 및 창작 인프라 조성정책으로, 문화산업 분야는 창작지원 기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전통분야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정책이 변화되어야 함.

-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앞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였던 10, 20, 30대의 관람율이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경향은 새롭고, 재미있고, 독특한 전통공연작품을 만들려는 젊은 창작자들의 노력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10대들의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특별한 날에 입는 전통의상, 고궁데이트 드 : 2016년 이노션 트렌드 리포트), 그리고 20, 30대 직장인 등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 변화(7월 문화소비 전월대비규모 전통예술 9.5% 증가 : 2018년 인터파크)가 일정부분 동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통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추동력이 되어 줄 요소도 발견할 수 있는데, 최근 관광, 업무, 학업 등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점임.
- 2016년 국내 체류 외국인인 약 205만 명이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700만 명 규모이며(2017.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통문화를 향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점임.
- 그러한 변화는 우선적으로 쇼핑에서도 감지되는데, 주요 쇼핑장소로 전통시장을 찾은 경우가 48.2%로 전년대비 9.5% 증가 추세(복수응답)에 있고, 또한 관광활동에서도 변화가 있는데 주요 관광활동으로 고궁이나 유적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50.1%로 전년대비 12.8%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전통문화체험은 31.2%로 전년대비 6.5% 증가를 보이는데 비하여, 유희·오락의 경우는 23.9%로 전년대비 9.1% 감소를 보이고 있음(2017: 서울시).
- 따라서 새롭고, 재미있고, 독특한 전통공연예술을 추구하는 젊은 창작자들과 10대, 20대, 30대 국내 관광객 층의 ‘만남의 장’ 만큼이나 한국 전통문화에 호감을 갖는 외국인들과의 ‘만남의 장’도 시급한 형편임.

2. 전통공연예술 관련 법·정책 현황

2.1 법 제정의 필요성 대두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의무는 헌법 제9조에서 국가에 부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연법·문화예술진흥법·문화재보호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으로 나뉘어져 부분적인

적용을 받고 있음.

- 예를 들어,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서 현대공연예술은 음악, 무용, 연극 등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전통공연예술은 ‘국악’으로만 정의되어 있어 현대공연예술에 비하여 진흥 및 지원 비중이 현저히 낮은 실정임.
- 따라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이미 2007년에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이 회기 불계속,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2009년에도 다시 발의 되었으나 마찬가지로 폐기된 상태이며, 그리고 2017년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나아가 이를 활성화하고, 국민 모두가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 제정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음.

2.2 정부 정책 현황

- 먼저, 국민들의 전통공연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① 대중성 있는 콘텐츠 개발을 확대(76.4%), ②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확대(75%), ③ 우수한 콘텐츠 작품을 발굴하여 지원(74.9%) 등의 순으로 나타남(2016년 전통공연예술 실태조사).
- 2000년대 이후 전통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보면 ‘기관이나 시설 운영’, ‘국민 향유기회 확대’, ‘창작 관련 지원’의 세 가지임.
- 그러나 이제는 문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관점에서 지원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현 단계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단체와 예술가의 건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 미래를 지향하는 인력양성 지원 시스템 구축
 - 단체, 예술가 간 적극적 정보교류 및 교육을 위한 거점공간 마련
 - 새로운 수요창출 및 수요개발을 통한 전통공연예술 시장 확대
 - 적극적 파트너십 및 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원 효율성 극대화
 - 전공 중고교·대학과의 적극적 연계교육 시스템 마련

3. 전통공연예술의 트렌드

3.1 정책 환경 변화

- 창조적이고 산업적인 전토예술의 가치창출에 대한 요구 확대
- 인문학, 스토리, 문화역사 및 관광과 연계한 전통예술의 플랫폼 등장
- 국내와 국외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외연 확대 지속

3.2 소비자 수요 등의 환경 변화

- 아마추어 소규모 그룹화와 적극적 소비
- 중·장년 이상 주요 문화예술소비대상 증가 및 여가 연계
- 다양한 융합 및 퓨전에 대한 요구 증가
- 전문적인 소비자 등장
- 첨단 디지털 기술과 연계 필요성 확대

② 판소리 현황분석

1. 전국

1.1 지역별 판소리의 특징

가. 동편제 : 씩씩하고 힘찬 우조 창법

- 동편제는 전라도 동북지역인 운봉, 구례, 고창, 흥덕, 순창 등의 소리제로 순조 때 며명창 송홍록의 소리제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송광록, 박만순, 송우룡, 송만갑, 유성준으로 전해졌으며, 이외에 김세중, 장자백, 정춘풍, 박기흥으로 전승되는 소리로 동편제의 큰 줄기를 형성함.
- 동편제 소리의 특징은 비교적 우조(羽調)를 많이 사용하고, 발성을 무겁게 하며, 소리의 꼬리를 짧게 끊고, 굽고 웅장한 시김새로 짜여 있음.

나. 서편제 : 부드럽고 슬픈 계면조 창법

- 서편제는 전라도 서남지역인 보성, 광주, 나주 등의 소리제로 철종 때 명창인 박유전의 소리제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이날치, 김채만으로 전해졌으며, 그 밖에 정창업, 김창환, 김봉학으로 전승되는 소리로 서편제의 큰 줄기를 형성함.
- 서편제의 특징은 비교적 계면조(界面調)를 많이 사용하고, 발성을 가볍게 하며, 소리의 꼬리를 길게 늘리고, 정교한 시김새로 짜여 있음.

다. 중고제 : 동편제와 서편제의 중간, 상하성이 분명한 창법

- 중고제는 경기도와 충청도의 일대에서 전승되던 소리제로 순조 때 명창인 김성옥, 염계달에게서 비롯되었음.
- 김성옥의 소리제는 김정근, 황호통, 김창룡으로 전승되었고, 염계달의 소리제는 고수관, 한송학, 김석창으로 전해짐.
- 중고제의 소리는 동편제 소리에 가까우며 고박한 시김새로 짜여 있음.

라. 경드름 : 경기민요 창법을 도입한 판소리 창법

- 경드름은 경조(京調), 경제(京制), 경토리 등으로 불리는데, 18세기 전기에 경기 여주 출신 명창인 염계달이 그의 출생지인 여주 인근 지방의 민요 스타일을 판소에 전용한 것이라고 함.
- 판소리 경드름은 경기민요 음악어법인 경토리를 수용하지만 이를 판소리화하여 발전시켰는데, 솔 라 도 레 미의 경토리 음조직에서 최고음이 미보다 높은 파의 음 음계로 나타나는 진경드름으로 변화하고, 솔 도 미 파의 수심가토리 성격을 갖는 반경드름으로 발전하기도 함.
- 또한 선율형에서는 g-a의 여음적 성격을 갖는 올림종지 선율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리듬형도 다양한 확대형과 축소형을 통해 판소리 사설을 극적으로 표현함.
- 이렇게 판소리 경드름은 경기민요 경토리를 수용·발전시키면서 전라도에서 발생한 판소리의 예술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 요인이 됨.

마. 설령제

- 춘향가 중에서 군로사령 대목은 춘향이가 신관사또의 부름을 응하지 않자 사령들이 춘향을 잡으러 설령거리며 떠돌고 들어가는 장면을 노래한 부분인데, 이 대목은 명창

권삼득의 더듬인 흥보가 중에서 제비가 대목을 수용하여 만든 소리이며, 이러한 양식의 노래를 설령제라고 함.

- 설령제는 서민들이 씩씩하고 경쾌하게 걷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 높은 소리로 질러서 호령하다가 차차 하강하는 가락형으로 씩씩하고 거드럭거리는 창법이며 권삼득제, 덜령제, 덜령조, 권마성제라고도 불림.

⇒ 이와 같이 판소리의 유파는 지역적으로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창극의 활성화로 여러 지역 출신의 명창들이 함께 공연에 참여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취하여 새로운 음악을 받아들이는 등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여 오늘날의 판소리는 지역적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 편임.

1.2 판소리의 전승 기반과 교육의 변화 방향

- 판소리의 전승과 사승구도는 한 가지로 이야기 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데, 근대에 나타난 변화 방향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 번째, 19세기에는 가계 중심, 지역기반 불박이 집단의 ‘제’ 중심 전승이었던 판소리가 20세기에 들어서 지역성을 넘어서서 음반시장 기반이나 문화재 지정 종목 기반으로 바뀌면서 명창 중심으로 여러 ‘제’가 섞이는 양상을 띠었다는 점임.
- 두 번째 변화는 20세기 전반까지 대목소리 중심의 공연문화와 전승 교육이 가능했으나 2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바탕소리의 완창을 중시하여 바탕소리 전체를 교육받는 형태가 더 선호되고 있다는 점임.



[그림 2-1] 판소리 전승 기반과 교육의 변화 양상

1.3 판소리 무형문화재 지정·운영 현황

- 현재 판소리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운영은 판소리 전승과 사승구도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으며, 그로 인해 20세기 후반부터 완창을 중시하고 유파별 바탕소리 중심으로 바뀌었으나 이는 긍정적 변화로 보기 어려움.
- 특히, 특정 명창이 특정 유파의 한 가지 바탕소리를 전승하는 것으로 묶이는 현상은 판소리의 생명력을 제한하는 조건이 될 수 있음.
- 무형문화재 보호법이 새로 제정되고 ‘전형’을 지키는 것으로 가치를 두는 형태로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판소리계에 이러한 변화가 널리 홍보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새로운 법률의 실제 적용에서 기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판소리 전승자들에게 이러한 상황 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일어나야 함.
- 판소리의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음.

<표 2-1> 판소리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국가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신영희-진도) 적벽가(송순섭) 흥보가 심청가 고법(정철호-해남, 김청만-목포)	서울제32호 판소리(흥보가 이옥천, 수궁가 정의진) 대전제22호 판소리 춘향가(고향임) 충남제51호 판소리(흥보가, 김수향) 세종3호 판소리 흥보가(임영이) 광주제1호 남도판소리(춘향가, 이춘자) 광주제6호 남도판소리서편제 광주제9호 남도창동편제(수궁가, 박화순) 광주제14호 판소리강산제(심청가, 이임례) 광주제16호 판소리춘향가(동초제, 방야순) 전남제29-1호 판소리(동편제 흥보가, 김향순) 전남제29-2호 판소리 춘향가(안부덕) 전남제29-4호 판소리 수궁가(박방금) 전남제29-5호 판소리 흥부가(김순자) 전북제2-2호 판소리(심청가, 이옥희) 전북제2-5호 판소리(춘향가, 최승희) 전북제2-7호 판소리(춘향가, 조소녀) 전북제2-8호 판소리(적벽가, 성준숙) 전북제2-12호 판소리(심청가)(유영해) 전북제2-13호 판소리(수궁가)(박양덕) 전북제2-14호 판소리(춘향가)(이용길) 전북제2-15호 판소리(흥보가)(김명식) 전북제2-16호 판소리(수궁가)(왕기석) 전북제2-17호 판소리(수궁가)(김소영) 대구제8호 판소리(심청가)(주운숙) 경북제34호 판소리 흥보가(정순임) 경남제9호 판소리(수궁가)

1.4 판소리 전형의 전승 현황

- 판소리 전형의 전승현황을 살펴보면, 판소리 <춘향가>를 비롯하여 총 45개에 달하는 바디¹⁾를 형성하였음.
- 현재 28개 바디가 전승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 바디는 전승단절 위기에 있거나 이미 단절됨.
- 형성된 바디를 판소리 바탕별로 분류하면 <춘향가> 12개, <적벽가> 10개, <흥보가> 9개, <수궁가> 8개, <심청가> 6개 등임.

가. 판소리 <춘향가>

- 판소리 <춘향가>는 판소리 5바탕 중 가장 많은 바디를 형성하였으며, 서편제 <춘향가>가 오늘날 성장되고 있음.
- 서편제 <춘향가>는 김창환 바디, 정정렬 바디, 김연수 바디, 김소희 바디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음.
- 강산제²⁾ 정응민 바디는 김세종으로부터 비롯되어 발전시켜 왔으며, 성우향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바 있음.
- 동초제 김연수 바디는 공연 시간이 8시간에 가까워 현존하는 <춘향가> 중 가장 긴 <춘향가>로 손꼽힘.
- 만정제 김소희 바디는 동편제, 서편제, 강산제 소리를 고루 익혀 조합한 것이어서 동편제, 서편제로 양분하기 어렵우며, 김소희가 각 명인의 좋은 대목만을 골라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김소희 바디가 완성되었고, 그것은 곧 판소리의 새로운 전형의 탄생을 의미함.³⁾
-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춘향가>는 신영희가 보유자로 인정되어 김소희 바디를 전승하고 있음.

1) 바디는 판소리 한마당 일체라는 완성된 구성체라는 점에서 특정 소리 대목을 지칭하는 더듬과 차이가 있음. 더듬은 “어떤 명창이 특정 대목을 뛰어나게 잘 불러서 그의 장기로 널리 인정받은 대목” 혹은 “어떤 명창이 다른 명창과의 소리대기에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잘 부르는 대목”, “판소리 명창이 다른 창자보다 뛰어나게 잘 불러서 감상층으로부터 그의 장기로 인정받은 대목” 등 판소리 한마당 중 특정대목을 가리키기 때문임.

2) 강산제란 명칭은 박유전의 호 강산(江山)을 따서 지은 이름이라는 설과 박유전이 살았던 강산리(崗山里) 지명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김연수와 정권진은 대원군이 박유전의 소리를 듣고 “네가 제일강산(第一江山)이다” 한 발언으로부터 강산제 명칭이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정노식은 박유전의 고향인 보성읍 강산리(崗山里)에서 딴 지명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3) 김소희 <춘향가> 창본에 따르면 소리의 기본 골격은 정정렬 바디에 두고 ‘기생점고’, ‘십장가’는 송만갑 바디를, ‘방자가 춘향집 가리키는 대목’, ‘천자뉘णी’, ‘사랑가’ 등은 정응민 바디를 각각 수용함.

<표 2-2> 판소리 <춘향가>의 전승계보

구분	전승계보	바디(제)	전승현황	
동편제	송홍록→송광록→송우룡→ 송만갑	→박만조→박봉래→박봉술	박봉술 바디	×
		→김정문→박초월→남해성	송만갑 바디	○
		→송만갑 박기홍→김정문→박록주		×
서편제	박유전→정창업, 이날치→ 정정렬	→정광수→김영자	김창환 바디	○
		→김여란→최승희, 박조선	정정렬 바디	○
		→박록주		×
		→이기권→박귀희		×
	→박동진	박동진 바디	×	
강산제	김세종→김찬업, 이동백, 정재근→정응민→정권진, 성우향, 성창순, 조상현	정응민 바디	○	
중고제	김성옥→김정근→김창룡	김창룡 바디	×	
동초제	박유전→정창업, 이날치→정정렬→김연수→오정숙→이일주	김연수 바디	○	
만정제	정정렬, 송만갑, 정응민→김소희→신영희, 안숙선	김소희 바디	○	

나. 판소리 <심청가>

- 판소리 <심청가>는 애원성, 설음제 등으로 애절한 느낌이 강한 서편제 악조의 특징이 가장 많이 반영된 판소리로 알려져 있음.
- 서편제 김채만 바디는 한애순이 광주시무형문화재 제1호 <심청가> 보유자로 인정받아 지방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되었으나 타계함.⁴⁾
- 강산제 정응민 바디는 서편제 <심청가>와 유사하나 말부침새가 분명하고 시김새가 적은 것이 특징임.
- 동편제 박록주 바디는 박록주의 타계와 함께 전승이 단절됨.
- 중고제 박동진 바디 또한 박동진을 끝으로 전승이 단절됨.⁵⁾
- 정응민 바디 전승자인 성창순이 보유자로 인정되어 판소리 <심청가>를 전승하였으나 타계함.

<표 2-3> 판소리 <심청가>의 전승계보

구분	전승계보	바디(제)	전승현황
동편제	송홍록→송광록→송우룡→송만갑→김정문→박록주	박록주 바디	×
서편제	박유전→이날치→김채만→박동실→공대일, 김동준, 한승호, 한애순	김채만 바디	○
강산제	박유전→정재근, 이동백→정응민→정권진, 성창순, 조상현	정응민 바디	○
중고제	이동백→김창진→박동진	박동진 바디	×
동초제	송홍록→송광록→송우룡→송만갑, 정응민→김연수→오정숙	김연수 바디	○
만정제	박동실, 정응민→김소희→신영희, 안숙선	김소희 바디	○

4) 한애순은 ‘서편제 <심청가>의 절창’으로 불릴 만큼 김채만 바디 <심청가> 전승자로서 크게 이름을 떨쳤으나, 스승 박동실이 월북음악인이라는 이유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전해짐
5) 박동진은 스승 김창진의 영향으로 진양을 느리게 연주하는 ‘삼공쟁이진양’으로 구사한 것이 특징이나 현재는 뚜렷한 제자가 없이 전승이 단절됨

다. 판소리 <적벽가>

- 판소리 <적벽가>는 중국 『삼국지연의』에서 적벽대전 내용을 발췌하여 판소리조로 만든 것으로 <화용도(華容道)>라고도 하며⁶⁾, 동편제 박봉술 바디<적벽가>가 널리 성창되고 있음.
- 중고제를 대표하는 박동진은 조학진에게 소리공부를 했으나 온전히 사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스로 새로 짠 바디는 전승이 단절됨.
- 유성준은 동편제 소리의 대가인 송우룡에게 소리를 직접 배운 전형적인 동편제 명창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 임방울과 정광수는 유성준으로부터 동편제 <적벽가>와 <수궁가>를 사사했음.
- 서편제는 이날치 소리를 이은 김채만 바디와 강산제 정응민 바디가 전승되고 있음.
- 동초제 김연수 바디는 서편제 정정렬 명창과 동편제 유성준 명창 소리를 근간으로 새롭게 짠 바디임.
- 동편제 임방울 바디와 중고제 김창룡 바디와 이동백 바디는 전승이 단절되었으며, 박봉술 바디를 전승한 보유자 송순섭이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적벽가>의 맥을 잇고 있음.

<표 2-4> 판소리 <적벽가>의 전승계보

구분	전승계보		바디(제)	전승현황
동편제	송흥록→송광록→송우룡→송만갑	→박봉래→박봉술→김동준, 송순섭, 김일구, 안숙선	박봉술 바디	○
		→박봉채, 김정문→강도근	송만갑 바디	○
	송흥록→송광록→송우룡, 송만갑→유성준	→임방울	임방울 바디	×
		→정광수→정옥향	유성준 바디	○
	정춘풍→박기홍→조학진→박동진→강정자, 김양숙	조학진 바디	○	
서편제	박유전→이날치→김채만→박동실→한승호→우정문		김채만 바디	○
강산제	박유전→정재근, 이동백, 김찬업→정응민→정권진→정희석, 윤진철		정응민 바디	○
중고제	김성옥→김정근	→김창룡	김창룡 바디	×
		→이동백→강장원	이동백 바디	×
동초제	유성준, 정정렬→김연수→오정숙→이일주		김연수 바디	○

6) <적벽가>는 “슬픈 성음의 시나위제 같은 것이 극소하고 동편제더늬(우조)이 많은 것” 이 특징이며, 초기에는 명칭을 <화용도타령>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조조가 화용도에서 패주하는 장면을 강화한 것으로 명칭 변화와 함께 내용적 변이도 수반된 것으로 보고 있음. 반면 <적벽가>라는 명칭은 적벽대전 장면을 강화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음

라. 판소리 <홍보가>

- 판소리 <홍보가>는 <수궁가>와 함께 가장 재담이 많은 소리임.
- 동편제는 송만갑의 소리를 김정문, 박만조, 박봉래가 전승했음.⁷⁾
- 서편제 <홍보가>는 김창환의 소리를 오수암, 김봉학, 박지홍 등이 계보를 이었으나, 김창환 바디와 박지홍 바디는 후계자인 정광수와 박동진이 타계한 후 전승이 단절됨.⁸⁾
- 오수암의 소리법통을 이은 박초월 바디가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음.
- 중고제 염계달 바디는 김창렬의 음원만 남아있을 뿐 현재는 전승이 끊긴 상태임.
- 동초제 김연수 바디는 특정계보를 전승한 것은 아니며 여러 제의 <홍보가>를 참고하여 다시 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만정제 역시 송만갑과 정정렬, 박록주 바디의 바탕위에 김소희의 미학적 재구성과 창조성으로 새롭게 형성된 것임.
- 동편제 박록주 바디를 계승한 박송희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홍보가> 보유자로 인정되어 전승되었고, 그가 “반창밖에 안 되는” 박록주의 소리에 ‘놀부 박 타는 대목’을 추가함으로써 오늘날 완창 형태를 갖추었으나 타계함

<표 2-5> 판소리 <홍보가>의 전승계보

구분	전승계보		바디(제)	전승현황
동편제	송홍록→송광록→송우룡→송만갑	→김정문→강도근→전인삼,안숙선	김정문 바디	○
		→김정문→박록주→한농선,박송희	박록주 바디	○
		→박만조,박봉래→박봉술→송순섭	박봉술 바디	○
서편제	박유전 정창업 김창환	→오수암→박초월→조통달	박초월 바디	○
		→김창환,김봉학→정광수	김창환 바디	×
		→박지홍→박동진	박지홍 바디	×
중고제	임계달→김창룡	염계달 바디	×	
동초제	송홍록→송광록→송우룡→송만갑→김연수→오정숙→이일주	김연수 바디	○	
만정제	송만갑,정정렬,박동실,박록주→김소희→신영희,안숙선	김소희 바디	○	

7) 김정문에게 소리를 익힌 강도근과 박록주는 각각 강도근 바디와 박록주 바디를 형성하여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두 바디가 공통으로 ‘놀부 박 타는 대목’이 없다. 박만조와 박봉래로부터 송만갑의 소리를 전수한 박봉술 바디는 오늘날 송순섭을 통해 이어지고 있음. 박봉술, 강도근, 박록주, 오정숙 등은 동편제 <홍보가>를 “각각 독특하고 독자적인 바디를 형성하여 전승”하였고, 박봉술과 강도근은 각각 자신의 스승인 송만갑과 김정문의 소리를 올곧게 전승하였으나, 박록주와 오정숙은 스승의 소리를 개작하여 변화를 시도함.

8) 정광수 제자 정옥향은 정광수에게 30년 동안 소리를 익히면서 <수궁가>, <홍보가>, <적벽가> 등 세 바탕을 전수받은 유일한 제자로 인정받음. 현재 판소리 <수궁가>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되어 <수궁가> 전승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광수에게 김창환제 <홍보가> 전 바탕을 전수하였으므로 이 또한 전승이 가능하리라고 봄. 따라서 단절위기에 있는 소리를 전승, 보존하기 위해서는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인정에 있어 창자가 전승하고 있는 종목을 검증하여 복수 종목을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마. 판소리 <수궁가>

- 판소리 <수궁가>는 판소리 5바탕 중 유일하게 주인공이 사람이 아닌 동물들이 등장하는 우화적 이야기임.⁹⁾
- 동편제 <수궁가>는 송만갑과 유성준을 중심으로 계보를 형성하였는데, 송만갑의 계보인 박봉술 바디는 오늘날 송순섭, 김일구가 전승하고 있음.
- 유성준계의 박초월 바디, 정광수 바디, 김연수 바디 등이 전승되고 있고, 임방울 바디와 박동진 바디는 전승이 단절됨.¹⁰⁾
- 강산제 정응민 바디는 정권진에 이어 오늘날 성창순, 조상현이 계승하고 있으며, 중고제는 염계달의 ‘토끼 육 사설’이 더듬으로 남았으나 김창룡을 끝으로 맥이 끊김.
- 판소리 <수궁가>는 남해성이 보유자로 인정되어 박초월 바디를 잇고 있었으나 타계함.

<표 2-6> 판소리 <수궁가>의 전승계보

구분	전승계보	바디(제)	전승현황	
동편제	송흥록→송광록→송우룡, 송만갑→유성준	→유성준, 정응민→정광수→김영자, 안숙선, 정의진	정광수 바디	○
		→정광수, 임방울→박초월→남해성, 조통달, 김수연, 왕기석	박초월 바디	○
		→임방울	임방울 바디	×
		→박동진	박동진 바디	×
	송흥록→송광록→송우룡→송만갑→박만조→박봉래→박봉술→송순섭, 김일구	박봉술 바디	○	
서편제	박유전→정재근	정재근 바디	×	
강산제	박유전→정재근, 이동백, 김찬업→정응민→정권진, 성우향, 성창순, 조상현	정응민 바디	○	
중고제	염계달→김창룡	염계달 바디	×	
동초제	송흥록→송광록→송우룡, 송만갑→유성준→김연수→오정숙→이일주	김연수 바디	○	

바. 소결

- 근대 8명창시대 이후 형성된 판소리 유파는 <춘향가>를 비롯하여 판소리 명창들이 총 45개에 달하는 독자적인 바디를 만들었는데, 그중 현재 28개 바디가 전승되고 있으며, 17개 바디는 이미 단절됨.
- 무엇보다 송흥록을 시조로 하는 동편제 판소리의 성장과 전승활동이 다른 유파에 비하여 매우 활발하였으며, 송만갑 바디로부터 뻗어 나와 총 17개 바디를 형성하였고,

9) <토끼타령><별주부타령><토별가>라고도 한다. 다른 바탕과 다르게 진양조 대신 빠른진양인 세마치장단을 많이 사용하고, 중모리와 중중모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임.

10) 정광수 바디는 유성준계의 전형과 가장 가까우며, 김연수 바디는 “유성준의 수궁가에 사설을 새로 삼입하여 곡을 새로 짜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수용하여” 변화가 많으며, 임방울 바디 또한 “목구성이 좋아 자기 나름대로 편곡하여 새로 부른” 것이기에 각각 개성적인 소리로 변화시킴.

그 중 10개 바다가 현재도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 동편제와 함께 판소리 역사의 큰 축을 담당한 서편제는 박유전을 기점으로 하여 총 10개 바다가 형성되었고, 이외에 중고제 6개 바다 전체가 전승이 단절되어 음원을 바탕으로 일부 복원을 한 상황이며, 근대 이후 동초제·만정제의 출현으로 판소리 전형이 다양화됨.
- 판소리 5바탕의 바다 형성 및 전승현황을 정리하면 <표 2-7>과 같음.

<표 2-7> 판소리 5바탕의 바다 형성과 전승 현황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		흥보가		수궁가		소계		총계	
	전승	단절	전승	단절										
동편제	1	2	-	1	4	1	3	-	3	2	11	6	17	
서편제	3	3	2	-	2	-	1	2	1	-	9	5	14	
중고제	-	1	-	1	-	2	-	1	-	1	-	6	6	
여타	동초제	1	-	1	-	1	-	1	-	1	-	5	-	5
	만정제	1	-	1	-	-	-	1	-	-	--	3	-	3
소계	6	6	4	2	7	3	6	3	5	3	28	17	45	
총계	12		6		10		9		8					

- 판소리 5바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보면 총 45개 바다 중 <춘향가>가 12개 바다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적벽가>가 10개, <흥보가> 9개, <수궁가> 8개, <심청가> 6개 등이 형성됨.
- 바탕소리별 세부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판소리 <춘향가>는 총 12개 바다(동편3, 서편6, 중고1, 동초1, 만정1)가 형성되어 6개 바다(동편2, 서편3, 중고1)가 단절되었고, 현재 6개 바다(동편1, 서편3, 중고1, 동초1, 만정1)가 전승되고 있음.
- 두 번째로, 판소리 <심청가>는 총 6개 바다(동편1, 서편2, 중고1, 동초1, 만정1)가 형성되어 2개 바다(동편1, 중고1)가 단절되고, 4개 바다(서편2, 동초1, 만정1)가 전승되고 있음.
- 세 번째로, 판소리 <적벽가>는 총10개 바다(동편5, 서편2, 중고2, 동초1)가 형성되어 3개 바다(동편1, 중고2)가 단절되었고, 7개 바다(동편4, 서편2, 동초1)가 전승되고 있음.
- 네 번째로, 판소리 <흥보가>는 총9개 바다(동편3, 서편3, 중고1, 동초1, 만정1)가 형성되어 3개 바다(서편2, 중고1)가 단절되었고, 6개 바다(동편3, 서편1, 동초1, 만정1)가 전승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판소리 <수궁가>는 동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총 8개 바다(동편5, 서편1, 중고1, 동초1)가 형성되어 3개 바다(동편2, 중고1)가 단절되었고, 5개 바다(동편3, 서편1, 동초1)가 전승되고 있음.

- 흥미로운 것은 서편제, 동편제는 형성된 바디 중 1/3 가량이 전승이 단절되었고 중고제는 전체가 단절되었지만, 혼용제(동초제, 만정제)의 바디는 100% 전승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제가 가진 장점을 취하거나 좋은 대목을 골라 하나로 융합한 혼용제는 곧 대중들의 기호에 맞게 창자가 선택적 재구성한 판소리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판단됨.

1.5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현황

- 판소리는 1964년 12월 28일(문교부 고시 제212호)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1970년 7월 22일 국가무형문화재 제36호 <판소리 심청가>가 별도로 지정되었다가, 1976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로 통합됨.
- 고법은 1978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9호 <판소리 고법>으로 지정되었다가, 1991년에 이르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에 통합됨.
- 현재까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표 2-8>과 같음.

<표 2-8>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지정 현황

번호	명칭	지정일	성명	성별	기·예능	인정일	해제
5	판소리	1964. 12.24	성창순	여	심청가	91. 5. 1	사망 해제 (17. 1. 5)
			박송희(박정자)	여	홍보가	02. 2. 5	사망 해제 (17. 2. 19)
			송순섭	남	적벽가	02. 2. 5	
			남해성(남봉화)	여	수궁가	12. 4. 6	사망 해제 (20. 1. 28)
			신영희	여	춘향가	13. 3.12	
			정철호	남	고법	96. 9.10	
			김청만	남	고법	13. 3.12	
			정광수(정용훈)	남	수궁가	64.12.24	사망 해제(03. 11. 2)
			박초월	여	수궁가	64.12.24	사망 해제(83. 11. 26)
			김소희	여	춘향가	64.12.24	사망 해제(95. 4. 18)
			김연수	남	춘향가	64.12.24	사망 해제(74. 3. 9)
			김여란	여	춘향가	64.12.24	사망 해제(83. 5. 3)
			박록주	여	홍보가	64.12.24	사망 해제 (79. 5. 26)
			한승호(한갑주)	남	적벽가	76. 6.30	사망 해제 (10. 1. 28)
			정권진	남	심청가	70. 7.22	사망 해제 (86. 2. 6)
			박봉술	남	적벽가	73.11.11	사망 해제 (89. 12. 11)
			강도근(강맹근)	남	홍보가	88.12. 1	사망 해제 (96. 5. 13)
			한농선(한귀례)	여	홍보가	02. 2. 5	사망 해제 (02. 4. 8)
			오정숙	여	춘향가	91. 5. 1	사망 해제 (08. 7. 7)
			성우향(성판례)	여	춘향가	02. 2. 5	사망 해제 (14. 5. 1)
김명환	남	판소리 고법	78. 2. 2	사망 해제 (89. 4. 5)			
김영수(김득수)	남	판소리 고법	85. 9. 1	사망 해제 (90. 5. 21)			
김성권	남	판소리 고법	91.11. 1	사망 해제 (08. 9. 4)			
조상현	남	심청가	91. 5. 1	사망 해제 (08. 2. 21)			

- 위의 표를 바탕으로 현재 전승되고 있는 판소리의 보유자 4명에 대한 전승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춘향가 : 신영희

- 춘향가 보유자로 신영희 명창이 2013년 3월 12일 인정되었고, 신영희 명창은 고 김소희 명창의 전수조교였으며, 김소희제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와 보성소리 수궁가를 보유하고 있음. 아직 이수자를 배출하지 못한 상태이며, 전수조교는 없는 상태임. 현재 전수교육생은 이주은, 박영문, 서명희, 김미란 등 21명 정도임. 이들 전수생은 김소희 문하에 있을 때부터 가르쳐온 제자들로 20년 넘게 배워오고 있으며, 현재 77세로 고령이지만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매우 활발한 공연활동과 전승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특히 신영희 명창은 판소리 외에 남도민요를 전승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 남도민요보존회와 ‘만정김소희 판소리선양회’를 운영하고 있음.

2) 적벽가 : 송순섭

- 적벽가 보유자로 송순섭 명창이 2002년 2월 5일 인정되었고, 송순섭 명창은 박봉술제 적벽가, 흥보가, 수궁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 바탕을 전수 교육하고 있음. 현재 이수자는 58명, 전수교육생은 4명 정도임. 보유자는 서울 인사동에 연습실을 두고 있으며, 순천에 자택과 ‘송순섭판소리전수관’을 두고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사)판소리보존회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도 하고 있음. 84세의 고령이나 매우 왕성한 활동을 하며, 2015년에는 국립창극단에서 적벽가를 올려 작창을 맡아 가르치기도 하였음. 현재 전수교육조교는 없는 상태임. 보유자는 순천시의 지원으로 순천에 터를 닦고 살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음. ‘송순섭 판소리전수관’은 숙소와 제자들 전수를 위한 숙박동, 별도의 전수관이 있으며 산 중턱에 박봉술 선생 묘소를 두고 있음. 사설집을 직접 교주하여 낸 바 있으며, 판소리 복원과 지역 판소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순천대사습놀이 복원과 동편제 판소리 전승 등에 힘쓰고 있음.

3) 판소리고법 1 : 정철호

- 판소리 고법에 정철호 명고가 1996년 9월 10일 인정되었고, 정철호 명고는 현재 96세로 보유자 중 가장 고령의 나이이나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공개행사에서도 30여 분의 소리를 하고 창작판소리를 선보이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음. 현재 이수자 30명, 전수교육생 50여 명을 두고 있음. 전수교육조교로는 박정철이 활동하고 있음. 한편, 사)청강정철호전통예술진흥회와 ‘정철호고법전수소’를 운영하며, 이수자들을 중심으

로 ‘정철호고법보존회’가 운영되고 있음. 보유자는 판소리 고법 외에 임방울계 적벽가, 수궁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열사가도 보유하고 있음. 보유자는 14세 무렵 임방울 국악단을 따라서 전국을 다니며 소리와 북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임방울의 수궁가, 적벽가를 배웠고, 정정렬계 춘향가도 배웠음. 특히 북은 임방울의 지정고수였던 김재선에게 배웠는데, 어떠한 유파가 있다기보다 자득한 것임. 보유자는 고법, 판소리 외에도 아쟁, 거문고 등의 연주에도 능통하며 특히 아쟁 악기를 개량하기도 하는 등 다재다능한 기예능실력을 가지고 있고, 창작판소리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음. 최근 ‘임방울류 적벽가’ 완창 ‘임방울류 수궁가’ 완창 ‘정철호류 아쟁산조’ 등을 영상콘텐츠 기록물로 제작하기도 하였으며, 보유자가 주관하는 ‘장흥 가무악대회’는 2015년 17회를 맞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오고 있음.

4) 판소리고법 2 : 김청만

- 판소리 고법에 김청만 명고가 2013년 3월 12일 인정되었고, 김청만 명고는 현재 73세로 매우 왕성한 공연활동과 전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보유자는 한일섭, 김동준 문하에서 북을 배워 일가를 이루었고, 그의 문하에 27명의 전수교육생이 있는데, 16년전부터 더 이상 전수생을 받지 않고 27명의 제자들 중심으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들 27명이 이수자가 된 이후 전수교육생을 받을 예정인데, 이 정예제자들에게는 고법은 물론 타악 전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보유자는 고법 외에 아쟁이나 풍물 전반에 대해서도 뛰어난 기량이 있는데 박종선, 윤은선, 김일구 등에게 아쟁을 배웠고, 최막동, 정경화, 한성준, 김명환 등에게 북, 장고 등 타악을 배웠음. 그는 현재 사)일통고법보존회를 운영하며 제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김청만계 ‘북산조’를 개발하여 전승하고 있음. 서울 방배동의 보존회와 논산시 벌곡면의 자택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특히 논산에서는 주중 2-3일을 머물며 전국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여름과 겨울에는 합숙을 하며 차세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함.

2. 호남권

- 판소리는 전남·전북을 중심으로 발전된 연행예술로, 현재 시·도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도 판소리 종목과 보유자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이며, 또한 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역시 전남·전북지역 출신이 많음.
- 그렇기에 국악의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전남·전북이 처음 조사지역으로 주목된 것이며,

그 중 전라남도의 국악실태조사는 1976~1980년까지 진행되었는데, 전라남도 지역에서 실재(實在)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국악인을 대상으로 함.

- 이 조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주도한 것으로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에 따라 무형문화재 기·예능 전승자에 대한 기초학술조사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며, 특히 판소리 부분에서는 29명의 전승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때 조사되었던 명창들은 다음과 같음.
 - 광주 : 공대일·박춘성(박옥심)·한애순, 목포 : 신흥우, 여수 : 김우남·김향순·김재황·정홍수, 순천 : 박향산·김옥순·선농월·최옥진·박미홍, 구례 : 정선(정행옥), 승주 : 성관수, 고흥 : 김광렬·김금중, 보성 : 최연화·박태일·임준옥·김영조, 장흥 : 김녹주, 해남 : 한중채·추정남·이선옥, 함평 : 김여막, 영광 : 공옥진, 완도 : 최남춘, 진도 : 최귀선
- 그 다음으로 1988~1992년까지 문화재관리국에서는 판소리만을 대상으로 한 집중조사로, ‘판소리 유파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 조사는 당시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판소리 전승자들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의 획득과 새로운 전승자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으며 이 때 조사되었던 명창들은 다음과 같음.
 - 광주·전남 : 김성래, 박옥심, 박정자, 방야순(방성춘), 송순섭, 안채봉, 이임례, 전락쾌(전병규), 정춘실, 한애순, 한해자, 김향순, 정홍수, 박미홍, 박정례(박향산), 선농월
- 한편,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의 판소리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표 2-9> 및 <표 2-10>과 같음.

<표 2-9>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현황

번호	명칭	지정일	성명	성별	기·예능	인정일	해제
1	남도판소리	74. 5. 28	이순자	여	춘향가	14. 1. 9	
9	남도창 동편제 판소리	93. 3. 20	박화순	여	수궁가	93. 3. 20	
11	판소리 고법	95. 4. 20	감남중	남	판소리 고법	95. 4. 20	
14	판소리 강산제	98. 2. 21	이임례	여	심청가	98. 2. 21	
16	판소리 춘향가	00. 5. 16	방야순	여	춘향가	00. 5. 16	

<표 2-10>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현황

번호	명칭	지정일	성명	성별	기·예능	인정일	해제
2	판소리	84. 9.20	이옥희	여	춘향가	84. 9.20	
			정병옥		명예보유자(09. 8.14)		
			조소녀	여	춘향가	96. 3.29	
			이용길	남	춘향가	13.10.25	
			성준숙	여	적벽가	96. 3.29	
			이순단	여	홍보가	01. 6.15	
			유영애	여	심청가	01. 6.15	
			박양덕	남	수궁가	03. 7.18	
			김명신	여	홍보가	05. 3.11	
9	판소리 장단	92. 6.30	왕기석	남	수궁가	14.10.25	
			이성근	남	고법	92. 6.20	
			주봉신	남	고법	96. 3.29	

3. 전남 판소리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 전라남도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거하여 1974년 5월 29일 전라남도지정 무형문화재 제3호 <남도판소리>가 지정되었고, 보유자로 공대일(홍보가), 한애순(심청가)이 인정되었으며, 인정사유는 ‘남도의 독특한 판소리 보유자로서 우리나라 판소리사 연구에 귀중 자료’이며, 현재 두 보유자는 사망 해제되었음.
- 그 다음으로 1976년 9월 30일 <판소리 강산제>가 전라남도지정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 보유자는 박옥심(심청가)이 인정되었는데, 박옥심은 박춘성(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고, 1995년 사망 해제되었음.
- 1986년에는 전라남도에 속해 있던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라남도과 분리되었고, 이로 인해 같은 해 11월 1일 전라남도지정무형문화재였던 <남도판소리>와 <판소리 강산제>가 각각 광주시지정무형문화재 제1호 <남도판소리>, 제2호 <판소리 강산조>로 명칭이 변경되어 광주직할시의 관할로 이관되면서 이들 보유자는 1986년 12월 24일 광주직할시 보유자로서 새로운 보유자 증서를 지급받음.
- 이 중 <판소리 강산제>는 1995년 9월 21일 보유자가 사망하면서, 종목 자체가 지정 해제되었다가, 2019년에 전라남도 화순군의 무형문화재 제29-7호로 <판소리 강산제>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지정되었음.
-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197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전남의 판소리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을 정리하면 <표 2-11>과 같음.

<표 2-11>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현황

번호	명칭	지정일	성명	성별	기·예능	인정일	해제
29-1	판소리 (동편제 홍보가)	96. 10. 14	김향순	여	홍보가	06. 12. 27	
29-2	판소리 (동편제 춘향가)	96. 10. 14	안부덕	여	춘향가	02. 4. 20	
29-4	판소리 (동편제 수궁가)	96. 10. 14	박방금	여	수궁가	08. 12. 26	
29-5	판소리 (동편제 홍보가)	09. 3. 20	김순자	여	홍보가	09. 3. 20	
29-7	판소리 (강산제 심청가)	19. 12. 26	김향순	여	심청가	19. 12. 26	

Ⅲ

도내 판소리 전수관 현황 및 개선방안

- ① 구례 판소리 전수관 현황
및 문제점
- ② 보성 판소리 전수관 현황
및 문제점
- ③ 판소리 전수관 개선방안

제포장 도내 판소리 전수관 현황 및 개선방안

① 구례 판소리 전수관 현황 및 문제점

1. 시설 현황

- 위 치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 53
- 개관일 : 2000년 11월 4일
- 시설내용 : 한식목조기와 64평(부지 2,439평)
 - 대지면적 8,063.20㎡, 연면적 384.66㎡
- 주요시설
 - 동편제판소리전수관(280.7㎡) 1동, 소리체험장(129.6㎡) 1동, 송만갑 생가(47.1㎡), 득음정(10.2㎡), 야외화장실(28㎡), 기타 송만갑선생 동상 및 추모비(5기 : 송만갑, 유성준, 박봉래, 박봉술, 서공철) 등



[그림 3-1] 동편제전수관 시설 현황

2. 운영현황

- 운영방법 : 관리위탁(관리자 : 한국국악협회 구례군지부)
 - 2005년 이전까지 구례군 직영으로 운영해 왔으나 관리부실, 콘텐츠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되어 오다 전통예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상승과 구례 고유의 문화 발굴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05년 (사)한국국악협회 구례군 지부에 위탁운영키로 하고 사무국장 1명의 급여를 구례군 재정으로 지출하고 있음.
 - 사무국에서 자활근로자 등을 채용해 운영(청소인원 1명)
- 운영프로그램 : 구례 동편제전수관에서는 정기적인 사업과 부정기적인 사업으로 나누어 전통국악을 보다 친숙하게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음.
 - 국악교실사업
 - *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주6회 국악교실 운영
 - * 수업내용 : 판소리(학생부, 성인부), 고법, 장구, 가야금, 전통무용
 - * 국악교실 강사는 전문국악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례군에서 (사)한국국악협회 보조금을 지원해 월30만원의 강습료를 지급
 - * 1년간의 수업이 마무리되면 동편제전수관에서 지역민을 초청해 국악교실 발표회 개최
 - * 발표회 경비는 자체경비에 (사)한국국악협회 구례군지부에서 지원한 비용 운용
 - * 현재 수강생은 판소리가 20명 이상이고 합해서 40~50명 정도임.
 - 소리체험사업
 - * 구례군을 찾는 관광객과 전수관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리체험 실시
 - * 소리체험은 연12~13회 열리며, 회당 인원은 20~100명 정도임.
 - * 소리체험 내용은 동편제전수관과 구례 동편제 판소리 이론(10분), 판소리 감상(20분), 가야금연주 또는 다른음악(10분), 따라배우기(10분) 구성
 - * 연간 400여명 이상 소리체험 (2019년 410명 체험)
 - 송만갑판소리고수대회 운영 : 매년 10월 동편제소리축제와 연계
 - 부정기적 사업 : 찾아가는 문화, 고객에서 우리 소리듣기
- 운영예산
 - 전수관 관리운영사업 : 13,000천원
 - *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전화요금 등) 전수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 국악교실 운영사업 : 21,600천원 (국악교실 강사의 강사료)
 - 소리체험사업 : 8,000천원 (소리체험 국악강사의 강사료)

3. 운영상의 문제점

- 구례 동편제전수관은 판소리의 대중화를 위해 판소리의 창극화를 시도하고 동편제에 서편제 소리를 가미한 독특한 창법을 개척한 국창 송만갑 선생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건립·운영되어 옴.
- 그러나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지역 특성을 대표할만한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전수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국악교실 운영, 동편제소리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2000년대 초에 건립된 시설로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부족으로 전시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연장의 미비로 상설공연이 불가능한 실정
 - 관람객 사실상 없음.

4. 판소리 관련 보유 자원

- 국악교실 운영 : 3개 기관(국악협회 구례군지부, 구례향계줄풍류보존회, 한국판소리문화재단)
- 국악분야예술강사 운영 : 관내 8개 초등학교 국악교실
- 송만갑 판소리 보존행사 : 국창송만갑판소리보존회 운영
- 동편제소리축제(매년 10월, 축제추진위 운영)

② 보성 판소리 전수관 현황 및 문제점

1. 시설 현황

- 위 치 : 보성군 회천면 영천길 9 도강마을 일원
- 개 관 일 : 2013. 10월
- 시설내용 : 28,766㎡(부지면적)
 - 전수교육관 270㎡(1층 : 소리체험실(36㎡) 1, 연습실 1, 독공실 2, 창고 1, 2층 : 강당(90㎡) 1, 누마루(36㎡) 1, 생활관 100.89㎡(방 2, 거실 및 주방 1, 화장실 2, 드레스룸 1), 판소리 전시관(378㎡), 일주문, 정응민 생가 등



[그림 3-2] 서편제전수관 시설 현황

2. 운영 현황

- 운영방법 : 보성군 직영(기간제 직원 1명 근무)
- 운영프로그램 :
 - 보성소리체험 운영
 - 기 간 : 2020. 1월~12월
 - 장 소 : 판소리성지 일원

- 사업비 : 20,000천원(군비)
- 내 용 : 단체 30명 이상 판소리 성지 방문 시 보성소리 체험 프로그램
- 판소리성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기 간 : 2020. 5월~12월
 - 장 소 : 판소리성지 일원
 - 사업비 : 103,000천원(군비)
 - 내 용 : 명인명창과 함께하는 판소리 교실(6회), 토요일상설공연(10회), 국악체험교육(7회), 명창들과 함께 떠나는 소리여행(6회) 등
- 판소리성지 관련 시설보수 및 설치
 - 판소리전시관, 생활관, 정응민 생가 등 시설보수(2020. 3월~10월) / 20,000천원(군비)
 - 판소리성지 야외 화장실 설치(2020. 3월~5월) / 100,000천원(군비)
 - 판소리 득음정길 보수(2020. 3월~6월) / 20,000천원(군비)
- 2019년 판소리성지 프로그램 및 시설 보수 현황
 - 보성소리체험 25회 3,907명,
 - 찾아가는 판소리교실「우리가락 얼씨구 학당」 144회 운영
 - 판소리성지 토요일상설프로그램(공연·체험) 운영(15회(토요일상설 10회, 예술체험 5회) 862명)
 - 명창들과 함께 떠나는 보성소리 여행(4기수 99명)
 - 전수교육관 개보수(24,883천원), 득음정 보수(14,700천원)
 - 득음정 태양광 명창 판소리 재생시스템 설치(12,140천원)
 - 득음정 역사 스토리텔링 안내판 제작 설치(9,800천원)

3. 운영상의 문제점

- 2019년 3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수자 1명이 전수교육관에 근무하고 있으나 판소리성지 내 시설물 전수교육관, 생활관, 전시관, 정응민 생가, 기타 부대시설 등 관리시설이 많아 1명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음.
- 직영 이후 판소리성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판소리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토요일상설공연, 국악체험교육, 명창들과 함께 떠나는 소리여행, 얼씨구 학당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학생 및 전문 국악인 육성을 위한 교

육프로그램에는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다수자 근무의 한계성이 있고 프로그램 기획 및 자료관리 등 인프라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 기타 문제
 - 서편제 판소리 전수관은 판소리 애호가나 일반인이 소리를 배우고 익히기에는 적합한 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전수관이란 말 그대로 무형문화재인 판소리의 울퉁은 전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전수관에 들러 판소리를 감상하거나 직접 배워보는 참여의 시간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즉, 서편제 판소리 전수관은 말 그대로 전통문화로서의 판소리를 오롯이 전수하는데에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보성의 판소리 인프라로서 일반인들과 관광객들에게는 효용성이 떨어짐.
 - 따라서 보성의 판소리 인프라의 부족은 보성이 판소리 서편제와 보성소리의 중심지 이면서도 정작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함.
 - 지역문화로서 매우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보성의 판소리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보성의 판소리 문화를 반영하면서 판소리 애호와 일반인 모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됨.

4. 판소리 관련 보유 자원

4.1 문화자원

■ 서편제보성소리축제

- 판소리의 고장으로서의 역할과 맥을 이어나가고자 1998년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개최하여 현재 23회를 맞고 있으며, 전국판소리경연대회(대통령상), 전국고수경연대회 등 전국을 대표하는 판소리 경연대회 및 소리축제 임.

■ 소리고개

- 위 치 :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 유형 : 유적 / 시대 : 근대
- 내 용
 - 소리고개는 회천면 영천리 양동마을에서 붓재로 올라가는 고개로서 붓재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함.

- 봇재의 높이는 230m이며 옛 장흥군 회령현에서 보성 고을로 가는 길이었는데 보성 차밭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이 고갯길이 자동차가 다니는 길로 확장이 되었음.
- 이 소리고개는 정재근 명창과 정응민 명창이 보성 고을로 가고 올 때 걸어서 넘어 다니던 길이고, 또한 광복이후 정응민 명창을 찾았던 수많은 제자들도 이 고개를 넘어서 다녔던 애환이 깊은 길이었음.
- 정응민 명창의 제자들이 이 고갯길을 넘나들 때에도 늘상 소리를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리고개로 통했던 것임.

■ 서편제보성소리전수관

- 위 치 : 보성군 보성읍 용문길 18 / 유형 : 유적 / 시대 : 현대
- 내 용
 - 1998년 11월 27일 준공되었으며 상설교육장과 국악교실등이 갖춰져 있음.
 - 매년 10월 서편제보성소리축제가 체육공원 내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전수관에서는 고수 경연대회가 치러짐.
 - 평상시엔 판소리 및 보성소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서편제보성판소리 보존회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

■ 옛 곰재 장터(옛날 웅치 장터)

- 위 치 : 보성군 웅치면 / 유형 : 유적 / 시대 : 현대
- 내 용
 - 웅치다리(熊時橋) 옆 유산천과 구암천이 합류되는 구성머리 마을 일대에서 조선조 말엽부터 5 일 10 일 장이 서기 시작하여 1945년까지 성시(盛市)를 이루었으나 1946년 장변 마을로 옮겨 시장이 개정되었다. 곰재 장터에는 주막, 대장간, 물래방앗간, 약방, 당골집 등이 있었고, 회천의 수산물과 목화 그리고 잡화류, 생활용품, 농기류, 축제품, 웅기, 공예품, 웅치 울벼쌀 등이 활발하게 거래되었음.
 - 곰재 장터에서 박유전 명창이 소리를 자주 했는데 흥선대원군이 이곳을 지나다가 박유전 명창의 소리를 들었다는 민담이 전해지고 있음.

■ 강산마을 유적

- 위 치 : 보성군 웅치면 강산리 강산마을, 보성읍 대아리 강산마을 / 유형 : 유적 / 시대 : 근대

- 내 용

- 보성군 웅치면 강산마을과 보성읍 강산마을에는 박유전 명창이 거주하며 활동했던 곳으로 박유전 명창과 관련된 많은 유적이 있는 곳임.
- 송강정, 송강쏘 등 유적이 보존된 곳도 있지만 박유전 선생 집터, 무덤터 등 대부분 폐허로 남아 위치만 추정할 수 있는 곳이 많음.

- 박유전 선생기념비

- 위 치 : 보성군 회천면 영천길 9 / 유형 : 유적 / 시대 : 현대

- 내 용

- 천하제일강산(江山)이라 칭한 박유전 명창을 기리기 위해서 1998년에 선생의 기념비 건립 추진위원회가 보성읍 인사동의 동북편 옛 보성읍성의 터전, 순국비가 있는 보성공원 입구에 세웠는데 2014년 판소리 성지가 조성되며 이전하였음.
- 비문에는 인생은 과연 유전(流轉)이런가” 라는 표현을 쓰며 이름처럼 산 명창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음.

- 득음정

- 위 치 : 보성군 회천면 영천길 / 유형 : 관광지, 유적 / 시대 : 근대

- 내 용

- 득음정(得音亭)은 회천면 영천 마을 서쪽의 깊고 험한 허궁다리 계곡의 용소폭포가 있는 곳에 지어진 정자
- 이곳은 정음민 명창과 그의 문하생들이 소리공부를 할 때에 꼭 이곳에 와서 목을 띄우는 연습을 했던 곳이라 해서 그 전통을 계승하고 서편제 보성소리의 득음을 상징하는 장소로서 기념하고자 보성군에서 건립하였음.
- 따라서 득음을 하고자 하는 소리꾼의 계승자들이 이곳을 자주 찾고 있다고 하며, 득음정이 있는 장소에는 옛날에도 소리꾼들이 소리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았던 넓은 바윗돌이 여기저기에 있었던 곳임.
- 득음정 바로 위쪽 약 10m 정도의 거리에 득음폭포(得音瀑布)가 있으며 약 10m 높이의 2단 3단의 폭포로 연이어지는 암반 폭포로서 그 힘차게 흘러내리는 폭포수와 소리는 장관을 이룸.

■ 판소리성지 내 명창묘지 공원

- 위 치 : 보성군 회천면 영천길 9 일원 / 유형 : 유적 / 시대 : 현대
- 내 용
 - 현재 정응민, 성장순 명창 묘지가 판소리성지 내 명창묘지 공원에 있으며 향후 대표 명창 등을 기리는 묘 및 기념비 등 추가 조성을 통하여 국악명창들의 삶의 발자취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국악의 성지로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4.2 인적자원(판소리 명창, 전수자)

- 판소리 명창
 - 박춘맹(제14회 전국 임방울 명창대회 대통령상 수상)
 - 한정하(1987년 전국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 선미숙(제11회 명창 박록주국악대전 종합대상 수상)
 - 김향순(도지정무형문화제)

4.3 기타원(교육기관, 교육생 등)

- 교육기관(민간) : 보성소리마당, 보성소리보존회, 서편제보성판소리보존회
- 교육생 : 이유나, 김가을, 김한별, 최운지 등
- 방과 후 수업지원(국악교육) : 초·중·고 34개소 510명

③ 판소리 전수관 개선방안

- 본 과업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들은 판소리 전수관 측면에서 남도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실제 추진 여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전라남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추진 시기 : 단기적인 개선방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은 2023년 이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1. 단기적인 개선방안

1.1 구례 판소리 전수관

■ 프로그램

- 기존에 운영되어오고 있는 국악교실 운영사업, 소리체험사업, 찾아가는 문화사업, 고택에서 우리 소리듣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다음과 같은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국악인 독공소 설치를 통한 후진 양성
 - 추모 기념관 확대를 통한 국악의 맥 계승
 - 동편제 전수관 상설공연 정례화

■ 시설 인프라

- 구례 판소리 전수관은 시설이 노후화 되어 시설보수가 시급하고, 공간이 부족하여 교육과 공연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전시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체계적인 자료전시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
- 따라서 기존 전수관의 시설을 보수하여 판소리 전용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사업명: 전수관 시설 보수), 동편제 판소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전시관의 공간을 확충하고(사업명 : 전시관 공간 확충), 판소리 공연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새로 소규모(150석 내외)의 공연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사업명 : 공연장 신축).
 - 소규모(150석 내외) 공연장 신축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 선도 : (연면적 : 375㎡, 기간 : 2021. 3월~11월, 추정사업비 : 1,200,000천원¹¹⁾)
 - 송만갑 선생 생가 완벽 복원

11) 공사비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안), 2017, 서울시」에 제시된 문화예술회관·문화집회 시설의 연면적 3,000㎡~4,000㎡의 평균 공사비 단가(VAT 포함) 2,900,000원을 적용하고, 설계비 및 조사비 등이 포함된 금액

- 한편, 2020년에 예산 편성되어 추진 예정인 사업은 다음과 같음.
 - 판소리 전수관 시설 보수(기간 : 2020. 3월~10월, 사업비 : 20,000천원)
 - 판소리 전시관 공간 확충(리모델링)(기간 : 2020. 3월~11월, 추정사업비 : 100,000천원)

1.2 보성 판소리 전수관

■ 프로그램

- 온라인 판소리 교실 운영(명창들 참여), 판소리 워크숍 운영, 순회 국악영재교육, 지역 국악인 협의체 운영, 판소리명창 기록화 사업, 판소리 명소 스토리텔링 사업 등

■ 시설 인프라

- 서편제 비조 박유전, 정웅민, 정권진, 조상현, 성장순, 성우향 등을 배출한 판소리의 고장이자 서편제 보성소리를 보존 육성하고 있는 보성 판소리성지를 통해 국악인 저변확대와 국악인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 인프라 보강이 필요함.
 - 판소리성지 내 150석 내외 규모 소공연장 신축(12억원) : 전문 국악인들이 참여하여 국악프로그램 개발, 연습, 공연, 네트워킹 구축 등을 통해 특화된 공연으로 도내 관람객 유치 유도와 국악애호가 육성, 아동 및 청소년 등 국악 인재발굴의 기반 마련
 - 현 전시 내용물(콘텐츠) 보강 : 디지털 판소리 체험시설 구축, 도내 판소리 명창 흥상제작 전시, 도내 판소리 교육기관 및 단체 현황 및 활동 소개 등
 - 판소리성지 내 판소리문화센터(판소리거점 센터, 연구동, 전시) 신축(20억원) : 구례·보성 전수교육관이 연계하여 판소리 저변확대를 위한 판소리문화센터 건립으로 전남 판소리 인재발굴 및 국악 애호가 육성의 기틀을 마련
- 2020년 균특예산에 적극 반영 검토

2. 중 · 장기적인 개선방안

- 구례와 보성의 판소리 전수관이 단기적으로 시설보수 및 공간확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장기적으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사료.12)

■ 교육프로그램

-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확대 운영, 분야별(판소리 5마당) 판소리 전문가(명창) 양성 프로그램 및 판소리 교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 체험프로그램

- 지역별 판소리 연계프로그램 및 판소리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 공연프로그램

- 지역민을 위한 상설 공연프로그램 운영, 판소리 LAB 공연프로그램 및 퓨전 판소리 공연프로그램 개발 등

- 특히, 공연프로그램은 민간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개발·운영함으로써 다른 광역시·도의 공연프로그램과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극단 떼아뜨르 봄날, 주)쇼앤라이프, Yono Company, 판 3S, 헬로아티스트, 문화예술공작소, 판소리치료연구소, 누베이스레코드, 사단법인한국판소리보존회, 월유 엔터테인먼트 등

12) 제시된 프로그램들은 각 판소리 전수관의 실정에 따라 독자 또는 연계하여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음

IV

전남 판소리의 문제점 및 대책

- ① 전남 판소리의 문제점
- ② 전남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

제IV장 전남 판소리의 문제점 및 대책

① 전남 판소리의 문제점

1. 지역 전승활동 및 전승 지원자의 감소

◆ 국가무형문화재 집중 바라기 양상 → 지역 판소리 보유자들의 후계자 감소 초래
☞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는 400여명의 이수자가 있는 반면,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는 30여명에 지나지 않음.

- 판소리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¹³⁾가 광주·전남 출신이고, 모두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승 활동을 하던 명창들임.
- 이렇게 광주·전남지역의 많은 명창들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가 되었다는 것은 광주·전남의 전통예술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¹⁴⁾
- 하지만 국가무형문화재가 된 명창들은 지역을 떠나 서울에 터를 잡고 공연활동과 제자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 생계와 연계되는 공연 활동은 물론이고, 향유층이 많은 서울·경기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임.
-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이 역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판소리 전승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광주·전남에서는 지역 전승 소리꾼의 절멸 위기론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음.
- 주어지는 기회가 많고, 문화 권력의 중심에 있다고 여기는 국가무형문화재 집중 바라기 양상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판소리 보유자들에게는 후계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옴.
 - * 보유자 중심의 전승구조는 전수교육권한, 이수자 양성, 조교 추천권 등 권한이 보유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종신적 지위는 한평생을 바쳐도 보유자가 될 확률이 낮아 젊은 전승자의 이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는 400여명의 이수자가 있는 반면, 시·도지정문화재는 30여명에 지나지 않는 열악한 상황임.
- 젊은 국악인들은 직장과 생업을 위해 대도시로 나가는 일이 많고, 인지력이 높은 스승(국가무형문화재)을 찾아가기 때문에 시·도에서는 후계자 양성이 쉽지 않고, 오히

13) 무형문화재의 전승체계 : 보유자(기한 없음)-전수교육조교(5년 이상)-이수자(3년 이상)-일반 전수자

14) 소리꾼이 명창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대통령상 수상 과정’과 ‘전문가 집단의 2차적 공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명창대회가 오랜 기간에 걸쳐 개최되어 오면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창들이 누적되면서 소리꾼들은 차별적 예술가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2차적 공인 과정을 더욱 중시하고 있음.

려 지역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넉넉한 중년들의 취미생활이 되거나, 혹은 취미로 시작한 중년들이 늦깎이 입문자(이수자)가 되어 전승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짐.

- 그러나 판소리는 쉬운 예술이 아니며, 오랫동안 수련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스승의 예술혼을 제대로 이어갈 젊은 국악인의 양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자신이 사망하면 전승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
- 후계자의 양성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부여되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며,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은 보유자 자신의 예능과 예술혼을 영구적으로 남기는 것이기도 함.
- 보유자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예술이 자신의 대에서 끊어질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특히 광주·전남의 국악계는 1980년 후반부터 전승자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지는 상황임.

<표 4-1> 시·도지정 판소리 무형문화재 현황(2019년 기준)

구분 (시도/시군구)	지정 별		지정 현황				
	지정번호	문화재명	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보유단체
합 계			5	0	1	5	0
여수	29-1	판소리 흥보가	1			3	
목포	29-2	판소리 춘향가	1			1	
무안	29-3	판소리 고법			1		
목포	29-4	판소리 수궁가	1				
목포, 함평	29-5	판소리 흥보가	1			1	
화순	29-7	판소리 강산제	1				

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문화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수교육조교"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전라남도 국악관련 교육기관 및 국악단체 현황

- 전라남도 국악관련 고등학교 2개(공립 1-진도군, 사립 1-무안군), 대학교 2개(공립 1-담양군, 사립 1-영암군)

* 진도국악고등학교(공립, 국악과)-학생수 49명(남 14명, 여 35명, 신입생 모집정원 40명),

* 전남예술고등학교(사립, 미술과, 무용연기과, 음악과)-학생수 각 학년 5반(미술과 2, 무용연기과 1, 음악과 2) 학급당 35명 이내,

- * 전남도립대학교(공연음악과, 2년제, 공립) - 모집전공 3개 전공/입학정원 30명: 한국음악(성악, 관악, 현악, 타악, 작곡)/8명, 서양음악/6명, 실용음악/16명
 - * 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전통연희학과, 4년제, 사립) - 입학정원 20명
- [참고]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 모집정원(정시 25명, 수시 0)-국악기악전공, 국악성악전공, 국악이론작곡전공
- 전라남도 국악단체 8개
 - * 국립남도국악원(국악연주단-기악단, 성악단, 무용단), 전남도립국악단(국악단, 어린이 국악단), 나주시립국악단, 목포시립국악원, 무안군립국악원, 여수시립국악단, 진도군립민속예술단, 광양시립국악단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내 국악관련 고등학교 2개, 대학교 2개, 국악단체 8개 등이 있으나 판소리 부문의 인재양성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며, 2019년 기준 도지정 판소리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은 판소리 보유자 5명, 전수교육조교 1명, 전수장학생 5명에 불과한 실정임.¹⁵⁾

2. 판소리 자료 관리 미흡

- 판소리는 소리꾼 한 사람이 북을 치는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 ‘사설(이야기)’ 과 노래, 몸짓을 섞어서 연기하는 전통적인 민속악의 한 양식임.¹⁶⁾
 - ‘사설’ 은 문학, 노래는 음악, 그리고 몸짓이나 고수의 추임새 등은 연극적 성격을 가지므로 종합예술
 - 노래를 부르는 것은 ‘소리’, 말하는 것은 ‘아니리’, 몸짓을 하는 것은 ‘발림 한다’ 고 하는데, ‘아니리’ 를 할 때 고수는 북을 치지 않고 소리꾼이 자유로이 표현 하도록 두다가, 적당한 대목에서 “얼씨구 좋다!” 또는 “으이 좋지!” 라며 소리치는 것을 ‘추임새 넣는다’ 고 함.
 - 넓은 마당이나 큰 대청마루에 서서 부채를 들고 푸른 두루마기에 갓을 쓴 소리꾼이 노래와 대사 그리고 몸짓까지 동원해 관객을 웃기고 울리면, 고수뿐만 아니라 관객도 함께 ‘추임새’ 를 넣음.
- 판소리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충청도·경기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전승되어 지역에 따른 유파를 형성하고 있는데, 섬진강의 동쪽인 구례와 남원 등의 소리는 동편제(東便制), 서쪽인 보성·광주·나주 등의 소리는 서편제(西便制), 경기도와 충청도의 소리

15) 도내 사설강습소 등에서 판소리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 수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

16)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는 중고제(中古制)라 함.

- 이와 같이 판소리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계승·발전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에는 전남지역 판소리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것이 현실임.
 - 국립남도국악원 : 장악과 1명의 담당업무(굿음악축제, 국악학기초연구, 국악음반출서 발간, 아카이브및자료실운영)
 - * 국악아카이브는 전통 음악, 무용, 연희 및 창작 국악에 이르는 국악 자원을 조사·수집·관리·보존하고 있으며, 국립국악원에서 수행하는 연간 1,200여 회 이상의 공연·연구·교육활동의 결과물은 물론 민간의 자료를 망라하여 생산·수집한 기록물은 동영상, 음향, 이미지, 텍스트 자료 등 38만 여 점에 달함(주요 서비스 : 기록검색, 컬렉션, 온라인 전시, 국악시소러스, 기록 다운로드, 개인 라이브러리, RSS 피드)
 - 전남도립국악단 : 사무관리팀 7명의 담당업무는 총무·회계, 기획·홍보마케팅 등이며, 전남지역의 국악(특히 판소리) 관련 자료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사)한국판소리보존회 전남지역지부(고흥, 곡성, 광영, 낙안읍성, 목포, 보성, 순천, 여수, 해남) : 전남지역의 판소리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¹⁷⁾

3. 판소리 상설공연 프로그램 및 공연장 부족

- (판소리 상설공연 프로그램 현황) 현재 전남지역의 국악 관련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판소리 상설공연 프로그램은 보성 판소리전수관의 토요상설프로그램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전남지역의 일부 국악 관련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악 관련 상설공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 국립남도국악원 : 금요국악공감, 전남도립국악단 : 토요공연 '남도풍류', 나주시립국악단 : 토요상설공연'천년의 락(樂), 나주풍류열전', 진도군립예술단 : 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 등
- (판소리 공연장 현황) 전남에 위치한 판소리 공연장으로 특화된 곳은 보성과 구례의 판소리 전수관의 공연장 2곳이 있는데, 이마저도 공간 부족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
 - 판소리 공연장으로 사용 가능한 문화공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7) (사)한국판소리보존회 홈페이지의 정보마당에서 판소리데이터, 판소리 알아보기, 연구자료, 가사자료, 유네스코 등록자료 등을 관리하고 있음

<표 4-2> 전남지역 판소리 공연 가능한 문화공간 현황

시·군	공연장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공공공연장	민간공연장	시군민회관	종합복지회관	국악원	전수회관
합계	32	9	10	82	3	29
목포시	3	1	-	-	1	1
여수시	6	4	1	4	-	2
순천시	1	2	-	-	-	-
나주시	1	-	1	13	-	-
광양시	1	1	-	4	-	2
담양군	2	-	1	-	-	2
곡성군	1	-	-	-	-	4
구례군	2	1	-	-	-	2
고흥군	1	-	1	-	-	2
보성군	2	-	-	-	-	-
화순군	1	-	1	13	-	1
장흥군	1	-	1	1	-	-
강진군	2	-	-	11	-	1
해남군	1	-	1	3	-	-
영암군	1	-	1	11	-	1
무안군	2	-	-	1	1	-
함평군	-	-	-	-	-	-
영광군	1	-	-	9	-	2
장성군	1	-	1	1	-	-
완도군	1	-	1	1	-	-
진도군	1	-	-	10	1	9
신안군	-	-	-	-	-	1

출처 : 2019년 전라남도 통계연보(18년도 기준)

4. 판소리 대중화 미흡

- 판소리는 과거의 전통을 앞세워 다섯 바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판소리는 다른 전통예술 장르에 비하면 가장 높은 대중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가창 장르 가운데에서는 예술적 완성도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곤 하지만, 사실상 판소리는 여성국극의 시대를 끝으로 이미 대중적 상품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무형문화재 제도가 운용되는 양상을 보면, 판소리의 자생력이나 전승력을 키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소수의 연창자들을 위한 명예의 전당처럼 정착된 것으로 보임.¹⁸⁾

18) 완창무대는 연창자의 초인적인 능력이야 새로운 기록 수립을 위한 경쟁적 무대로 기능하고 있을 뿐, 그 안에서 판소리의 새로운 예술성을 확인하는 무대로 기능할 수 없음. 즉, 판소리의 예술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는 판소리 자체보다는 보유자 중심으로 지정되었으며, 그로 인해 자율성을 보장받은 보유자에 의한 폐쇄적인 전승교육이 이루어지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보유자 한 사람에게 한 가지 곡목만을 인정한 탓에 많은 소리들이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임.¹⁹⁾
- 또한,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열사가류의 창작 판소리에 대한 배려도 여전히 없어서, 그나마 축소된 레퍼토리가 더욱 위축되고 판소리 전승의 활기가 특정 유파들에 국한되는 지경에 이룸.
- 판소리가 대중성을 상실한 또 하나의 이유는 판소리의 커다란 변화의 방향이 ‘보고 즐기는 것’ 으로부터 ‘듣는 것’ 으로의 전환된 점임.
 - 판소리는 분명 이야기와 음악의 수준 높은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판소리가 근대적 의미의 고급예술의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판소리는 점차 ‘듣는 예술’ 로 자리매김함. 즉, 판소리가 ‘듣는 예술’ 로 기울면서, 판소리는 수준 높은 음악성과 예술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대중성과 흥행성은 잃어버리게 됨.
 - 유성기 음반의 등장으로 판소리 향유층의 미의식이 다변화되면서 판소리는 조금씩 ‘고급전통예술’ 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급격한 소멸의 위기에서 무형문화재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순수예술’ 혹은 ‘고급전통예술’ 로 그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지만, 판소리는 그 이후부터 대중과 점차 괴리된 모습을 가지게 됨.
 - 판소리가 이 시대에도 생명력을 가지는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음악으로의 경도에서 조금 벗어나 보편적인 이야기의 힘을 확보하고, 당대와 호흡할 수 있는 시의성을 가지며, 더 나아가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재미, 즉 대중성을 확보해야 함.
 - 판소리가 대중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의미의 대중예술이 될 때, 소리판에는 분명 판소리를 ‘즐기는 청중’ 이 다시금 모여들게 될 것이며, 판소리를 ‘즐기는 청중’ 은 보편적인 이야기의 힘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창작판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창작판소리가 시대의 문제와 일상의 모습을 구현한 긍정적인 인물 형상이 담긴 이야기를 가지고, 전통판소리가 쌓아온 수준 높은 음악성을 확보할 때, 이 새로운 창작 판소리는 진정한 의미의 판소리 고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아니라, 오히려 판소리라는 예술의 ‘기능적 의미’ 만을 확인하는 자리처럼 변질됨.

19) 다만, 무형문화재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형’ 이라는 개념이 ‘전형’ 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면서 판소리의 대중화 가능성을 엿보임

<표 4-3> 판소리와 창극, 창작 판소리 비교

구분/장르	판소리	창극	창작 판소리	
내용	구조	축제적 구조	축제적 구조, 다양한 구조	
	주제	이중주제	이중주제, 단일 주제	
	등장인물 유형	이중적 인물	이중적 인물 다양한 유형의 인물	다양한 유형의 인물
형식	음악	5바탕, 북장단	판소리+작곡, 작창, 국악관현악 반주(서양악기 포함)	작창, 삽입가요, 국악 및 서양악기 반주
	언어	한문투	한문투+실생활 언어	실생활 언어
	출연 인원	1인극 또는 2인극 (1인 다역)	다인극 (다수 소리꾼, 분창, 도창)	1인극 또는 다인극 (다수 소리꾼)
	표현 방식	소리+아니리+발림	춤+소리+연기+대사	춤+소리+연기+대사
	무대·조명·의상	병풍과 돛자리 한복 조명은 없거나 단순 조명	무대세트 사용 다양한 의상 다양한 조명과 영상	무대세트 사용 다양한 의상 다양한 조명과 영상
	연행장소	실내, 야외	실내	실내, 야외

출처: 홍상은(2017), 장막극 창작 판소리의 전통 계승과 현대적 변용에 대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6

2 전남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

1. 판소리 전승자 확대 방안

1.1 판소리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 개선

- 도는 무형문화재법을 적극 수용하여 도에 도움이 되는 무형문화재 시행규칙과 조례²⁰⁾를 제정하여 판소리 명창을 발굴, 육성에 힘써야 함.
 -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판소리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판소리의 경우 대개 70대에 보유자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급히 보유자 연령대를 낮추는 일이 필요함.
 - * 50-60대 가장 기량이 뛰어날 시기에 전승 교육이 이루어지고, 활발한 대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판소리의 경우 이 시기는 명창으로서의 가장 훌륭한 목구멍이 갖추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판소리의 특성상 대개 50대 이상이면 사설의 이면과 성음을 독창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판소리 보유자의 인정 연령을 낮추도록 해야 함.
 -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신청 기한을 매해 정기적으로 고지하여, 보유자 지정을 위

20) 현재 전라남도에는 문화재보호에 관한 조례만 제정되어 있음

한 신청자들의 행정미숙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전수교육의 권한이 보유자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전수조교나 이수자, 명예 보유자 등에게도 활발한 전승 통로를 열어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수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판소리에 관한 강좌를 개설할 때, 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판소리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을 강사로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판소리 보유자가 그 기·예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 젊은 판소리 전승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지역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서 판소리 무형문화재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함.
 - 지역 대학의 국악과²¹⁾를 졸업하는 미래의 재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 도에 판소리 무형문화재 관련 전문행정인력을 충원하여 판소리의 전승·보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판소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²²⁾
 - 문화재청과 도 무형문화재 관련 담당자는 긴밀히 협의하여 보유자 등의 인정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조사와 지정의 절차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1회가 아닌 다면평가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자료 등을 공개하여 투명한 선정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²³⁾

1.2 판소리 전승지원금 현실화

- 지원규모·방식 등을 달리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원에 따른 효과성 제고
- 전승지원금 지급 여부, 적절한 지급방식(일시금, 월정액 등) 등 결정
 - 전국 평균 또는 광주광역시 수준으로 지원금을 상향 조정 필요

21) 전남지역에는 국악과가 있는 대학교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가 유일하며, 2020학년도 신입생 중 국악성악전공실기로 판소리에 배정된 학생은 8명임. 전남지역의 국악관련 고등학교는 진도국악고등학교, 전남예술고등학교가 있음,

22) 근거 : 무형문화재법 제34조(전문인력의 배치)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인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3) 이를 위해 전형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지표가 개발되고, 조사평가 규정에 반영하는 등 전형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

<표 4-4>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원 현황(2019년 기준)

(단위 : 천원/월, 년)

구분	보유자	보유자 후보	전수 교육조교	전수 장학생	명예 보유자	보유단체	공개행사 지원금 (년 1회)
문화재청	1,350	-	680	263 (전승취약종목에 한함)	1,000	보유자 있는 단체 : 3,500 보유자 없는 단체 : 5,500	· 개인종목:7,000 · 단체종목:11,000~20,000
서울	1,320	해당없음	550	165	1,100	880	· 기능종목 : 2,000 · 예능(개인): 4,000 · 예능(단체): 8,000 · 바위절호상놀이: 10,000
부산	1,250	800	600	250	1,000	-	· 예능단체: 종목별 3,000 · 예능개인: 종목별 2,500 · 기능합동: 30,000
대구	1,100	-	500	150	-	800	· 단체종목: 10,400 · 개인종목: 6,300
인천	1,050	-	525	210	840	전수교육관 입주단체 ; 400 전수교육관 미입주 단체 : 500	· 공연전시: 148,800 · 활성화 공연·교육·체험: 132,500
광주	1,100	-	550	200	인정자 없음	700	· 총 70,000
대전	1,000	450	450	150	-	600	· 65,000/년
울산	1,000	-	500	200	-	일산동 당제 700 용기협회	· 개인종목: 2,500 · 단체종목: 3,500
세종	1,000	-	500	200	1,000	1,000	· 기능: 2,000 · 예능: 4,000 · 단체: 8,000
경기	1,300	-	500	-	-	800	· 280,000(합동행사)
강원	개인 1,200 단체 1,000	-	개인 600 단체 500	개인 200 단체 200	개인 1,200 단체 1,000	900	· 개인종목: 2,000 · 단체종목: 3,500
충북	900	-	400	150	인정자 없음	900	· 기능종목: 1,800 · 예능종목: 2,000 · 단체종목: 4,000 · 합동행사: 30,000
충남	1,100	-	500	-	900	1,000	· 개인종목: 2,400 · 단체종목: 7,500
전북	1,000	-	400	200	800	보유자 있는 단체 : 800 보유자 없는 단체 : 1,000	· 개인종목: 2,500 · 단체종목: 3,400
전남	900	-	350	100	-	500	· 개인종목: 1,900 · 단체종목: 3,900
경북	900	-	350	100	-	800(보유단체) 1,000(보유자없는 보유단체)	· 개인종목: 1,800 · 단체종목: 5,000
경남	850	450	전승지원금 없음	선정자 없음	640	600	· 개인종목: 2,200 · 단체종목: 4,200
제주	1,000	-	400	200	800	1,200	· 120,000(제주문화예술 재단 위탁사업 지원)
이북5도	※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예산 민간경상보조금 84,000천원 지급 예정(종목 평균 4,421천원)						

주) 문화재청의 전승취약종목(35종목)의 경우 보유자에게 4,716,000원, 전수교육조교에게 3,132,000원, 보유자·전수교육조교가 부재한 전승취약종목의 경우 이수자에게 3,132,000원을 매년 말 1회 지원

1.3 판소리 전승활동에 대한 간접 지원 강화

- (추진방향)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 전승자들의 적극적인 전승활동 장려
 - 공연, 전시, 연구 등
- (추진방식) 전승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전승활동 계획에 대한 공모 실시, 선정자에 대한 관련 경비 등 지원

1.4 이수자 대상 판소리대회 확대 개최

- 이수자를 대상으로 판소리대회를 확대 개최하여 유망 전승자를 지속 발굴하고, 대회 공연 결과물을 KBS 등 지상파 방송 방영 및 인터넷 매체 대회공연 음원 방영
 - 2019년 기준 전남지역의 판소리 경연대회는 총 16개임.²⁴⁾

1.5 판소리 교육기관 신설 및 예비 명창 양성 교육

- 독립대학 판소리학과 신설 또는 판소리 전문대학 설립
 - 전라남도에는 ‘판소리’ 자체 만으로도 지역적·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는 ‘판소리자산’이 구축되어 있음.
 - 그러나 전라남도 국악관련 대학은 2로 이중 세한대학교의 전통연희학과는 당진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전남지역의 판소리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남도립대학교의 공연음악과 판소리 전공자는 1~2명에 불과하여 이 또한 전남지역의 판소리 전승자 확대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전남도립대학교에 정원 20명 내의 판소리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입학정원 20~30명 내의 3년제 판소리 전문대학을 신설하여 입학생 모두 전액/전학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젊은 소리꾼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국내 유일의 판소리 전문대학으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향후 종합대학(4년제)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판소리 교육기관의 예비 명창 양성 교육
 - 젊은 전공자들이 남도 지역의 명창들에게 류파 별 바탕소리를 이수받을 수 있는 <명창 양성 프로그램> 운영
 - 명창의 인지도만큼 판소리에 관한 관심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음.

24) 제22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판소리·고수 경영대회, 제23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 제21회 고흥동초김연수 전국판소리대회, 제21회 영암전국국악대전, 제8회 영암전국김창조국악대전, 제13회 진도대한민국고수대회, 제23회 목사골나주전국국악경연대회, 제11회 대한민국대학국악제, 제31회 대한민국 목포국악경영대회, 제20회 장보고국악대전 전국경연대회, 제17회 화순전국국악경연대회, 제28회 땅끝 해남 전국국악경영대회, 제37회 전국국악경영대회(전남), 제17회 무안전국승달국악대제전, 제18회 영광법성포단오제 제18회 숲쟁이 전국국악경영대회, 제21회 여수진남전국국악경연대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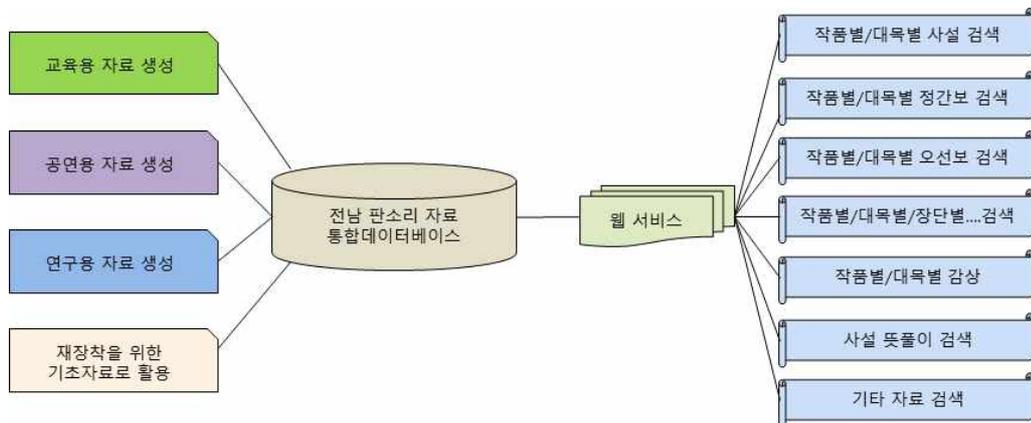
1.6 ‘남도소리꾼 명예의 전당’ 구축

- (추진방향) 판소리 무형문화재에 대한 예우 및 자부심 고취를 위한 공간 마련, 판소리 무형문화재의 가치와 전승자의 중요성 홍보
 - 판소리 무형문화재 작고 이후 산일되는 보유자 활동사진·영상·유품 등에 대한 체계적 수집·보존과 연구·전시 필요
 - (주요내용) 판소리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전승자 중요성 소개
 - 영상·기증자료, 헌정 기념 전시와 강연, 라키비움(Larchiveum: Library+Archive+Museum) 형태로 판소리 무형문화재의 활동과 교육·홍보의 중심공간으로 구성
- ☞ 다음의 판소리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에서 제시하는 ‘남도 판소리박물관’ 내에 구축 가능

2. 판소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2.1 판소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민족음악, 민족문학, 민족연회의 미적 결합을 통해 진행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인 판소리는 우리 민족이 산출한 자랑스러운 예술 유산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예술임.
- 더구나 2003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인류 구전 및 세계 무형유산 결작’ 으로 판소리가 지정됨으로써 이제 민족의 범위를 넘어 세계인의 예술로 인정받고 있음.
- 이렇게 볼 때 판소리 자료는 민족문화의 소중한 유산으로 마땅히 보존되고 계승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판소리 자료, 특히 전남지역의 판소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전남지역 판소리자료 통합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 및 이를 관리하는 주체를 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전남지역 판소리 자료 통합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앞서 현재 보성과 구례의 판소리 전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그림 4-1] 전남 판소리 자료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방안

■ 구축 사례

● 고창판소리박물관

- 2214개의 자료(등록자료 757개, 연구자료 1457개)에 대한 정보가 자료종합검색 메뉴에 등록되어 있고, 이들 자료들은 등록자료, 판소리음반·음원, 판소리 공연 동영상, 고음반, 사실, 연구자료의 하위분류되어 있음.
- 다만, 등록자료 757개의 자료와 연구자료에 1457개의 자료가 등록되어 있을 뿐 나머지 분류항목에는 전혀 자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음.
- 그리고 등록자료 757개는 문헌자료, 음반자료, 사진자료, 그림자료 등 각종 자료가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이지 못함.
- 한편, 명인명창 메뉴에는 244명의 명창·명고에 대한 정보가 체계화되어 들어 있음.

● 국립극장

- 디지털 자료실을 구축하고, 1950년 개관 이후 국립극장 소속 전속단체의 공연 중심의 원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음.
- 디지털 자료실은 디지털자료검색, 동영상, 사운드, 악보, 사진, 프로그램, 무대디자인, 연보, 공연용품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음.
- 디지털자료 검색에서는 1950년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공연의 목록과 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들어 있음.
- 그리고 여타의 메뉴에서는 이들 공연의 세부적인 정보들을 매체별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는데, 음향, 동영상 등과 같은 원자료들을 모두 제공하고 있음.

● 국악음반박물관

- 국악음반 자료가 매체별, 장르별로 구축되어 있는데, 이중 판소리 관련 자료는 판소

리 자료 1854종, 단가 자료 355종, 창극 자료 120종 등 총 2329종이 등록되어 있음.

- 판소리 자료에는 음반자료뿐만 아니라 판소리와 관련된 방송자료, 대담자료 등도 들어 있음.
- 한편, 음반자료 외에도 사진자료와 광고포스터, 팸플릿 등의 자료들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음.
- 또한 국악명인실 메뉴에는 명창·명고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고, 국악용어집성 메뉴에는 144개의 용어에 대한 풀이가 들어 있음.

● 국립국악원

-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정보가 국악자료검색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데, 판소리 분야 자료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음.
- 각각의 자료는 행사검색, 도서검색, 음향검색, 영상검색, 악보검색, 팸플릿 등으로 하위분류되고 있는데, 대부분 목록만 간단히 제시되고 있음.

● 국립창극단

- 1979년부터 2019년까지 국립창극단에서 이뤄진 321건의 공연에 대한 정보가 공연자료 메뉴에 등록되어 있음.
- 각각의 공연자료는 공연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나, 음원이나 영상은 제공되지 않음.

● 판소리학회

- 판소리학회에서 발생한 논문집에 수록된 연구논문과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발표자료가 들어 있고, 이외에도 몇몇 판소리 사설과 논문들이 들어 있음.

● 기타

- 이외에도 남원국립민속국악원, 전북도립국악원, 전주세계소리축제 등을 비롯한 몇몇 기관의 홈페이지와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판소리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매우 소략한 편임.
- 그리고 일반에게 디지털 자료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산화되어 있는 판소리 자료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 경희대학교 김진영교수 연구실에서는 판소리 이본자료를 총서 및 사전 편찬의 목적으로 전산화하였고,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에서는 판소리 사설을 정리, 주석한 자료와 이를 현대역, 영문번역 자료를 출판하였는데 이 자료들 역시 출판과정에서 전산화되어 있음.

2.2 남도 판소리 박물관 건립²⁵⁾

- (필요성) 전남의 판소리가 전남지역의 진정한 문화상품으로 그리고 문화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 나아가 전남이 진정한 판소리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남도 판소리, 즉 서편제와 동편제를 아우르고 더 나아가 판소리 전체를 담아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남도 판소리박물관 건립이 필요함.
- (관련 법규) 지방재정법, 문화예술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해당 조례 등
- (예산사업비) 40억원 내외(공사비 29억, 용역비 2억, 기타 9억)
 - * 공립박물관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의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에 해당하고,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의 40%를 지원함.
- (기대효과) 남도 판소리박물관의 건립은 결국 전남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할 뿐만 아니라 남도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제공될 것임.

■ 유사사례 : 고창군 판소리박물관²⁶⁾

- 설립취지와 목적 : 판소리의 이론가이자 개작자, 후원자였던 동리 신재효 및 진채선, 김소희 등 다수의 명창을 기념하고 판소리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동리 신재효 선생의 고택 자리에 설립
 - 판소리의 유·무형의 자료를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해석함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수준높은 판소리 예술의 재교육과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마침내 성지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
- 시설현황 :
 - 부지면적 : 5,52545㎡
 - 건물연면적 : 1,212.29㎡
 - 개 관 일 : 2001. 6. 25
 - 시설내용 : 전시실, 작업실, 준비실, 사무소, 연구실, 자료실, 도서실, 사효교육실, 수장고, 주차장, 매점, 식당, 기타 등
 - * 상설전시 : 멋마당, 명예의 전당, 소리마당, 아니리마당, 발림마당, 혼마당, 다목적실
- 주요사업²⁷⁾

2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공립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6) 2020년 2월 현재 이전 용역이 추진 중임.

27) 고창군 판소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시행 2017. 8. 1)

- 판소리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 판소리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 연구
- 판소리 보전·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
- 판소리 자료에 대한 강연회·영사회·강습회·연구회 등의 개최
- 판소리 자료에 관한 복제 그 밖의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학술단체 및 민간인과의 협력 등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의 구입 및 소정의 자료목록·관리카드 비치 등 제반 사항

3. 판소리 상설공연 프로그램 보강 및 공연장 확대 방안

3.1 판소리 상설공연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전제조건) 판소리 상설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연인력, 예산 및 공연장이 뒷받침되어야 함.
- (공연프로그램) 토요일 상설공연 “판소리 한마당”
 - 공연일시 : 토요일 19:00부터(50분 내지 70분 공연)
 - 장소 : 지역 판소리 전수관 공연장

3.2 판소리 공연장 확대 방안

- (소규모 판소리 전용 공연장 건립) 현재 보성과 구례의 판소리 전수관의 공연 공간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각 판소리전수관의 기능 보강 차원에서 150석 내외의 소규모 판소리 전용 공연장을 신축할 필요가 있음.
 - 판소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연 가능
 -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참신한 기획으로 새롭고 재미있는 전통공연 기획
 - 지역민과 일반 시민들이 판소리에 관한 관심을 가지도록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 필요
- (열린 공연 공간 확대) 공연의 감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땅히 최적의 공연 공간을 갖추어야 하는데, 최근 전주의 한옥마을이나 광주의 전통문화관과 같은 한옥 기반의 열린 공연 공간이 각광을 받고 있음.

- 현대의 판소리는 대형화된 서양식 프로시니엄 무대보다는, 규모가 작더라도 마이크 없이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의 횟수를 늘리는 식으로 판소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전라남도 한옥마을 중 적합한 곳을 선정하여 열린 공연 공간 조성
 - * (예시) 담양군 무월마을, 해남군 주포마을, 영암군 구림마을 등
- 판소리 공연장에 자막을 내보내는 작업도 중요함.
 - * 최동현·오석형·박승배 교수의 작업은 판소리 텍스트를 다양한 양식으로 정리하여 디지털화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한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음.²⁸⁾

4. 판소리 대중화를 위한 대책

4.1 문제의 인식

- 판소리의 보존과 전승은 향유층의 확대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곧 판소리와 사람들이 친숙해지도록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이는 판소리를 어떻게 대중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임. 즉, 판소리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원형의 재구성, 변형 등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데, 원형 판소리의 보존과 콘텐츠화 작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판소리 자체는 물론이고 판소리를 원형으로 한 모든 문화적 현상을 디지털화 하는 것은 판소리의 문화산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작업인데, 이는 곧 판소리를 대중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콘텐츠화 작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미임.

4.2 연행 환경의 확장과 판소리의 대중화

- 개방적인 콘텐츠 소스로써의 활용
 - 판소리가 대중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판소리를 입체적인 콘텐츠의 구성요소나 그 콘텐츠 자체로서 구현할 필요가 있음.
 - 판소리가 대중이 선호하는 다른 장르에 삽입되어 어울리거나, 소리판에서 구현할 수

28) 판소리 텍스트를 교주본·독서본·쉬운 창본·영어번역본 등으로 만들어 디지털화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최혜진, 「판소리 대중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전략」, 『비교민속학』 27, 비교민속학회, 2004.” 참조. 참고로 이태화 교수는 문화콘텐츠로서의 판소리 대중화에 대한 방안으로 자료의 축적 및 디지털화, 쉬운 판소리의 개발, 창작 판소리의 활성화, 향유층 확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교육콘텐츠 개발, 어린이 창극의 활성화, 학제간 연구 교류와 실천 등을 제안함.

있는 다른 장르의 요소들을 판소리 안으로 끌어오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함.

* 다른 장르와 결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고, 영화나 드라마처럼 현대 대중에게 친밀한 영상물에 OST로 삽입될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도 좋음.

● 현대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 고고한 전통 판소리 공연에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대중의 수요를 외면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판소리 저변의 확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 국립창극단의 전 예술감독 유명대가 “기왕의 창극의 기반에다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취향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대의 정서를 담은 멋진 음악극’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바탕으로 창극 <청>과 <로미오와 줄리엣> 등을 성공적으로 공연함으로써 창극의 대중화와 세계화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은 좋은 사례임.

- 국내든 국외든 호응할 만한 대중이 있는 곳에 판소리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며, 인터넷을 통해 국적의 한계가 사라진 현대에는 온라인 공간(YouTube 등)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함.

4.3 양식에 대한 고민과 창극의 대중화

● 고전의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의 변화

- 문화상품이 국적을 초월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이미 들어섰고, 아무리 나라를 대표하는 공연 장르라 할지라도 그 경쟁의 틀 밖에서 고고할 수는 없으며, 고전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관객이 원하는 것은 고전이 주는 감동 자체가 아니라, 그 감동을 어떤 식으로 구현해 내는가일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됨.

- 판소리라고 하는 고전이 가진 서사적 단순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양식적 실험을 시도해야 하며, 그 실험의 기준은 물론 당대의 대중이고 관객 다수가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고전을 이야기해야 함.

● 서사적 단순성의 극복

- 비언어적 연행(Nonverbal performance)의 요소를 다양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우리의 전통예술 공연 작품들 중에서 가장 일찌감치 세계시장의 호응을 받았던 <사물놀이>나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양식화에 성공한 <난타>의 성공사례에서 확인되는바, 언어적 설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공연 양식이야말로 그 자체로 국적 초월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창극에 무용이나 음악적 요소를 더욱 풍성하게 배치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음.

- 작품의 기본적인 줄거리를 잠시 정지시키는 연행 요소의 수용을 계속적으로 시험하는 것도 단순한 서사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비언어적 연행이나 서사를 정지시키는 연행을 수용하여 창극에 활용하는 것은, 판소리의 적층성과 초기 창극단체들의 종합예술단체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데, 간단한 서술로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대목에서 극중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지 않은 채 ‘한 판 놓고-혹은 한 곡 부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식의 방식은 판소리의 판짜기나 여타 전통연희 작품들의 진행 방식에서 기본이 되는 양식임. 즉, ‘더 넣는다’는 의미로 읽히기도 하는 더늠이 판소리의 음악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소로 발전한 사실 또한 바로 그러한 판소리의 서사문법을 통해 가능했던 것임.

4.4 창작 판소리의 지속적인 창작활동 지원

- 창작 판소리²⁹⁾는 1930년대를 전후하여 <열사가>, 1960년대 후반 박동진, 1980년대 임진택, 2000년대 이후 젊은 소리꾼들에 의해 판소리의 새로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음.
- 이처럼 소리꾼들의 창작 판소리를 전통 판소리와 달리 마당의 예술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또랑광대 콘테스트와 전주산조예술제에 힘입은 바 큼.³⁰⁾
 - 또랑광대 콘테스트는 대통령상으로 상징되는 명창의 권위와 명예를 포기하는 대신 자율적인 내용의 판소리 작품이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젊고 유망한 소리꾼을 탄생시켜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판소리가 대중화되고 현대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
 - * 실제 또랑광대 콘테스트 출신의 소리꾼 중 박태오와 김명자는 대회 수상 이후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음.
- 창작 판소리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창과 함께 ‘이야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특히 새로운 판소리의 창작에 있어서는 좋은 이야기를 찾아서 살려내는 것이 핵심임.
- 이를 위해 창작 판소리 공모전이나 창작 판소리 경연대회의 개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4.19혁명 전국 창작 판소리 경연대회

- * 주최 : 4.19혁명국민문화제위원회
- * 일시 : 2020. 4. 11(토) 13:00 ~ 18:00
- * 장소 :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 대회 접수 기간 : 2020. 3. 16 ~ 4. 3
- * 응모대상 : 제한없음

29) “창작 판소리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의 5바탕을 제외하고 20세기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모든 판소리를 말하며, 단가·창극·더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연, 「창작 판소리 발전과정 연구」, 판소리연구 제24집, 판소리학회, 2007, p.44

30) 윤중강, 「판소리의 유쾌한 이단아, 대중에게 손내밀다 - 판소리를 살리는 창작 판소리」, 문화예술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3, p.48

* 시상내역 : 1천만원 이하 외

- 또한, 전통판소리·창작판소리를 넘어선 타 장르와의 융복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다음은 2018년도에 관람객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은 판소리 관련 융복합형 프로그램인 ‘전통에 미디어를 잇다-판의 소리 다섯마당 이야기(단체명 : 월유 엔터테인먼트)’의 사례임.³¹⁾

■ 사례 : 전통에 미디어를 잇다-판의 소리 다섯 마당 이야기

구분	내용		
단체명	월유엔터테인먼트	장르	복합 ※여러 예술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공연명	전통에 미디어를잇다-판의 소리 다섯 마당 이야기	공연참여인원	총 24명
공연가능일자	2018.1.1. - 2018.12.31	공연소요시간	80분
기획의도	1. 새로운 콘텐츠 : 프로젝션 맵핑 + 전통 + 스트리트 댄스 각 분야의 전문분야의 인재들이 모여 이를 활용한 새롭고 신선한 융합 콘텐츠를 제시한다. 2. 新 유니버스 융복합 : 전통은 현대의 뿌리이고 현대는 진화된 전통이다. 전통의 가치 와 현대의 이치 속에서 대중이 필요로 하는 전통문화 콘텐츠를 찾아내 대중성 있는 작품을 목표로 한다. 3.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공연 :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을 통하여 1회성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OSMU 를 활용한 다양한 공연형식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인뿐만이 아닌 외국인들도 보고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를 개발 하고자 한다.		
컨셉 및 주제	<전통과 현대의 가치를 지키다.> 이야기꾼(전기수)이 들려주는 시공간을 초월한 판소리 다섯마당 세계로의 여행! 각 주인공들이 지키려고 했던 소중한 것들! 그 속에서 펼쳐지는 희,노,애,락 이야기들이 시작된다. #1.적벽가 불멸 - 나라를 지키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년간 준비한 전쟁이 시작 된다.) #2.홍부가 흥 - 가족을 지키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3.수궁가 효 - 아버지를 지키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심청이는 위험한 선택을 한다.) #4.수궁가 의 - 간을 지키다. (토끼의 간을 지켜주기 위해 자라는 토끼를 돕기 시작한다.) #5.춘향가 애 - 사랑을 지키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이몽룡은 옥에 갇힌 춘향이를 구출하러 떠난다.		
공연특징	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는 국가브랜드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탄생한 다원예술의 대표 콘텐츠이다. 2. 전통과 현대의 조화롭고 시각적으로 강한 콘텐츠 구성되어있는 現 국내 최고의 융·복합 작품이다. 3. 6개의 SCENE 으로 구성되어 있는 판소리 다섯마당 이야기를 관객 참여형, 유니버스 판타지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아간다.		

31) 출처 : 2018년 공연예술 유통 활성화 사업 국내 우수공연 프로그램 자료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내용	<p>○ 판의 소리 다섯 마당 구성 내용</p>
	 <p>#0. INTRO 전기수가 등장하고, 각각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다양한 행성이 나타난다. 전기수가 그 행성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빛이 퍼지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이야기는 시작된다.</p>
	 <p>#1. 적벽가 <불멸> / 나라를 지키다 수백만의 병사를 이끌고 전장 속의 긴 외로움과 사투. 내가 살기 위하여 적을 죽여야만 하는 전쟁이 어찌 두렵고 무섭지 않겠는가? 수백만 병사들의 눈빛이 나에게 힘이 되어 준다. 밤하늘에 어두운 안개가 깔리고, 숨을 죽이고 있는 순간 수천발의 화살이 날아오며 전쟁이 시작 된다.</p>
	 <p>#2. 흥부가 <흥> / 가족을 지키다 처자식 잔소리와 투정소리 집에 있기가 눈치 보인다. 돈 벌어오겠다고 큰소리 치고 나갔는데 돈은커녕 사기꾼을 만나 있던 돈도 뺏기고 매질만 당하고 집에 돌아온다. 우리 가족을 지키고 가장의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p>
	 <p>#3. 심청가 <효> / 아버지를 지키다 눈이 멀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딸 또한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게 하는 것만 같아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심청은 어머니목숨과 바뀐 삶, 동남젓을 얻어 먹여가며 나를 키워준 아버지에게 보답할 길을 찾는, 가족"애"의 슬픈 이야기.</p>
	 <p>#4. 수궁가 <의> / 간을 지키다 용왕의 명을 듣고 토끼를 찾아 떠난 자라, 승진과 명예를 위하여 토끼에게 거짓말로 피어 수궁으로 데리고 온다. 용왕 앞에서 드러난 자라의 거짓말에 토끼는 자라의 믿음이 깨지고, 수궁까지 오는 여정 동안 둘은 정이 들어서일까? 충신과 배신, 자라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p>
 <p>#5. 춘향가 <애> / 사랑을 지키다 과거 시험 보러 갔다 수년 만에 고향인 남원에 도착하여 마을을 바라보니 마을뿐만 아니라 강산 또한 많이 변해 있다. 강산도 이렇게 변하는데 사람마음은 안 변할까... 이몽룡은 근심이 잠겨 있을 때 우연히 만난방자에게 들은 놀라운 소식! 변사또의 횡포에 춘향이 옥에 갇혀 있다고? 빨리 구하러 가야겠다. 기다려라 춘향아!</p>	

4.5 문화 원형으로서의 판소리 콘텐츠화 전략

- 판소리와 관련한 각종 문헌에 대한 조사와 자료의 발굴
- 사설 자료 : 창본의 채록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전 시기 창본에 대한 자료는 물론이거니와 현재 전승되는 바디별 연창자별 창본이 새롭게 채록되어야 함.
- 소리 자료의 음원 확보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지원하는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판소리 전문 스튜디오를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이 최선
- 공연 자료 : 판소리 연창이나 창극 공연 실황을 동영상 자료로 저장
- 명창 관련 자료 : 명창의 생애와 가계, 활약상, 두고 등에 대한 각종 자료의 수집과 체계적인 정리

4.6 판소리 공연·전시 콘텐츠 다양화

- 대중에게 친숙한 판소리 공연·전시 및 교육·체험 등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가치 확산 및 지역 주민들의 판소리 문화 향유권 증진
- 판소리 공연·전시의 소재 다양화(일상생활의 소재와 연계한 기획)
-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및 지역 내 협업공연 추진
- 한국관광공사, 코레일 등과 연계하여 제도적인 홍보 방안 마련

전남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① 도내 판소리 전수관의
거점센터화
- ② 새로운 판소리 거점센터
구축 방안
- ③ 기타 정책 방향

제 V 장 전남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판소리는 전통 성악의 꽃이라 할 만큼 뛰어난 예술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는 전통 음악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발성법과 까다로운 표현기법, 긴 사설 내용 때문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조차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① 도내 판소리 전수관의 거점센터화

1. 도내 판소리 거점센터의 필요성과 기능

1.1 판소리 거점센터의 필요성

■ 전통과 동시대성

- 판소리는 과거로부터 현재로 흐르며 이어질 때 비로소 동시대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 있는 예술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음(시의성).
- 동시대 속에 소통하는 판소리란 단순한 전통의 재현이 아니라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의 몸과 혼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소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이루며 새로운 경험을 안겨줄 수 있을 때 가능함(공감성).
- 전통적 맥을 이어가면서 동시대적으로 살아있는 판소리는 한 국가와 사회의 특수성을 넘어 전 지구촌의 사람들과 보편적으로 공명할 가치 있는 전통예술이 됨(보편성).
- 시의성만으로 판소리의 새로운 생명력을 창출할 수 없고, 더불어 수목해야 할 점은 일상에서 살아 숨쉴 수 있는 판소리의 모습임(대중성).
- 마지막으로 판소리의 활성화는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다른 국악 장르(또는 기타 음악 장르)와 융합되지 못하면 판소리의 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음(융합성).
- 따라서 판소리의 전승과 활성화는 위에서 언급한 시의성, 공감성, 보편성, 대중성 및 융합성을 모두 갖출 때만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중추 역할을 담당할 판소리 거점공간(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판소리 생태계의 현실

- 전국의 국악단은 음악 양식적 측면과 규모에서도 성장이 멈춘 고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시작했던 기나긴 전공과정이 대학 졸업 후 경제적 현실의 벽 앞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젊은 국악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
- 공동으로 학원교습소를 운영하거나 연습실, 레슨실 등을 운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국악 본연의 창작 공연기획 등의 과정과 시너지를 이루는 성공적인 사례는 극히 적음.
- 현실에서 생존해야 할 기술적 훈련과 창작 방법론을 대학 전공교육과정 속에서 거의 습득하지 못한 채 사회로 배출된 젊은 국악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것이 사실이며, 이른바 삼포 세대로 떠밀리고 있음.
- 이처럼 해마다 많은 대학에서 사회로 배출되는 수많은 실력 있는 젊은 국악인들이 창의적 방식의 음악을 생산하여 자생할 수 있는 창조적 생태계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전통음악의 생태적 환경에서 동시대적 창작의 중요도가 점점 중요하게 인식되는데 반해 창작 환경은 전통의 보존과 재현을 위한 공간이거나 창의적 활용 가능성이 낮은 공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창의적 방식으로 음악을 생산하여 자생할 수 있도록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공간을 갖춘 전통공연예술의 창작 플랫폼이 될 거점이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절실함을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환경을 마련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판단됨.
- 창작 플랫폼은 우선 예술대학 졸업 후 자생적으로 자신의 예술로 생존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의 네트워크 연결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예술 외적 요인들에 의한 확장 가능성과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전문예술 매개자들의 도움을 통해 창작자로 살아갈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험을 통해 경험하는 플랫폼이 (창작 레지던스→작품 인큐베이팅→멘토링→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실제 공연프로그램 구성→홍보→녹음→기금지원) 되어야 할 것임.

1.2 판소리 거점센터의 기능

- 판소리 거점센터의 기능은 크게 교육기능, 공연기능, 연구기능, 지원기능, 관리기능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교육기능

- 판소리 거점센터가 수행하는 교육기능은 판소리의 전승과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판소리 거점센터가 배출하는 많은 교육생들은 판소리 공연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중요한 관객이 되고, 전남의 판소리 저변을 형성함으로써 판소리 공연이 꽃피울 수 있는 토양이 됨.

- 따라서 거점센터의 판소리 교육과 관련하여 거점센터의 위상에 걸 맞는 교육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교육생을 무리 없이 소화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증설이 가능하도록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더불어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교육생들을 위한 충분한 연습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연기능

- 판소리 거점센터는 전남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판소리 공연(또는 창극, 퓨전공연 등)을 통하여 판소리 공연에 대한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의 유흥거리를 제공하여 점진적인 판소리의 세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거점공간(플랫폼)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전라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판소리 관련 인적자원들의 수준 높은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판소리 공연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관련 축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소재의 판소리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판소리와 관련한 창극공연, 음악공연, 무용공연 등 기존에 만들어진 공연과 더불어 전남의 특색에 맞는 브랜드 창작판소리 공연을 발굴하여 올리는 판소리 전용공연의 장 마련

■ 연구기능

- 판소리 거점센터의 연구기능은 판소리 고유의 연구 업무와 함께 판소리(국악) 교재의 연구·발간, 판소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주말 및 체험 판소리 교육프로그램의 담당, 강사 및 교육생 발표회를 기획·연출하고, 거점센터 창극단의 공연활동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임.
- 따라서 판소리 거점센터는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자료실(장기적으로 판소리 아카이브관³²⁾ 혹은 판소리 박물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함.
- 이에 판소리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조사, 연구, 보급, 발굴 및 재생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공간(자료실)을 마련³³⁾

32) 판소리 아카이브의 첫 번째 기본기능은 ‘수집·보존’ 기능, 두 번째 기본기능은 ‘연구’ 기능, 세 번째 기본기능은 ‘전시’ 기능, 마지막 기본기능은 ‘교육’ 기능이다.

33) 조직, 인력,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 지원기능

- 판소리 거점센터는 시군별 전수관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별 전수관에게 교육 또는 공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지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시군별 전수관의 공연프로그램 중복 현상을 막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맞춤형 공연프로그램 개발하여 제공해 줌으로써 전남 판소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판소리 거점센터에 많은 전문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합당한 공간(악기실, 악보실, 의상실, 소품실, 무대셋트실, 자료실 등)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 관리기능

- 도단위 판소리 거점센터는 전체 시설 및 이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무국(총무인사팀, 공연기획팀, 교육팀, 연구팀)과 원장실, 교수실, 단장실(또는 예술감독실), 단원실, 안내실, 휴게실 등의 일반적인 관리 및 복리후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속공간이 필요함.
- 또한 도는 충분한 예산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판소리 거점센터의 운영방식은 최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함.

2. 구례 · 보성 판소리 전수관의 거점센터화

2.1 장 · 단점 분석

- 구례 판소리 전수관과 보성 판소리 전수관 중 어느 한 곳을 판소리 거점센터로 구축하는 데 따른 각각의 장 · 단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구례 판소리 전수관	보성 판소리 전수관
현 운영방법	위탁운영	직영
장점	• 접근성이 뛰어남	• 프로그램의 다양성 우수 • 판소리 관련 지역문화자원 풍부
단점	•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 시설의 노후화 • 공간부족으로 전시시설의 기능 상실 • 공연장 미비로 상설공연 불가 • 관람객이 거의 없는 상태	•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 학생 및 전문 국악인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한계성 내포 • 사무공간 협소 • 관리인력의 부족
공통점	• 시설보강 및 공간확충 • 소규모 공연장 신설 • 소규모 예술단(국악단) 구성	• 공간확충 • 소규모 공연장 신설 • 소규모 예술단(국악단) 구성
거점센터 적합도	낮음	높음

2.2 소요예산

- 구례와 보성의 판소리 전수관을 도의 판소리 거점센터로 구축할 경우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공간확충, 소규모 공연장의 신설 및 소규모 예술단(국악단) 구성 문제임.

가. 공간확충 및 소규모 공연장 신설

■ 구례 판소리 전수관

- 판소리 전수관 시설 보수 : 20,000천원
- 판소리 전시관 공간 확충 : 100,000천원
- 소규모 공연장(150석 내외) 신축 : 1,200,000천원

■ 보성 판소리 전수관

- 소규모 공연장(150석 내외) 신축 : 1,200,000천원
- 판소리 성지 내 판소리문화센터 신축 : 2,000,000천원(거점센터화 대비)

나. 소규모 예술단(또는 국악단) 구성

- 예술단(또는 국악단)의 단원수를 20명(단장 포함) 내외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로 연간 6억원(1인당 평균 연봉 30백만원 기준)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2.3 기대효과

- 도내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 구축
- 상설공연 추진이 가능하여 관람객 유치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운영프로그램(교육 및 공연)의 다양화 가능

3. 판소리 거점센터의 운영계획(안)

3.1 기본방향

- 지역 판소리 전승 및 보급 공간
 - 지역 판소리 전승과 보존
 - 지역 판소리 보급과 확산
 - 지역 판소리 유산의 창조적 계승
 - 지역 주민의 판소리 체험 및 참여
- 운영관리 주체 : 지자체 직영
 - 각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여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³⁴⁾ 및 운영으로 판소리 전수관 운영 활성화 도모
 - 판소리 전수관이 활성화된 후에는 지역 판소리 관련단체(예, 사) 판소리보존회, 지역 문화재단 등)에 위탁 운영 검토
- 판소리 전수관 운영 방향 : 지역 판소리 전승 및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전수교육관의 기능을 위한 필수 공간
 - 판소리 전수교육 공간은 판소리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활동과 연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
 - 판소리 체험공간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 판소리 공연장 운영 방향
 - 판소리 무형문화재 전승공연 전용공연장 및 상설공연장
 - 판소리 무형문화재 연습실
 - 판소리 전수학교 경연대회 장소

34) 전라남도 판소리 거점센터(남도소리올림터 또는 가칭 남도창극원)의 지원을 받음

- 판소리 창작 공간(공연, 연습실 등)
- 단체 관람객 대상 홍보실 및 체험장소 등
- 상설교육장의 운영
 - 기존에 각 지역에 위치한 판소리 전수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거점센터를 설립하여 거점과 권역별 전수관의 협업시스템 형태로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 유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판소리 전시관 운영 방향 : 상설 전시장으로 구성·운영
 - 지역 판소리 무형문화재의 보존, 교육,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 판소리 무형문화재의 소개, 작품 전시, 공연과정 전시패널, 영상 등으로 구성

3.2 조직구성(안)

- 지역 판소리 전수관의 조직은 운영관리팀 3명과 단순노무근로자 2명으로 구성(총 5명)
- 운영관리팀(3명) : 지자체 공무원
 - 공연기획, 전시기획, 기타 사업 운영
 - 회계, 서무, 재무관리
 - 각종 수익사업, 홍보·마케팅, 기부·후원 등
 - 시설물 관리
- 단순노무근로자(2명) : 기간제 계약직
 - 시설관리 미화원(1명), 주차관리 및 시설안내(1명)

3.3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 전수교육프로그램
 - 교육장소 : 전수관, 공연장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장소를 선택하여 교육 실시
 - 전수교육자 : 보유자

과정	운영기간	세부 운영계획		
		운영시간	운영횟수	회당 참여인원
판소리 5바탕	1.2~12.31	13:00~17:00	1회/주	20명 내외

주) 운영계획은 하나의 예시로서 지역 전수관의 실정과 전수교육자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사회교육프로그램

-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용
 -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기간 및 교육시간 적정 배분
 - 여름·겨울방학 판소리학교 운영(청소년, 가족단위 대상)

과정 (판소리)	세부 운영계획			
	교육대상	운영기간	회당 교육시간	회당 참여인원
판소리 5바탕	유아, 초등	금 또는 토	60분	10명 내외
	청소년			
	일반인	주중	90분	20명 내외
	기타(취미 등)	(직장인은 저녁)	50분	

■ 일반교육프로그램

- 판소리 이외의 국악을 소재로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악나눔교실 : 피리, 해금, 가야금 강좌
 - 매주 1회씩 2시간 총 16회 강좌/강좌별 10명 내외 운영

■ 전시프로그램

- 판소리 무형문화재 상설 전시
 - 전라남도과 국가무형문화재의 소개, 연혁, 보존가치 등 안내전시
 - 판소리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활동 자료 전시
- 판소리 무형문화재 기획전시(연 3~4회)
 - 전국, 타 지자체 판소리 무형문화재 초대전시전 등
- 판소리 관련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해설이 있는 전시 프로그램 운영

■ 공연프로그램

- 토요일상설공연 “판소리 한마당”
 - 공연일시 : 토요일 19:00부터(50분 내지 70분 공연)
 - 장소 : 지역 판소리 전수관 공연장
- 판소리 무형문화재 공개행사(1회 이상/년)
 - 판소리 5바탕(시도 및 국가무형문화재) 정기공연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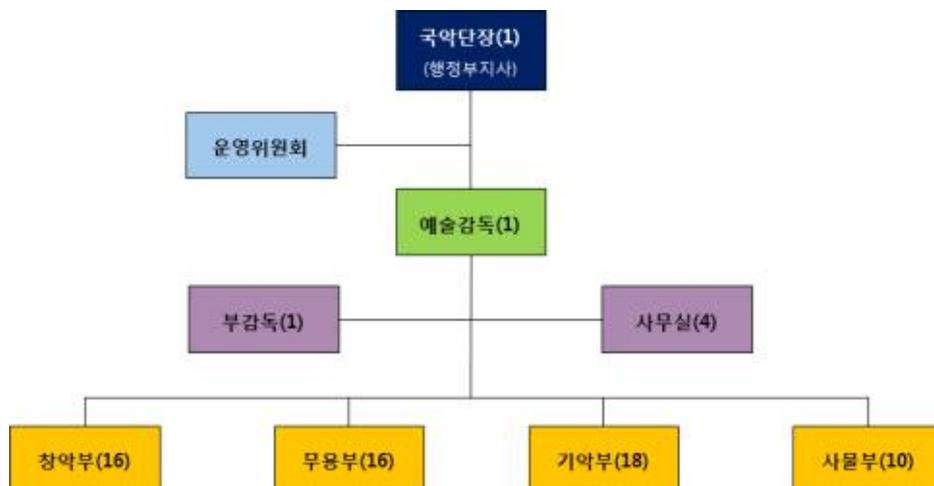
- 전수관 정기공연
 - 지역 판소리 전수관이 주관하는 공연을 월 1회 정기공연
- 기획공연
 - 전통예술 장르 간, 전통과 현대 간, 지역 간 연계공연 기획
- 남도 국악 <테마파크> 컨셉의 운영
 - 다양한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거점센터에 <테마파크>를 조성
 - 명예의 전당으로 활용하여 유품전시 시설, 영상 기록 보존 공간으로 활용
 - 동시에 방문객들을 위한 소리체험, 명창들의 흥상제작 등의 프로그램 운영

② 새로운 판소리 거점센터 구축 방안

1. 현 전남도립국악단 활용 방안

1.1 전남도립국악단 현황

- 조직, 인력 및 예산 현황
 - 조직 : 4부 1팀



[그림 5-1] 현 전남도립국악단 조직도

- 인력 현황
 - 정원 : 80명(단장 1, 예술감독 1, 부감독 1, 사무장 1, 사무단원 4, 공연단 72)
 - * 공연단 72명(창악부 20, 기악부 22, 사물부 12, 무용부 18)
 - 현원 : 78명(단장 1, 예술감독 1, 사무장 1, 부감독 1, 수석 4, 상임 68, 무기계약 2)
- 예산 현황(2019년)
 - 일반예산 : 767,000천원
 - 국악단 육성기금 : 170,000천원

■ 운영 현황

- 공연횟수 연간 140회, 공연관람인원 67,894명(2019년 11월 16일 기준)

구 분	공연횟수	관람인원(명)	비 고	
계	140	67,894		
토요공연	47	9,056	※ 어린이도립국악단 정기공연 '모두 다 꽃이야'	
초청공연	65	46,210		
찾아가는 국악공연	22	10,120		
기획 공연	소계	6	2,508	
	해외공연	3	1,658	
	기획공연	1	484	※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공연 창극『개벽』'19. 4.12.~13.
	특별순회	1	21	※ 3·1절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공연 창극『민초의 노래』'19. 11.13.
	정기공연	1	345	※ 정기공연 춤극 '심청'

- 교육프로그램 : 판소리, 한국무용, 장구, 대금, 가야금 5개 과목에 대하여 분기별 교육 진행
 - * 교육비용 : 6만원 (3개월 주 1회)
 - * 교육인원 : 과목에 따라 10명 ~ 20명

1.2 전남도립국악단의 거점센터 구축 방안

■ 예술단 조직 및 단원 확충

- 현 전남도립국악단을 판소리 거점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악단을 (가칭)전남도립국악원으로 확대·개편하여 예술단 산하의 국악관

현악단, 무용단³⁵⁾, 창극단으로 재구성하고 각 단원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타 시·도 예술단의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창극단의 정원을 살펴보면 <표 5-1>과 같이 국악관현악단의 평균 정원은 66명, 무용단의 평균 정원은 41명, 창극단의 평균 정원은 47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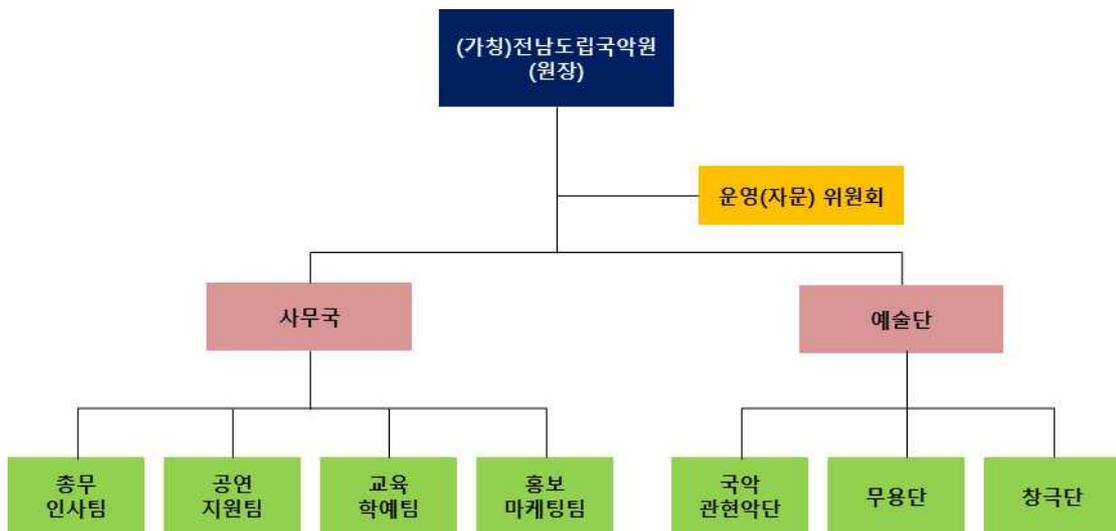
<표 5-1> 타 시·도 예술단의 정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창극단	비 고
국립중앙극장	72	70	70	
부산광역시립예술단	72	50	없음	
광주광역시립예술단	76	66	66	무용단 : 발레단을 말함
대구광역시립예술단	63	41	없음	
대전시립연정국악단	64	16	없음	국악관현악단 : 연주단을 말함
경기도립예술단	80	60	없음	국악관현악단 : 국악단을 말함
경상도립예술단	65	25	없음	교향악단 90명
전북도립국악원	45	28	27	
평균인원	66	41	47	
전남도립국악단	22	30	20	국악관현악단 : 기악부, 무용단 : 무용부(사물부 포함), 창극단 : 창악부

주) 국립중앙극장 규모와 타 시·도 예술단(또는 국악단(원)) 규모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국립극장 예술단 인원수를 평균인원 산정에 포함시킬 경우 평균값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 <표 5-1>에 근거하여 현재의 전남도립국악단을 (가칭)전남도립국악원으로 확대·개편하여 판소리 거점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영방식을 사업소형태 또는 독립법인형태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조직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것을 제안함.



[그림 5-2] (가칭)전남도립국악원의 조직도(안)

35) 현재의 사물놀이부는 무용단으로 편입시킴.

- 그리고 예술단의 정원도 <표 5-2>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확충할 필요가 있음. 다만, 사무국의 정원은 국장 1명, 총무인사팀 4명, 공연지원팀 4명, 교육학예팀 6명, 홍보마케팅팀 4명으로 할 것을 제안함.

<표 5-2> 예술단의 인력 구성(안)

(단위 : 명)

현재	국악단	조직	기악부	사물부	무용부	창악부	비고
		정원	22	12	18	20	
변경	예술단	조직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창악단	
		정원	60	40		40	
		총원인력	38	10(사물부 인력 유지)		20	공개채용

주) 69명을 총원할 경우 연간 소요예산액 : 2,380백만원(1인당 35백만원) 8급상당(평균)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보수규정 기준

- 예술단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연 횟수를 늘리고, 현 전남도립국악단 단원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평가시스템과 연계하여 단원을 확충하는 것은 (가칭)전남도립국악원의 예술단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예술단의 공연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안으로 현재의 전남도립국악단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국악공연을 확대하기 위한 단원모집 및 단원확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결과적으로 자체적인 실력향상 노력이 지속적으로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실력 있는 신규 단원이 계속 충원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됨.

■ 공간확충

- 현 남도소리올림터 2층에 입주하고 있는 관련 단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가칭)전남도립국악원으로 확대·개편에 따른 필요 공간을 확보함.
- 현 주차장 부지(도유지)에 2층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 교육(연수)기능을 강화함.
- 현재의 남도소리올림터 그대로 둔 채 다른 곳(여수, 순천 등)에 분원을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운영 및 관리 체제

- 현재 전남도립국악단은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나, 재단은 국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국악단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재단은 단지 시설 운영에만 관여하는 상태로 실질적으로 이원화된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는 형국

- (문제점)
 - 전국 유일의 수탁관리
 -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과 전남도립국악단의 설립목적 충돌
 - 비전문가의 감독 관리에 따른 비효율성 초래
 - 조직관리 이원화에 따른 업무 지연과 혼선 야기
- (검토사항) 운영체제 : 수탁관리 → 도 사업소 혹은 도 직영 전환
 - (도 사업소 체제)
 -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전북도립국악원 등 선진화 사례
 - 현재 공연 업무 외에 강의, 연구기능 추가
 - 남도소리올림픽의 공연장 운영으로 공연 활성화 기대
 - (도 직영 체제)
 - 관립단체 대체적인 운영체제
 - ※ 공연장 운영을 사업소에서 위탁체제로 전환하면서, 대형 공연장의 경우 공연장 자체를 재단법인화 한 후, 예술단체를 그 소속으로 두는 경향이 있음 → 서울세종문화회관, 경기도 예술의 전당, 부산시립문화회관, 광주시문화예술회관
 - 단장(행정부지사)의 권한위임에 따른 전문성 및 예술감독 자율성 강화
 - 도의 중요 정책 및 중점 업무 추진 용이
 - (기대효과)
 - 사업소 체제 : 독립적 운영에 따른 업무의 전문화 촉진, 책임 경영에 따른 자율성 및 창의력 확대
 - 사업소, 도 직영 체제 : 효율화 제고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 강화
 - 도 직영 체제 : 도의 정책 의지 신속한 반영, 정원, 예산 등 중요한 업무 추진 용이

2. 국립남도판소리원(또는 국립남도음악원) 설립 방안

2.1 설립의 필요성

- 장기적으로 전라남도를 우리나라 판소리 메카로서의 지위를 다시 찾고, 대중성 상실 위기에 처한 판소리를 활성화시켜 남도 판소리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공간(플랫폼)이 필요함.

2.2 시설규모계획

- 전국의 국악원(국립국악원, 민속국악원, 남도국악원, 부산국악원 등) 규모와 시설 내역 등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함.³⁶⁾
 - 조성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전체 건축 연면적은 약 9,920㎡로 하고, 지상층 연면적은 약 7,070㎡로 계획함.
 - 건축물의 세부공간은 공연 및 연습공간, 학예공간, 지원공간, 편의공간, 부속공간, 지하주차장, 공용공간으로 구분함.

2.3 추정 사업비

- (가칭)국립남도판소리원(또는 국립남도음악원)을 새로 설립할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3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³⁷⁾
 -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부대시설(토목/조경) 등 공사비 내역은 조달청에서 발간한 「2017년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2018.6) 자료의 전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평균 공사비 구성 비율을 준용함.
 - 총사업비(부지매입비 제외)는 공사비, 설계비, 설계공모 보상비, 설계VE검토 용역비, 감리비(건설사업관리 대가), 시설부대비, 건축물 관련 인증 및 검토 수수료, 조사비와 예비비를 합계한 금액(부가세 포함)임.

36) 본 계획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안하는 것임.

37) 사업비 추정은 건축물에 국한된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별도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사항임.

<표 5-3> 사업비 산출 내역

(단위 : 원)

구 분	사업비	비 고	
공 사 비	건축공사	14,911,258,400	순수 공사비(신재생에너지 설비비 제외)의 54.10%
	기계공사	3,982,766,800	순수 공사비(신재생에너지 설비비 제외)의 14.45%
	전기공사	3,045,645,200	순수 공사비(신재생에너지 설비비 제외)의 11.05%
	통신공사	1,303,701,520	순수 공사비(신재생에너지 설비비 제외)의 4.73%
	소방공사	1,190,695,680	순수 공사비(신재생에너지 설비비 제외)의 4.32%
	부대시설공사(토목/조경)	3,128,332,400	순수 공사비(신재생에너지 설비비 제외)의 11.35%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	972,300,000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준수
	순수공사비	28,534,700,000	
	부가가치세	2,853,470,000	순수 공사비의 10%
	총공사비	31,388,170,000	
설계비	1,385,598,090	순수공사비*설계비대가율, (대안1) 4.42%,(대안2) 4.44%,(대안3) 4.56% 적용,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동시진행, 부가세 포함	
설계공모 보상비	100,000,000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호)	
설계 VE검토 용역비	50,000,000	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2018-244호)제 48호제1호	
감리비(건설사업관리 대가)	2,091,581,908	(대안1)과 (대안2)는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에 해당되어 전면 책임감리비율(복잡공정) 적용, 순수공사비*적용율,(대안 1)6.76%,(대안2)7.37%,(대안3)1.13%, 부가세 포함	
시설부대비	72,192,791	2019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기획재정부,2018), 순수공사비*적용율,(대안1) 0.23%,(대안2) 0.23%,(대안3) 0.25%, 부가세 포함	
건축물 관련 인준 및 검토 수수료	52,122,007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인증(예비,본), 에너지효율등급인증(예,보),BF인증(예,본), 지능형건축물인증(예,본), 부가세 포함	
조사비	10,492,000	부지면적(m²)*1,000원/m², 부가세 포함	
예비비	1,426,735,000	순수공사비*5%, 부가세 포함	
개략 사업비(추정)	36,576,891,796	부지매입비는 포함되지 않음	

2.4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 교육

- 각 지역 판소리 전수관의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
- 국약(특히 판소리) 전승자 배출 및 체계적인 관리 가능
- 국내 최고의 판소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위 확보
- 전통공연예술(판소리)의 재인식

■ 공연

- 각 지역 판소리 전수관의 맞춤형 공연기획 및 공연인력 지원
- 수준 높은 판소리 공연 활성화
- 판소리 공연 및 연구 인력의 자긍심 고취

- 남도 판소리의 메카 역할

- 네트워크
 - 지역 판소리 전수관별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한 교류 확대
 - 지역 판소리 전수관에 대한 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지원
 - 다양한 예술 분야의 매개자들과의 미팅과 교류를 통한 정보 나눔
 - 해외 공연예술계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 확대

- 홍보 지원
 - 지역 전수관의 통합 홍보마케팅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각종 SNS 등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홍보물 제작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③ 기타 정책 방향

1.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거점사업 연계방안

1.1 사업 개요

- 사업명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육성 지역 확대사업
 - 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예술영재교육원)가 강사 파견 및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 광역 시·도가 공간 및 설비를 제공하여 지역 예술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
- 주관기관 : 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예술영재교육원)
- 협력기관 : 광역시·도 3개 기관
- 사업예산 : 총 2,720,000,000원(전액 국비)
 - 지역별 예산 규모는 인원·분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기간 : 2020. 1월 ~ 2020. 12월
 - 사전준비기간 : 2020. 1월 ~ 2020. 7월

- 교육기간 : 2020. 8월 ~ 2020. 12월(15주 교육, 60시간 이상 이수)
- 교육장소 : 협력기관이 제공한 장소
- 교육분야 및 인원: 음악, 무용, 전통예술, 융합 4개 분야 75명/사회적 배려대상자(정원 외 30% 이내) ※ 지역 여건에 따라 분야별 인원 조정 가능
- 교육대상
 - 협력기관이 속한 지역의 초·중·고등학생
- 운영주체: 주관기관(교육)과 협력기관(공간·시설) 공동운영
- 운영내용: 우수한 예술영재교육 강사를 해당 지역에 파견하여 방과후 및 주말을 이용한 분야별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1.2 신청 대상

- 협력기관: 전국 광역시·도
 - 지역 교육청 협력하여 추진 시 가산점 부여
- 광역 시·도로써 4개 분야의 영재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및 시설요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독립된 유휴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협력 기관의 운영 예산 및 인력은 협력기관 부담, 주관기관에게 위탁 운영 불가

1.3 선정 절차

- 선정절차 : 구체성, 현실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3단계 평가 실시
 - 공모신청서 접수 → 1차 평가(서류) → 2차 평가(현장방문/발표PT) → 종합평가 → 결과발표
- 선정방법
 - (원칙) 선정평가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지역교육거점 최종 확정
 - (선정방식)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평가 후 결과 등을 종합하여 협력기관 협력 및 예산결정
 - (1차평가) 서류심사 : 신청대상 기준의 부합여부/제출서류 필수 작성항목의 포함 여부 등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선정지역 수의 2배수 내에서 2단계 평가대상으로 확정

- (2차평가) 현장심사 :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역기관에 한해 분야별 교육기반시설 적합여부 및 사업 계획에 대한 현장심사 및 PT 평가 실시
- (종합평가) 현장심사 결과와 종합평가를 합산, 협력기관 최종 확정
- 주요 심사기준
 - 사업목적, 부합여부, 지역사회 교육수요 및 특성분석, 교육공간 및 시설투자계획, 지속적 사업협력체계 여부,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
 - 결과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기관 통보

1.4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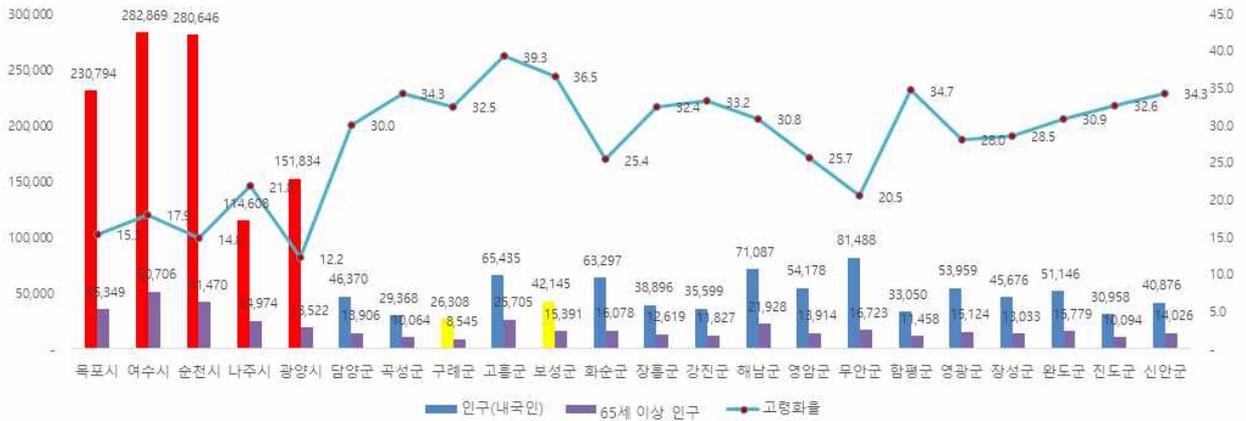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국악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
- 육성된 영재들을 어린이 국악단과 연계하여 국악 후속세대 양성을 통해 전통음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의 거점사업에 전남의 지정 여부를 떠나 선도적으로 판소리 예술영재를 키우려는 도의 투자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사료됨.

2. 지역 판소리 전수관 확대 방안

2.1 지역 여건 분석

가. 전라남도 시·군별 인구분포(외국인 제외)

- 2019년 6월 말 기준 전남의 22개 시·군 중 여수시 282,869(1위), 순천시 280,646명(2위), 목포시 230,794명(3위), 광양시 151,834명(4위), 나주시 114,608명(5위)으로 나타났으며, 고령화율은 광양시(22위), 순천시(21위), 목포시(20위), 여수시(19위), 나주시(18위)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3] 전라남도 시·군별 인구 현황(2019년 6월 말 기준)

나. 전라남도 시·군별 예술단

- 전남도립국악단(무안군 소재) 외에 국악단을 두고 있는 시·군은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진도군이며, 예술단을 두고 있는 시·군은 나주시, 고흥군, 함평군, 진도군 임.

<표 5-4> 전라남도 시·군별 예술단 현황

지역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예술단	
	창단일	단원 (상임,비상임)	창단일	단원 (상임,비상임)	창단일	단원 (상임,비상임)	창단일	단원 (상임,비상임)	창단일	단원 (상임,비상임)	창단일	단원 (상임,비상임)	창단일	단원 (상임,비상임)
도			'86.8.9	84(66,16)										
목포시	'83.7.1	56(56,-)			'80.3.17	9(9,-)	'85.11.1	25(25,-)	'88.5.16	43(1,42)	'95.3.1			
여수시			'00.7.1	45(43,2)			'98.4.1	45(41,4)						
순천시							'85.9.12	42(40,2)	'87.5.2	65(2,63)	'90.12.18			
나주시			'16.6.1	28(16,12)			'16.6.1	20(10,10)	'16.6.1	51(-,51)			'16.6.1	99(26,73)
광양시			'10.7.1	35(-,35)			'10.7.1	45(-,45)	'10.7.1	50(-,50)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11.5			
고흥군							'14.7	45(2,43)					'01.3.27	19(-,19)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04.5.10	41(-,41)						
무안군														
함평군							'95	30(-,30)					'03.	60(-,60)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04.8.2	40(40,-)									'93.9.1	21(21,-)
신안군														

출처 : 2018년 전라남도 통계연보(2017년 기준)

다. 전라남도 시·군별 문화공간

- 전라남도 시군별 문화공간의 현황은 <표 5-5>와 같으며, 이중 전라남도에는 3곳(목포시, 무안군, 진도군)에 국악원이 있음,³⁸⁾ 진도군에는 국립남도국악원, 목포시에는 시립국악원, 무안군에는 도립국악원 등이 있음.³⁹⁾

<표 5-5> 전라남도 시·군별 문화공간 현황

지역	공연시설			전시실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공공공연장	민간공연장	영화관(스크린수)	미술관	화랑	시군민회관	종합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전체	34	9	16(82)	26	14	11	94	17	21	3	27
목포시	3	1	4(22)	5				1	1	1	1
여수시	6	4	3(17)		3	1	4	3	1		2
순천시	1	2	3(24)								
나주시	3					1	13	1	1		
광양시	1	1	2(11)				4	2	1		2
담양군	1			3	2	1	1	1	1		3
곡성군	1					1	1	1	1		4
구례군	2	1	1(2)		7		1	1	1		2
고흥군	1		1(2)	2		1			1		
보성군	2			2					1		
회순군	1			3		1	13		1		1
장흥군	1		1(2)			1	9	1	1		
강진군	2			1	1		11		1	1(없음)	
해남군	1			1		1	3	1	1		1
영암군	1			3		1	11	1	1		
무안군	2			1			1	1	1	1	
함평군				1			1		1		
영광군	1						9	1	1		1
장성군	2				1	1	1	1	1		
완도군	1		1(2)			1	1		1		
진도군	1			4			10	1	1	1	9
신안군									1		1

출처 : 2018년 전라남도 통계연보(2017년 기준)

라. 전라남도 4대 권역 구분 및 권역별 비전

- 전라남도는 지역 생활권 설정기준 및 경제·사회적 주요 공간기능에 따라 광주근교권, 동부권, 서남권, 중남부권으로 구분되며, 각 권역별 특성에 따른 특화개발과 함께 권역간 균형개발을 추진 중

38)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22에 위치한 남도소리올림터를 포함하면 4곳임. 진도군(국립남도국악원), 목포시(시립국악원), 무안군(도립국악원)

39) 2018년 전라남도 통계연보 상에는 강진군에 국악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확인해 본 결과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5-6> 전남 4대 권역 구분 및 권역별 비전

4대 권역	권역내 주요 시·군	권역별 비전
광주근교권	나주, 담양, 곡성, 화순, 함평, 영광, 장성	대도시권 미래산업 및 전원주거 배후 거점
동부권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환태평양권 물류·관광·미래산업 거점
서남권	목포, 해남, 영암, 무안, 진도, 신안	환황해권 해양관광·미래산업 개방 거점
중남부권	보성, 장흥, 강진, 완도	생명건강·웰빙산업, 해양관광 중심

자료 :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

2.2 판소리 전수관 설치 대상지역

- 판소리의 전승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고령화율이 낮은 지역에 판소리 전수관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함.
- 따라서 지역별 인구나 권역 안배를 고려한 판소리 전수관을 새로 설치할 후보 지역으로는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목포시는 시립국악원이 있고 여수시와 나주시는 시립국악단이 있어 활성화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음.

2.3 지역별 판소리 전수관 설치 규모와 추정 사업비

- 지역별 판소리 전수관의 설치 규모와 사업비 추정은 향후 별도의 「판소리 전수관 건립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하여 세부적인 내용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 과업에서는 기존의 판소리 전수관(보성과 구례)의 규모와 유사한 규모(약 건축연적면 800㎡)로 설치한다고 가정하고,⁴⁰⁾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의 구분에 따른 수련시설의 ㎡당 평균 공사비 단가 2,372,515원⁴¹⁾을 적용하여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하면 한 지역당 약 20억 원이 소요되고, 지역 판소리 전수관에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할 경우 추가로 12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1지역에 판소리 전수관(교육관, 전시관, 공연장)을 설치할 경우 총 3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다만, 이 사업비에 부지매입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3곳(목포, 나주, 여수)에 판소리 전수관을 설치할 경우 96억 원 그리고 2곳(목포, 나주)에 판소리 전수관을 설치할 경우 6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⁴²⁾

40) 판소리 전시관을 포함하는 규모

41) 「2017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의 구분에 따르면 전수관은 수련시설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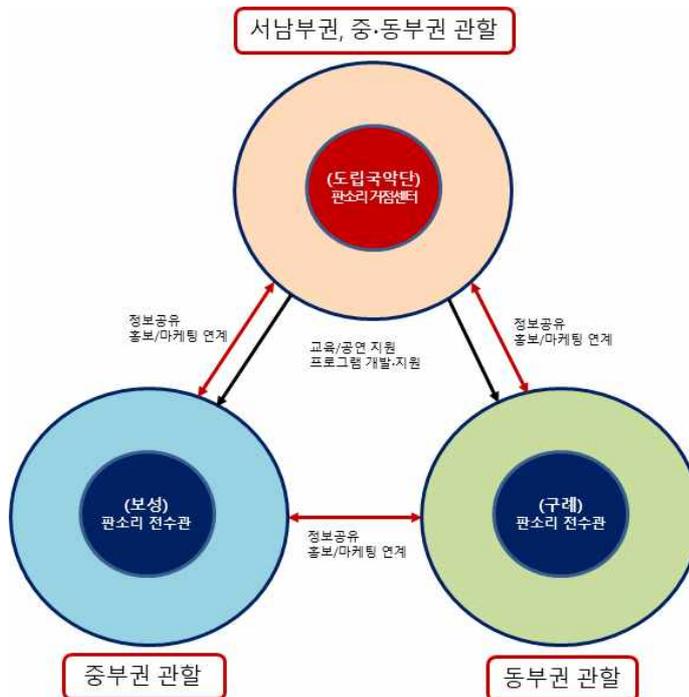
42) 부지매입비, 부대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는 반영되지 않음

3. 거점센터와 판소리 전수관 연계 운영 활성화 방안

3.1 단기적인 방안

가. 제1안

- 독립국악단을 거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서남부권 및 중·동부권을 관할하고, 구례는 동부권역을 관할하고, 보성은 중부권역을 관할하는 삼각축으로 구성하는 방안
- 이 안은 현재의 독립국악단을 도내 판소리 거점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조직 및 인력을 보강을 전제로 하는 방안임.
- 이 안은 독립국악단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구례와 보성의 판소리 전수관을 삼각축으로 연계하여 권역별로 판소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독립국악단의 확대 개편 및 구례·보성 판소리 전수관의 기능 보강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이 있음.



■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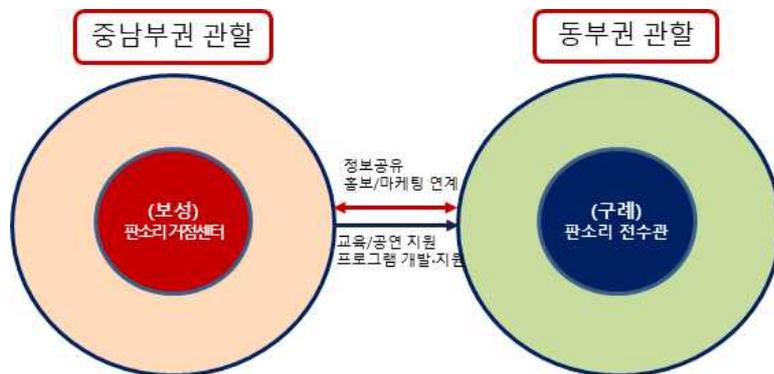
- 본 연구원에서는 이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되며, 이 방안을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보성과 구례 판소리 전수관의 경우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조직을 개편하여 인력(전문성 전제)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기한(5~7년)을 정하여 도에서 매년 일정 예산(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성과 구례 판소리 전수관의 운영 인력이 확보되고 나면 현재의 독립국악단을 확대·개편(정원, 운영방식 등)하여 판소리 전문가를 독립국악단에서 일정기간 보성과 구례에 파견하는 제도를 만들어 판소리 교육과 보급 활동에 전념토록 하고, 이 경우 운영인력과 판소리 전문인력의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하여 판소리 전문가는 국악활동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해당 자치단체의 운영인력 확보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필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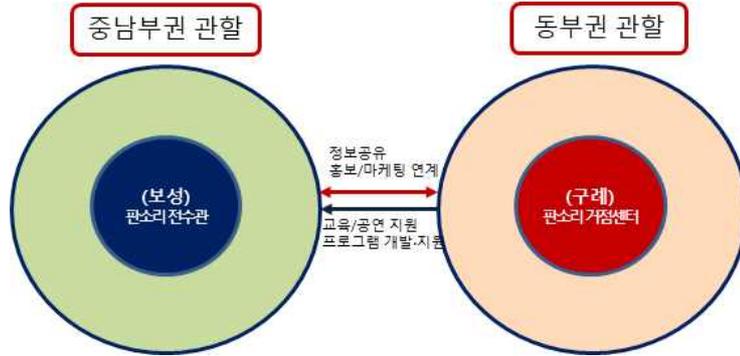
나. 제2안

- 현재의 보성 또는 구례 판소리 전시관 중 한 곳을 거점센터로 하고, 다른 판소리 전수관을 연계시켜 남도 판소리를 활성화하는 방안
- 따라서 거점센터 선정되는 현재의 판소리 전수관을 거점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조직 및 인력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이 안은 지역 판소리 전수관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추가 사업비가 가장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으나, 남도 판소리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여타 지역(목포, 여수, 나주)에 있는 남도 판소리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보성 판소리 전수관을 거점센터로 하는 경우〉



<구례 판소리 전수관을 거점센터로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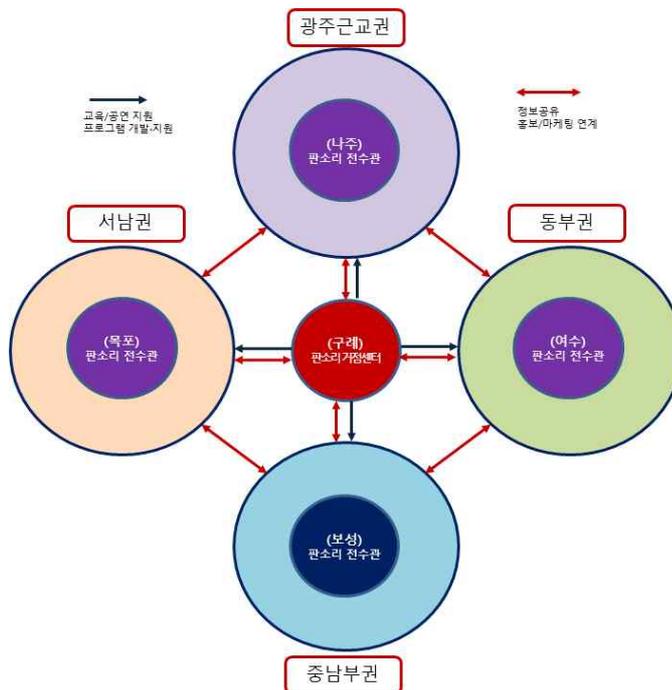


3.2 중 · 장기적인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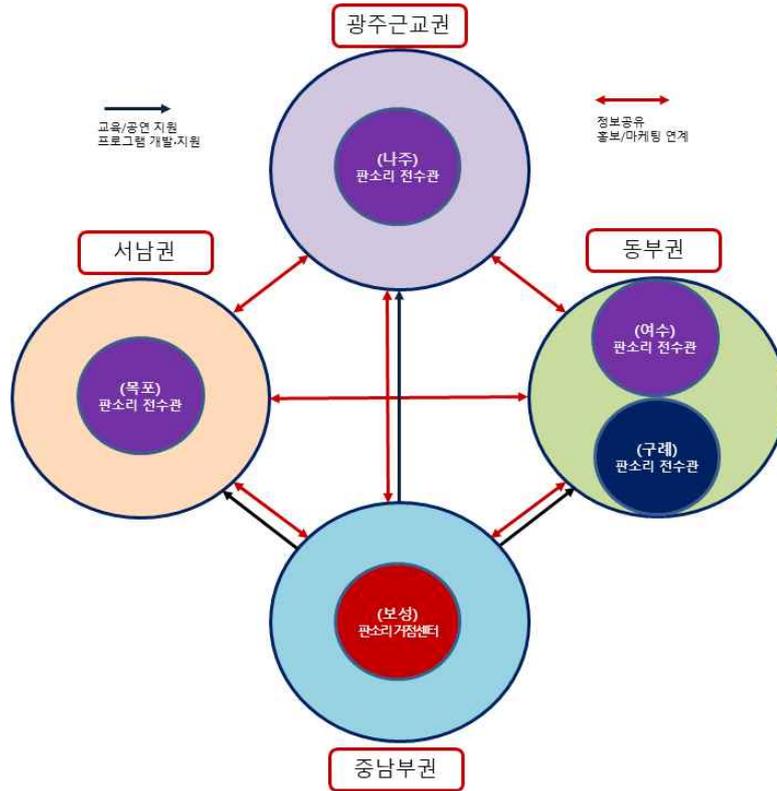
가. 제1안

- 현재의 보성 또는 구례 판소리 전수관 중 한 곳을 거점센터로 하고, 나주, 목포 및 여수에 판소리 전수관을 새로 설치하여남도 판소리를 활성화하는 방안
- 이 안의 장점은 전라남도의 권역별 판소리 문화자원을 활용하여남도 판소리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의 지역 판소리 전수관(보성과 구례) 이외에 추가로 3곳에 판소리 전수관을 설치하는 데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음.

<구례 판소리 전수관을 거점센터화 하고 추가로 판소리 전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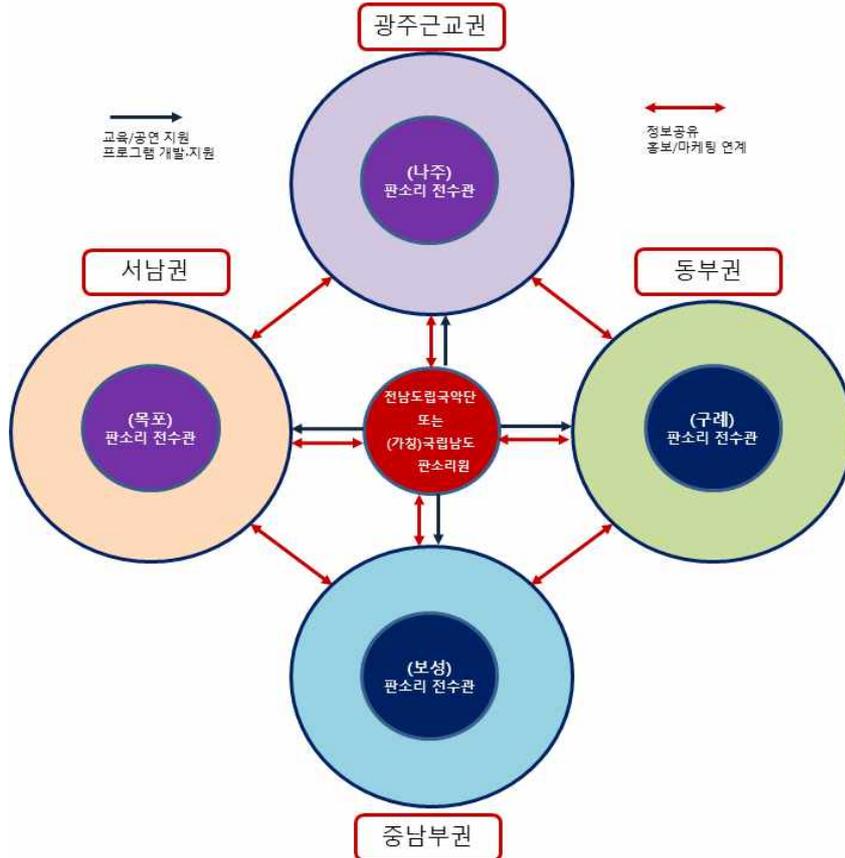
〈보성 판소리 전수관을 거점센터화 하고, 추가로 목포, 나주, 여수 3곳에 판소리 전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나. 제2안

- 현재의 전남도립국악단(또는 가칭 국립남도판소리원)을 판소리 거점센터로 하고, 지역 판소리 전수관을 목포와 나주에 신규로 설치하여 판소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방안임
- 이 안은 남도 판소리의 활성화를 위한 거점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의 전남도립국악단의 기능을 보장하거나 (가칭)국립남도판소리원을 설립하고 2곳의 지역 판소리 전수관(목포, 나주) 설치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 본 연구원에서는 두 가지 안 중에서 장기적으로 남도 판소리의 전승과 활성화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함.

<전남도립국악단 또는 (가칭)국립남도판소리원을 거점센터로 하고, 추가로 목포와 나주 2곳에 판소리 전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4. 남도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4.1 홍보 전략의 필요성

- 문화공간은 창조의 공간인 동시에 흥행의 공간이라는 이면성을 가지는데, 마케팅은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끼리의 교환 활동에서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영리로 운영되어 온 국·공립예술기관에는 낯설은 개념임.
- 특히, 예술계에서는 예술이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게 되는 마케팅 개념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음.
- 이와 같이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가 공연예술의 흥행을 적극 조력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면,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술경영을 통한 재정자립성과 예술수준에 대한 관객들의 욕구와의 사이에서 이견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임.

- 흔히 예술에서의 흥행성을 논의하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흥행이란 개념은 “무대예술을 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투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함.
- 이와 관련하여 한 예로 프랑스 아비뇽페스티벌의 예술단체 공연 초청장에서 사용하는 “매매계약서“라는 용어나, 일본에서 민간프로모터로부터 작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자주공연“이라는 용어는 모두 무대예술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흥행을 중시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
- 즉, 예술작품은 이제 단순한 서비스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상품으로서 인식되어야 함. 보다 많은 사람과 예술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또한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마인드가 적극 도입되어야 하는 것임.
- 따라서 현재 예술기관이나 민간 공연기획사에서 하고 있는 광고, 홍보활동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국·공립예술기관이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음.
- 본래 마케팅은 시장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기업은 자신의 모든 자원을 시장에 집중하여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제품의 구상단계부터 생산, 유통, 판매 등 모든 과정에 마케팅이 관련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일들로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보다 구체화 시켜보면 다음과 같음.
 - 소비자 위주의 경영
 - 소비자 만족의 극대화
 - 사후관리(애프터서비스)의 강조
 - 세련되고 독특한 디자인
 -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시 편의 제공
 -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개점시간을 앞당기거나 폐점시간을 연장
 - 소비자 설문조사의 결과를 제품, 서비스 개선 및 경영 전반에 반영
 -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 서비스개선 및 경영 전반에 반영
 -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사용교육 실시
 - 전화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소비자의 질문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
 -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국민홍보 실시
 - 다양한 소비자 구성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
- 위 사례들은 마케팅이 제품을 좀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단순히 선전이나 광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진정한 마케팅은 고객지향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고, 광고와 선전으로 고객을 설득시키거나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

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적극성과 능동성을 갖추는 것을 말함.

- 마케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그 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정보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우수한 정보시스템'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공급함을 말함. 즉, 국악원 경영에 있어 마케팅기법의 도입이란 다음의 사항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함.
 - 기획의 기본사항: 자체 네트워크에서 모아진 정보나 각 극장, 연주단체, 제작회사, 음악프로모터 등에서 보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객대상, 내용, 의미를 정확히 하여 기획함.
 - 관객수요 파악: 관객의 기대나 내용, 관객수요를 파악하는 방법의 하나로 시민양케이트가 있음.
 - 문화공간의 이미지 조성: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건설한 문화공간은 시민 휴식의 장, 창조의 장인 것은 물론, 시민의 요구에 상응하는 기획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예술장르나 예술성에 있어 특정한 이미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홍보: 관객은 문화공간의 행사팜플렛, 포스터 및 광고, 아는 사람이 권하는 이른바 '소문' 3가지 경로로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이밖에 평소 준비된 관객 조사에 따른 DM 발송 등의 방법이 있음.
 - 판매: 문화예술 티켓을 판매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관객이 표를 사기 위해 극장을 방문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여러 방법으로 판매방법을 확대하여야 하고, 문화공간의 창구 외제 지정예매처와 컴퓨터, 온라인, 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함.
- 또한 각 기관의 특성화 기반이 형성된 후에는 기관 간의 전략적 마케팅 제휴를 시도하여 적극적인 관객개발을 꾀할 수 있는데, 최근 해외 우수 예술기관들의 마케팅을 보면 이와 같은 시도를 쉽게 볼 수 있음.
 - 뉴욕시립오페라(New York City Opera), 브룩클린음악아카데미(Brooklyn Academy of Music:BAM), 카네기홀(Carneigie Hall),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MOMA)은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오페라, 음악, 연극, 미술 등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네 기관은 각 기관에서 기획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묶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 BAM에서는 로얄세익스피어극단이 공연하는 햄릿을, 뉴욕시립오페라단에서는 에밀린(Emmeline)을, MOMA에서는 척 클로스 전시회를, 카네기홀에서는 보스턴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패키지를 개발하였는데, 네 기관들의 마케팅 제휴는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예술장르를 즐기기 원하는 관객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었음.

- 예술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기관의 기존 관객에게 이제까지 즐긴 예술장르와는 다른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객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수확을 거둘 수 있고, 이처럼 각 기관의 특성화가 전제된 마케팅 제휴는 관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관객을 '공유'하고 '확대'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

4.2 전통공연예술의 마케팅 및 관객 경향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조사한 「공연계 주목해야 할 키워드(2019)」에 의하면 2019년 공연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마케팅 경향 요인으로는 4.13을 받은 'SNS 마케팅'이 선정되었으며, '공연 또는 관련 행사 생중계'가 3.77을 받아 뒤를 이었음.
 - 향후 5년 전망에서 'SNS 마케팅'이 4.53을 받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홈쇼핑을 통한 공연 판매'도 4.23을 받아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음.
 - 추천시스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등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도 2019년에 3.63, 향후 5년에는 4.20으로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표 5-7> 공연계 내부요인 중 마케팅 경향에 대한 기술통계량(평균)

분류	공연계 영향	2019년	향후 5년
마케팅 경향	홈쇼핑 공연 판매	3.60	4.23
	전통매체(TV, 라디오, 옥외광고) 마케팅 증가	2.43	2.17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케팅 증가 (예) 인플루언서 영향	4.13	4.53
	1인 미디어활용 마케팅 증가 (예) 아프리카 TV BJ	3.43	3.93
	공연 또는 관련 행사(쇼케이스 등) 생중계	3.77	4.07
	데이터 기반 마케팅 (예) 추천시스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 활용 등	3.63	4.20
	관객 체험을 위한 이벤트 (예) 팬 대상 파티	3.73	3.97

출처 : 「공연계 주목해야 할 키워드」,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 한편, 2019년 공연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관객 경향 요인으로는 4.17을 받은 '팬덤의 영향력'이 선정되었으며, '모바일로 티켓을 구매하는 경향'이 4.07을 받아 뒤를 이었음.
 - '팬덤의 영향'과 '공연 굿즈 상품 판매'는 시간이 지나도 높은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향후 5년 전망에서는 '모바일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경향'이 4.7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주중 공연 관람 등 '선호하는 관람시간대 변화'의 영향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표 5-8> 공연계 내부요인 중 관객경향에 대한 기술통계량(평균)

분류	공연계 영향	2019년	향후 5년
관객 경향	(온라인보다) 모바일 상에서 티켓 구매하는 경향	4.07	4.73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공연 관람하는 경향 (예) 네이버 TV, 페이스북	3.13	3.57
	공연 굿즈 상품 구매 (예) 티셔츠, 컵 등	3.73	4.0
	팬덤의 영향력 (예) 작품 팬덤, 배우 팬덤	4.17	4.30
	극성팬들로 인한 업계 피해 (예) 배우초상권 침해(홍마), 티켓 반복 취소 등	3.40	3.43
	선호하는 관람시간 변화 (예) 주중 관람 선호	3.40	3.83

출처 : 「공연계 주목해야 할 키워드」,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4.3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가. 남도 판소리 활성화 비전

- 비전(vision)은 중·장기적으로 판소리 활성화라는 목표를 정의하는 간결하고도 함축적 문구로 미래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표어라고 할 수 있음.
- 강력한 비전은 판소리 관련 단체의 미래에 대한 윤곽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소리와 관련한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신적 틀을 제공하고, 전통문화예술(특히 판소리)를 대표하는 가치, 그리고 남도 판소리 거점센터와 지역 판소리 전수관이 원하는 미래상으로 가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전략 간의 수로역할을 함.
- 따라서 비전은 외부적, 시장 지향적이어야 하며, 판소리 거점센터와 지역 판소리 전수관이 외부로부터 어떻게 인식되고자 하는지가 표현되어야 함.
- 효과적인 비전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님.
 - 명확한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해야 함.
 - 5~10년 내에 판소리 거점센터와 지역 판소리 전수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야 함.
 - 관객이 필요로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미래상을 기술해야 함.
 - 간결하고 실행가능한 미래상을 제시해야 함.
 -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태로 기술되어야 함.
 - 판소리 거점센터와 지역 판소리 전수관 구성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함.
-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남도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음.

비전 : 융복합형 남도 판소리의 대중화와 산업화

나.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전략

■ 판소리 활성화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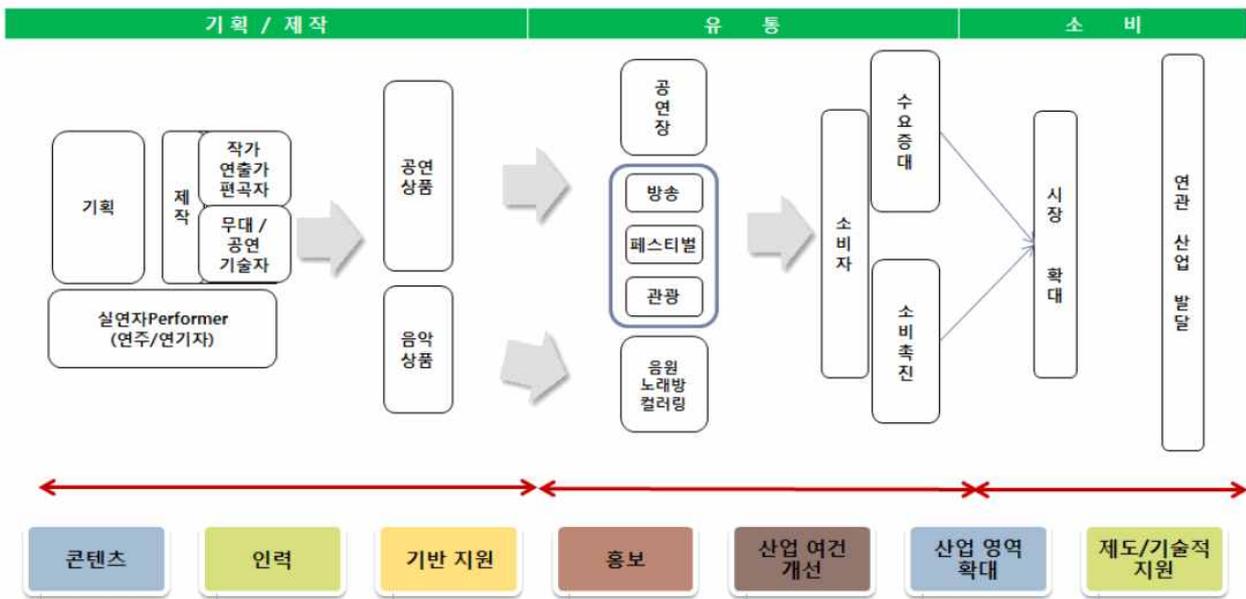
- 판소리의 축제를 통한 성과 축적을 통하여 판소리의 대중화, 산업화, 그리고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발생하는 성과를 판소리 전승과 활성화에 환류
- 판소리 거점센터(남도소리올림터 또는 가칭 남도창극원)을 중심으로 판소리 공연(창극 공연)에서 진일보하여 판소리 전승자의 역량제고를 통한 창작판소리 작품의 다양성 확보
- 궁극적으로 판소리 관련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기획자 및 예술가들의 시장 점유율 제고, 전통문화예술(특히 판소리) 향유 기회의 확대, 남도 판소리의 세계화 지향

■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비전 및 전략 체계

비 전	융복합형 남도 판소리의 대중화와 산업화		
목 표	지역 판소리 전수관과 거점센터와의 네트워크 강화		
전 략	전승을 위한 창작 활성화 지원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과 향유 지원	산업화를 위한 대중화와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정책 지속 및 확대 • 지속적인 자원 발굴, 기록 및 활용 • 전통에 기반을 둔 판소리 창작 환경 확대 • 새로운 융합과 변화에 의한 창작판소리 적극 유도 • 지역 판소리 전수관에 대한 직접지원(예산, 인력 및 프로그램) 확대 • 거점센터의 공연프로그램 기획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소리 교육 기회 확대 • 향유 중심에서 교육, 체험 중심을 전환(판소리 교육 계획에 반영) • 판소리 동아리 확대 및 아마추어 남도 소리꾼 인 증제도 도입 • 초중고 판소리 교육 확대와 어린이 창극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소리 공연의 SNS에 대한 노출 확대 • 지역 맞춤형 브랜드 판소리 공연 제작/단체활동 투자 • 음원 확보전략 수립 및 전략컴플레이션 상품제작 지원 • 무대 및 녹음기술, 장비지원, 시나리오 공모 등을 통한 측면 지원 • 타장르와 협력, 경쟁, 융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전남 판소리 축제 등 경연과 시연 기회 제공

[그림 5-4]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비전 및 전략 체계

- 「융복합형 남도 판소리의 대중화와 산업화」라는 남도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판소리 분야에 대한 지원과 교육 및 향유를 지원하며 산업화를 위한 대중화와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판소리 전수관과 거점센터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유도함.
- 궁극적으로 남도 판소리 산업화를 지향하며 이를 위하여 판소리 관련 가치사슬 전반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
 - 전라남도 지역의 강점(소재의 풍부성, 활용가능한 인적자원 및 기반시설의 풍부성 등)을 활용한 지역 판소리 소재와 남도 판소리 산업화 관점에서의 접근 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둠.



[그림 5-5] 판소리 관련 가치사슬(산업구조)

- 전승을 위한 창작 활성화 지원
 - 남도 창작판소리(창극)로 전환 가능한 문화유산, 문화자원의 보존과 발굴(학술적 관점), 문화원형의 활용을 위한 창작지원(예술적 관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창작환경(문화기반)의 보완에 중점.
 - 지역 판소리 전수관에 대한 직접지원(예산, 인력, 프로그램) 확대와 거점센터의 공연 프로그램 기획역량 강화
-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과 향유 지원
 - 창작판소리(창극) 분야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문인력(창·제작 인력)

- 양성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향유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의 전환에 중점
- 교육중심으로의 정책 중점 변화를 문화향유권 차원에서의 접근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기반한 산업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유에 대한 정책의 축소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 판소리 동아리 확대 및 아마추어 남도 소리꾼 인증제도 도입, 초중고 판소리 교육 확대와 어린이 창극단 활성화
 - 산업화를 위한 대중화와 경쟁력 강화
 - 예술성을 지탱해줄 수 있는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도 판소리(특히 창극 판소리) 관련 마케팅 강화와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 등 가치사슬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 견인 효과 극대화에 중점
 - 전략실행의 기대효과
 - 정보, 인력, 인프라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등 인적·물적 핵심역량 강화
 - 판소리 내부의 생태계 및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전문인력 유입 가능
 - 저작권 확보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 타 장르와의 융합 및 재가공을 통한 콘텐츠 창작 다양성 확보
 - 각색을 통한 기존 콘텐츠의 부가가치 극대화
 - 남도 판소리경연대회 축제 활용, 지역별 판소리 콘텐츠 확보를 통한 관광 마케팅 지원요소 강화
 - 특히, 위에서 언급한 남도 판소리를 활성화를 위한 전략실행의 기대효과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소리 거점센터(판소리 전수관, 전남도립국악단 또는 가칭 국립남도판소리원)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4.4 지속적 마케팅 및 홍보 방안

가. 유튜브(YouTube) 활용

- 유튜브는 영상기술이 불러온 공연예술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음반의 시대, MP3의 시대를 지나, 음질은 물론 현장의 분위기까지 생생하게 영상으로 전달하는 유튜브의 시대에 와서야, 음악이 기술적으로 완벽에 가깝게 재현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됨.
- 추후 VR, AR의 기술이 발전되면 유튜브, 혹은 어떤 미래의 플랫폼에서 공연예술의 재현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임.

- 현재 유튜브에는 많은 판소리 영상이 올라와 있으며, 온갖 종류의 판소리 공연자료가 이 거대한 자료의 바다에 들어와 있어 쉽게 검색이 가능함.



[그림 5-6] 유튜브상의 판소리 관련 파일(예시)

- 판소리를 포함한 전통음악의 향유계층이 현대사회에 와서 현저하게 줄어들었지만, 유튜브와 같은 혁신적인 매체를 통해 새로운 향유계층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어떠한 판소리라도’, ‘어떠한 청중에게라도’ 가장 많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즐기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유튜브의 가능성이 됨.
- 다양한 방식으로 판소리를 접하게 되면서 이 작품들의 수준을 감식할 수 있는 감식안과 자정능력이 당연히 생기게 될 것이며, 다양한 문제의식을 노정해왔던 창작판소리는 유튜브를 만나 새로운 도전을 더 왕성하게 해볼 수 있음.⁴³⁾

나. 민간 관광업체와의 연계 강화

- 장기적으로 판소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관광업체와 연계하거나 일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판소리와 관련 지역의 전통문화를 연결짓는 답사와 강습으로 이루어진 판소리 관광프로그램을 민간 관광업체로 하여금 운영토록 함.
- 민간 관광업체는 지자체에 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내용면에서도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또한 코스와 일정을 다양하게 하여 다양한 참가자들이 개인 사정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도록 맞춤

43)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연이 중단 가운데 서울의 많은 공연장은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한 무관객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설 공연프로그램 및 공연장’과 ‘판소리 마케팅’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고민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악박물관이나 판소리박물관 등에 따로 마련되어 있음.

- 관광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연출력이 필요한데, 유적지를 둘러싼 환경과 유적지의 개성이 살아있어야 하고, 방문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파리의 ‘마레지구’에 있는 빅토르 위고의 생가와 대표적인 판소리 유적지인 송흥록 생가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5-9>와 같음.

<표 5-9> 빅토르 위고 생가와 송흥록 생가의 비교

구 분	빅토르 위고 생가	송흥록 생가		
입 구	물품보관소, 매표소	관리사무실		
전시 배치	2층 복도와 방에 전시물 설치	생가 개발 복원		
전시물 종류	생애	위고 집안의 족보 등의 패널	없음	
	모습	위고의 사진 위고의 부친과 자신의 흉상	판소리 공연장면 연출 등상	
	작품	위고의 작품(레미제바블, 노트담의 굶주 등)에 나오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	진양 24박, 메나리조를 형상화한 석항 일반적인 판소리 음반 재상	
관람 범위	집안 곳곳을 자유롭게 관람	생가 안으로는 출입 금지		
이미지				

- 판소리 관광은 잘 꾸며진 극장에서의 공연 관람이 아니라 현장 답사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현장이 판소리의 역사와 예술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협장 답사는 오히려 판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판소리 유적지를 보존하고 개발하는 데는 장기인 계획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 각기 관리하고 있는 판소리 유적지는 다양한 내용을 갖춘 코스로 발전시켜야 하고, 다른 판소리 유적지와 긴밀히 연계하여 판소리 보급에 상승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함.
- 전통 판소리와 관련된 유적의 종류와 위치 등 상세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사안임.
- 판소리 유적지는 명창들의 생가 외에도 명창이 소리수련을 했던 폭포나 소리굴, 전통 사회에 소리가 공연되었던 현장, 판소리 경연회가 개최되었던 장소, 판소리 동호회가 있었던 자리 등 무수히 많음.
- 남도 판소리의 혼이 담겨있던 유서 깊은 현장이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어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남도 판소리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인 준비과정이 필요함.

마. 홍보·마케팅 전담 인력 배치

- 남도 판소리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홍보·마케팅 능력을 갖춘 전담 인력이 필요함.
- 홍보·마케팅 전담 인력은 지역 판소리 전수관 및 거점센터의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며, 지역 판소리 전수관 및 거점센터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판소리(창극) 공연 기획자들의 개별 업무도 팀제로 개선하여 판소리(창극) 공연 업무 안에서의 세분화에 의한 전문적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효율적인 판소리(창극) 공연 기획이 되어야 하며, 또한 전문연출가를 채용하여 판소리(창극) 공연의 수준 향상과 세련된 무대 연출 기법을 도입, 거점센터 판소리(창극) 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4.5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과제 제언

가. 창작 및 제작 지원 강화

- 명품 브랜드 공연 제작 지원 : 명품 공연, 마당극 상품 제작 지원, 전략형 창극예술 홍보 음반 및 쇼케이스 제작 지원
- 스타단체 구성 및 지원 : 우수 창극예술단 및 스타 창극인 발굴(기성/유망주), 가무악 겸비 종합 엔터테이너 양성, 우수 창극예술단 벤처 방식 지원(융자 등)

나. 판소리 전문인력 양성

- 전문인력 양성 : 작가(시나리오 등), 기획·연출·창작 네트워크 지원, 전문가(예술인, 무대, 미술, 음향, 시나리오, 의상 등) 교육과정 운영, 창극관련 전문 컨설팅단 운영
- 교류활성화 : 창극 기획 전문인력의 방송, 영화, 게임, 만화 작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대중 안무, 작곡, 편곡, 전문 분야 TF 구성 및 추진

다. 제작기반 및 휴먼웨어 지원

- 제작공간 지원 : 영상, 녹음 제작장비 임대 등 간접지원 확충, (가칭)남도창극원(교류, 교육, 연습, 녹음, 소규모 공연 및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등) 개원

라. 전략 홍보와 미디어 접점 강화

- 전략홍보 : 온라인 국·영문 소개 포털 개발, 오프라인 전문 매체 지원, 메이저 트랜드 페스티벌 연계 창극소개, 문화유산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팬투어 연계
- 미디어 접점 강화 : 미디어 지원을 통한 창극의 미디어 노출 확대 지원

마. 기타

- 단체, 예술인, 기획인력 DB 구축, 창극능력시험 인증제도 도입, 창극마을 연계 기행로 조성 등 관광상품 개발, 타 산업과 능동적 융합을 위한 R&D(게임, 관광, 벨소리, 만화 영화 등), 창극의 글로벌 플랫폼 탑재를 위한 기술, 영상, 콘텐츠 기획 지원 등

VI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장·단기 정책추진 로드맵

- ① 연구 결과의 요약
- ② 장·단기 정책추진 로드맵

제VI장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책추진 로드맵

① 연구 결과의 요약

1. 도내 판소리 전수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구례 판소리 전수관의 문제점

-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지역 특성을 대표할만한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전수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국악교실 운영, 동편제소리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2000년대 초에 건립된 시설로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부족으로 전시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연장의 미비로 상설공연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관람객이 사실상 없는 상태임.

1.2 보성 판소리 전수관의 문제점

- 2019년 3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수자 1명이 전수교육관에 근무하고 있으나 판소리성지 내 시설물 전수교육관, 생활관, 전시관, 정웅민 생가, 기타 부대시설 등 관리시설이 많아 1명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음.
- 직영 이후 판소리성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판소리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토요일 상설 공연, 국악체험교육, 명창들과 함께 떠나는 소리여행, 열씨구 학당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학생 및 전문 국악인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다수자 근무의 한계성이 있고 프로그램 기획 및 자료관리 등 인프라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1.3 도내 판소리 전수관의 개선방안

가. 구례 판소리 전수관의 개선방안

- (프로그램) 기존에 운영되어오고 있는 국악교실 운영사업, 소리체험사업, 찾아가는 문

화사업, 고택에서 우리 소리듣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다음과 같은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국악인 독공소 설치를 통한 후진 양성
- 추모 기념관 확대를 통한 국악의 맥 계승
- 동편제 전수관 상설공연 정례화
- (시설 인프라) 기존 전수관의 시설을 보수하여 판소리 전용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사업명: 전수관 시설 보수), 동편제 판소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전시관의 공간을 확충하고(사업명 : 전시관 공간 확충), 판소리 공연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새로 소규모(150석 내외)의 공연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사업명 : 공연장 신축).
 - 소규모(150석 내외) 공연장 신축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 선도 : (연면적 : 375㎡, 기간 : 2021. 3월~11월, 추정사업비 : 1,200,000천원⁴⁴⁾)
 - 송만갑 선생 생가 완벽 복원

나. 보성 판소리 전수관의 개선방안

- (프로그램) 온라인 판소리 교실 운영(명창들 참여), 판소리 워크숍 운영, 순회 국악영재교육, 지역 국악인 협의체 운영, 판소리명창 기록화 사업, 판소리 명소 스토리텔링 사업 등
- (시설 인프라) 다음과 같은 시설 인프라의 보강이 필요함.
 - 판소리성지 내 150석 내외 규모 소공연장 신축(12억원) : 전문 국악인들이 참여하여 국악프로그램 개발, 연습, 공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특화된 공연으로 도내 관람객 유치 유도와 국악애호가 육성, 아동 및 청소년 등 국악 인재발굴의 기반 마련
 - 현 전시 내용물(콘텐츠) 보강 : 디지털 판소리 체험시설 구축, 도내 판소리 명창 흥상제작 전시, 도내 판소리 교육기관 및 단체 현황 및 활동 소개 등
 - 판소리성지 내 판소리문화센터(판소리거점 센터, 연구동, 전시) 신축(20억원) : 구례·보성 전수교육관이 연계하여 판소리 저변확대를 위한 판소리문화센터 건립으로 전남 판소리 인재발굴 및 국악 애호가 육성의 기틀을 마련
 - 2020년 균특예산이 적극 반영 검토

44) 공사비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안), 2017, 서울시」에 제시된 문화예술회관·문화집회 시설의 연면적 3,000㎡~4,000㎡의 평균 공사비 단가(VAT 포함) 2,900,000원을 적용하고, 설계비 및 조사비 등이 포함된 금액

다. 판소리 전수관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 구례와 보성의 판소리 전수관이 단기적으로 시설보수 및 공간확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장기적으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사료
- (교육프로그램)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확대 운영, 분야별(판소리 5마당) 판소리 전문가(명창) 양성 프로그램 및 판소리 교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 (체험프로그램) 지역별 판소리 연계프로그램 및 판소리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 (공연프로그램) 지역민을 위한 상설 공연프로그램 운영, 판소리 LAB 공연프로그램 및 퓨전 판소리 공연프로그램 개발 등
 - 특히, 공연프로그램은 민간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개발·운영함으로써 다른 광역시·도의 공연프로그램과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전남 판소리의 문제점과 대책

- 전남 판소리의 문제점과 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문제점	대책
· 지역 전승활동 및 전승 지원자 감소	- 판소리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 개선 - 판소리 전승지원금 현실화 - 판소리 전승활동에 대한 간접 지원 강화 - 이수자 대상 판소리 대회 확대 개최 - 판소리 교육기관 신설 및 예비 명창 양성 교육 - '남도소리꾼 명예의 전당' 구축
· 판소리 자료 관리 미흡	- 판소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남도 판소리 박물관 건립
· 판소리 상설공연 프로그램 및 공연장 부족	- 판소리 상설공연 프로그램 개발·운영(예, 토요일상설공연 "판소리 한마당" 운영) - 판소리 공연장 확대(소규모 전용 공연장 건립, 열린 공연 공간 확대)
· 판소리 대중화 미흡	- 연행 환경의 확장(개방적인 콘텐츠 소스로써의 활용, 대중과의 소통 노력) - 양식에 대한 고민과 창극의 대중화(고전의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의 변화, 서사적 단순성 극복) - 창작 판소리의 지속적인 창작활동 지원(창작 판소리 공모전, 창작 판소리 경연대회 개최,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문화 원형으로서의 판소리 콘텐츠 전략 - 판소리 공연·전시 콘텐츠 다양화

3. 전남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3.1 도내 판소리 전수관의 거점센터화

가. 장·단점 분석

- 구례 판소리 전수관과 보성 판소리 전수관 중 어느 한 곳을 판소리 거점센터로 구축하는 데 따른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구례 판소리 전수관	보성 판소리 전수관
현 운영방법	위탁운영	직영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이 뛰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다양성 우수 • 판소리 관련 지역문화자원 풍부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 시설의 노후화 • 공간부족으로 전시시설의 기능 상실 • 공연장 미비로 상설공연 불가 • 관람객이 거의 없는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 학생 및 전문 국악인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한계성 내포 • 사무공간 협소 • 관리인력의 부족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보강 및 공간확충 • 소규모 공연장 신설 • 소규모 예술단(국악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확충 • 소규모 공연장 신설 • 소규모 예술단(국악단) 구성
거점센터 적합도	낮음	높음

나. 소요예산

- 구례와 보성의 판소리 전수관을 도의 판소리 거점센터로 구축할 경우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공간확충, 소규모 공연장의 신설 및 소규모 예술단(국악단) 구성 문제임.

■ 구례 판소리 전수관

- 판소리 전수관 시설 보수 : 20,000천원
- 판소리 전시관 공간 확충 : 100,000천원
- 소규모 공연장(150석 내외) 신축 : 1,200,000천원

■ 보성 판소리 전수관

- 소규모 공연장(150석 내외) 신축 : 1,200,000천원
- 판소리 성지 내 판소리문화센터 신축 : 2,000,000천원(거점센터화 대비)

■ 소규모 예술단(또는 국악단) 구성

- 예술단(또는 국악단)의 단원수를 20명(단장 포함) 내외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로 연간 6억원(1인당 평균 연봉 30백만원 기준)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다. 운영 조직과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 운영 조직과 인력

- 지역 판소리 전수관의 조직은 운영관리팀 3명과 단순노무근로자 2명으로 구성(총 5명)
- 운영관리팀(3명) : 지자체 공무원
 - 공연기획, 전시기획, 기타 사업 운영
 - 회계, 서무, 재무관리
 - 각종 수익사업, 홍보·마케팅, 기부·후원 등
 - 시설물 관리
- 단순노무근로자(2명) : 기간제 계약직
 - 시설관리 미화원(1명), 주차관리 및 시설안내(1명)

■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 전수교육프로그램
 - 교육장소 : 전수관, 공연장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장소를 선택하여 교육 실시
 - 전수교육자 : 보유자

과정	운영기간	세부 운영계획		
		운영시간	운영횟수	회당 참여인원
판소리 5바탕	1.2~12.31	13:00~17:00	1회/주	20명 내외

주) 운영계획은 하나의 예시로서 지역 전수관의 실정과 전수교육자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사회교육프로그램 :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용
 -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기간 및 교육시간 적정 배분
 - 여름·겨울방학 판소리학교 운영(청소년, 가족단위 대상)

과정 (판소리)	세부 운영계획			
	교육대상	운영기간	회당 교육시간	회당 참여인원
판소리 5바탕	유아, 초등	금 또는 토	60분	10명 내외
	청소년			
	일반인	주중 (직장인은 저녁)	90분	20명 내외
	기타(취미 등)		50분	

- 일반교육프로그램 : 판소리 이외의 국악을 소재로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악나눔교실 : 피리, 해금, 가야금 강좌
 - 매주 1회씩 2시간 총 16회 강좌/강좌별 10명 내외 운영

- 전시프로그램
 - 판소리 무형문화재 상설 전시
 - 전라남도와 국가무형문화재의 소개, 연혁, 보존가치 등 안내전시
 - 판소리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활동 자료 전시
 - 판소리 무형문화재 기획전시(연 3~4회)
 - 전국, 타 지자체 판소리 무형문화재 초대전시전 등
 - 판소리 관련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해설이 있는 전시 프로그램 운영

- 공연프로그램
 - 토요일상설공연 “판소리 한마당”
 - 공연일시 : 토요일 19:00부터(50분 내지 70분 공연)
 - 장소 : 지역 판소리 전수관 공연장
 - 판소리 무형문화재 공개행사(1회 이상/년)
 - 판소리 5바탕(시도 및 국가무형문화재) 정기공연 개최
 - 전수관 정기공연
 - 지역 판소리 전수관이 주관하는 공연을 월 1회 정기공연
 - 기획공연
 - 전통예술 장르 간, 전통과 현대 간, 지역 간 연계공연 기획

- 남도 국악 <테마파크> 컨셉의 운영

- 다양한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거점센터에 <테마파크>를 조성
- 명예의 전당으로 활용하여 유품전시 시설, 영상 기록 보존 공간으로 활용
- 동시에 방문객들을 위한 소리체험, 명창들의 흥상제작 등의 프로그램 운영

라. 기대효과

- 도내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 구축
- 상설공연 추진이 가능하여 관람객 유치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운영프로그램(교육 및 공연)의 다양화 가능

3.2 새로운 판소리 거점센터 구축 방안

가. 현 전남도립국악단 활용 방안

■ 조직 및 인력

- 현 전남도립국악단을 판소리 거점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악단을 (가칭)전남도립국악원으로 확대·개편하여 예술단 산하의 국악관현악단, 무용단⁴⁵⁾, 창극단으로 재구성하고 각 단위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예술단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확충할 필요가 있음. 다만, 사무국의 정원은 국장 1명, 총무인사팀 4명, 공연지원팀 4명, 교육학예팀 6명, 홍보마케팅팀 4명으로 할 것을 제안함.

< 예술단의 인력 구성(안)>

(단위 : 명)

현재	국악단	조직	기악부	사물부	무용부	창악부	비고
			정원	22	12	18	
변경	예술단	조직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창악단	
		정원	60	40		40	
		총원인력	38	10(사물부 인력 유지)		20	공개채용

주) 69명을 총원할 경우 연간 소요예산액 : 2,380백만원(1인당 35백만원) 8급상당(평균) 재단법인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보수 규정 기준

45) 현재의 사물놀이부는 무용단으로 편입시킴.

■ 공간 확충

- 현 남도소리올림터 2층에 입주하고 있는 관련 단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가칭)전남도립국악원으로 확대·개편에 따른 필요 공간을 확보함.
- 현 주차장 부지(도유지)에 2층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 교육(연수)기능을 강화함.
- 현재의 남도소리올림터 그대로 둔 채 다른 곳(여수, 순천 등)에 분원을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운영관리 체제 검토

- (검토사항) 운영체제 : 수탁관리 → 도 사업소 혹은 도 직영 전환
- (기대효과)
 - 사업소 체제 : 독립적 운영에 따른 업무의 전문화 촉진, 책임 경영에 따른 자율성 및 창의력 확대
 - 사업소, 도 직영 체제 : 효율화 제고 및 업무처리의 신속성 강화
 - 도 직영 체제 : 도의 정책 의지 신속한 반영, 정원, 예산 등 중요한 업무 추진 용이

나. 국립남도판소리원(또는 국립남도음악원) 설립 방안

■ 설립의 필요성

- 장기적으로 전라남도를 우리나라 판소리 메카로서의 지위를 다시 찾고, 대중성 상실 위기에 처한 판소리를 활성화시켜 남도 판소리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공간(플랫폼)이 필요함.

■ 시설규모계획

- 전국의 국악원(국립국악원, 민속국악원, 남도국악원, 부산국악원 등) 규모와 시설 내역 등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함.⁴⁶⁾
 - 조성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전체 건축 연면적은 약 9,920㎡로 하고, 지상층 연면적은 약 7,070㎡로 계획함.
 - 건축물의 세부공간은 공연 및 연습공간, 학예공간, 지원공간, 편의공간, 부속공간, 지하주차장, 공용공간으로 구분함.

46) 본 계획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안하는 것임.

■ 추정 사업비

- (가칭)국립남도판소리원(또는 국립남도음악원)을 새로 설립할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3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기대효과

- (교육) 각 지역 판소리 전수관의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 국악(특히 판소리) 전승자 배출 및 체계적인 관리 가능, 국내 최고의 판소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위 확보, 전통공연예술(판소리)의 재인식
- (공연) 각 지역 판소리 전수관의 맞춤형 공연기획 및 공연인력 지원, 수준 높은 판소리 공연 활성화, 판소리 공연 및 연구 인력의 자긍심 고취, 남도 판소리의 메카 역할
- (네트워크) 지역 판소리 전수관별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한 교류 확대, 지역 판소리 전수관에 대한 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지원, 다양한 예술 분야의 매개자들과의 미팅과 교류를 통한 정보 나눔, 해외 공연예술계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 확대
- (홍보 지원) 지역 전수관의 통합 홍보마케팅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각종 SNS 등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홍보물 제작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3.3 기타 정책 방향

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거점사업 연계방안

- 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예술영재교육원)가 강사 파견 및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 광역시·도가 공간 및 설비를 제공하여 지역 예술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
- 교육분야 및 인원: 음악, 무용, 전통예술, 융합 4개 분야 75명/사회적 배려대상자(정원 외 30% 이내) ※ 지역 여건에 따라 분야별 인원 조정 가능
- 교육대상 : 협력기관이 속한 지역의 초·중·고등학생
- 운영주체: 주관기관(교육)과 협력기관(공간·시설) 공동운영
- 운영내용 : 우수한 예술영재교육 강사를 해당 지역에 파견하여 방과후 및 주말을 이용한 분야별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신청대상 : 전국 광역시·도. 단, 4개 분야의 영재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및 시설요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기대효과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국악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

- 육성된 영재들을 어린이 국악단과 연계하여 국악 후속세대 양성을 통해 전통음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의 거점사업에 전남의 지정 여부를 떠나 선도적으로 판소리 예술영재를 키우려는 도의 투자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사료됨.

나. 지역 판소리 전수관 확대 방안

- 판소리의 전승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고령화율이 낮은 지역에 판소리 전수관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함.
- 따라서 지역별 인구와 권역 안배를 고려한 판소리 전수관을 새로 설치할 후보 지역으로는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목포시는 시립국악원이 있고 여수시와 나주시는 시립국악단이 있어 활성화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음.
- 기존의 판소리 전수관(보성과 구례)의 규모와 유사한 규모로 설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 지역당 약 20억 원이 소요되고, 지역 판소리 전수관에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할 경우 추가로 12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1지역에 판소리 전수관(교육관, 전시관, 공연장)을 설치할 경우 총 3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다만, 이 사업비에 부지매입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음.

다. 거점센터와 판소리 전수관 연계 운영 활성화 방안

- (단기적 방안) 독립국악단을 거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서남부권 및 중·동부권을 관할하고, 구례는 동부권역을 관할하고, 보성은 중부권역을 관할하는 삼각축으로 구성
 - 이 안은 독립국악단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구례와 보성의 판소리 전수관을 삼각축으로 연계하여 권역별로 판소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독립국악단의 확대 개편 및 구례·보성 판소리 전수관의 기능 보강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이 있음.
 - 보성과 구례 판소리 전수관의 경우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조직을 개편하여 인력(전문성 전제)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기한(5~7년)을 정하여 도에서 매년 일정 예산(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성과 구례 판소리 전수관의 운영 인력이 확보되고 나면 현재의 독립국악단을 확대

- 개편(정원, 운영방식 등)하여 판소리 전문가를 도립국악단에서 일정기간 보성과 구례에 파견하는 제도를 만들어 판소리 교육과 보급 활동에 전념토록 하고, 이 경우 운영인력과 판소리 전문인력의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하여 판소리 전문가는 국악활동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해당 자단체의 운영인력 확보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필수적임.
- (중·장기적 방안) 현재의 전남도립국악단(또는 가칭 국립남도판소리원)을 판소리 거점센터로 하고, 지역 판소리 전수관을 목포와 나주에 신규로 설치하여 판소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방안임
 - 이 안은 남도 판소리의 활성화를 위한 거점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의 전남도립국악단의 기능을 보장하거나 (가칭)국립남도판소리원을 설립하고 2곳의 지역 판소리 전수관(목포, 나주) 설치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라. 남도 판소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 유튜브(YouTube) 활용
- 민간 관광업체와의 연계 강화
- 기업메세나 연계 프로그램 개발
- 남도 판소리 유적지 발굴, 보존, 계승
- 홍보·마케팅 전담 인력 배치
- 기타 장기적 과제 : 창작 및 제작 지원 강화, 판소리 전문인력 양성, 제작기반 및 휴먼웨어 지원, 전략 홍보와 미디어 접점 강화, 기타 등

② 장·단기 정책추진 로드맵

- 남도 판소리 활성화를 위해 앞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장·단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6-1]과 같음. 다만,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추진 로드맵은 본 연구원의 견해이며, 전라남도의 재정 여건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 가능함.





[그림 6-1] 남도 판소리 활성화를 장·단기 정책추진 로드맵